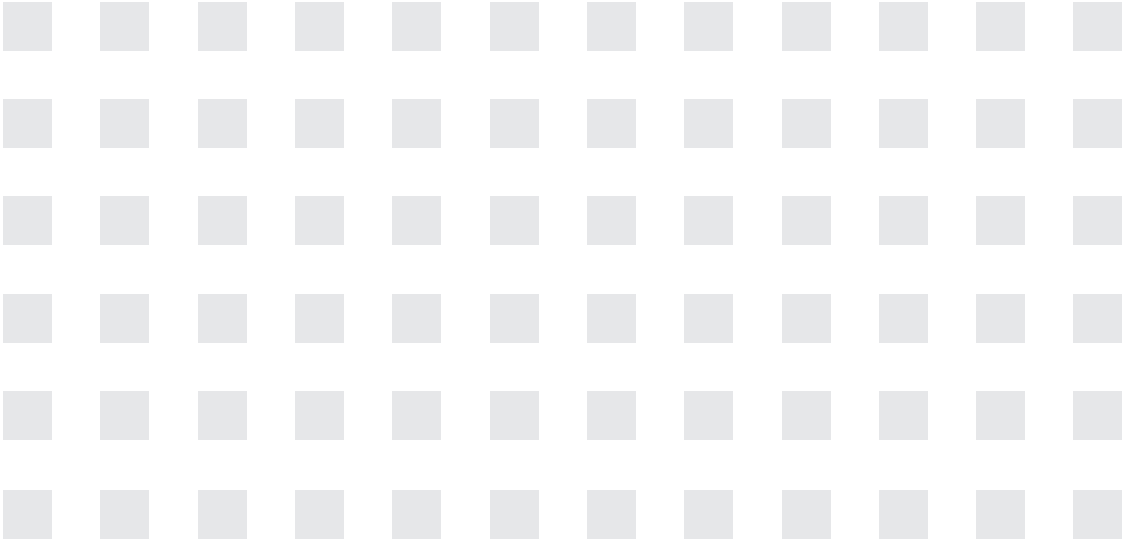


제주 역사 분야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보고서



목 차 CONTENTS

| | |
|---------------------------------------|----|
| I. 연구 개요 | 1 |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
| 1-1 연구의 배경 / 1 | |
| 1-2 연구의 필요성 / 2 | |
| 2. 연구 방법 | 3 |
| 2-1 연구 방법 / 3 | |
| 3. 제주 역사 정립의 의미와 조례 제정 내용 | 4 |
| 3-1 제주 역사 정립의 의미 / 4 | |
| 3-2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 5 | |
| 3-3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 6 | |
| 4. 제주시정립사업추진협의회 주요 연구성과 | 10 |
| 4-1 제주역사의 흐름 정리 / 10 | |
| 4-2 탐라사 연구의 심화 / 11 | |
| 4-3 제주근대사 연구의 시각 확대 / 12 | |
| 4-4 성과 및 의의 / 12 | |
| II. 제주 역사 연구 기반 현황 | 14 |
| 1. 1900년대 제주 역사 조사·연구기관 | 14 |
| 1-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14 | |
| 1-2 (사)제주학회 / 16 | |
| 1-3 제주대학교 사학과 / 16 | |
| 1-4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16 | |
| 1-5 (사)제주도사연구회 / 17 | |
| 1-6 (사)제주4·3연구소 / 18 | |
| 1-7 제주문화원 / 18 | |
| 1-8 제주교육박물관 / 21 | |
| 1-9 제주시정립사업추진협의회 / 21 | |
| 1-10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 22 | |

| | |
|---|----|
| 2. 2000년대 제주 역사 조사·연구기관 | 22 |
| 2-1 제주문화예술재단 / 22 | |
| 2-2 국립제주박물관 / 23 | |
| 2-3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23 | |
| 2-4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 24 | |
| 2-5 제주문화유산연구원 / 24 | |
| 2-6 제주고고학연구소 / 24 | |
| 3. 2010~2020년대 제주 역사 조사·연구기관 | 25 |
| 3-1 제주학연구센터 / 25 | |
| 3-2 (사)질토래비 / 27 | |
| 3-3 일영문화유산연구원 / 27 | |
| 3-4 건립 추진 기관 / 28 | |
| 4. 제주 향토사학자 현황 | 28 |
| 5. 제주 역사문화자원 현황 | 31 |

Ⅲ. 제주 역사 분야 신규 사업 제안

| | |
|---|----|
| 1. 제주 역사 조사·연구 및 자료 발굴 | 44 |
| 1-1 제주 마을회관 자료 전수 조사 및 DB화 / 45 | |
| 1-2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46 | |
| 1-3 일제강점기 제주도내 신사(神社·神祠)의 성격 규명과 활용방안 / 47 | |
| 1-4 일본 20세기 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제주 자료 수집 / 49 | |
| 1-5 제주의 건축도구 아카이빙 / 50 | |
| 1-6 제주 출향조(出鄕祖) 조사 연구(전라도권 제주 출신 집성촌 조사) / 50 | |
| 1-7 제주의 옛길 조사·연구 및 활용 / 51 | |
| 1-8 제주의 근현대 제주학연구(學者) 아카이빙 / 52 | |
| 1-9 제주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 자료집성과 활용 / 53 | |
| 1-10 제주형 비지정문화유산 중요도 측정을 위한 분류 지표 체계 구축 및 활용 / 53 | |
| 2. 제주 유무형 유산 발굴 | 54 |
| 2-1 제주 3성 9진 실측 및 기록 정비 사업 / 55 | |
| 2-2 조선시대 봉수와 연대 원형조사와 활용 / 56 | |

- 2-3 탐라의 해양 교류(유물) 출토지 조사 및 연구 / 57
- 2-4 고려와 원(몽고) 간섭기의 제주유산 찾기 / 58
- 2-5 탐라 호국 관련 전설 전수조사 / 59
- 2-6 동자복 서자복 활용 사업 / 60
- 2-7 제주인의 정체성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 60
- 2-8 제주 돌문화 경관의 보존 및 활용 / 61
- 2-9 제주 전통정원 발굴 및 보존·관리·활용 / 62

3. 제주 역사 서적 편찬 63

- 3-1 제주 역사 대사전 발간 / 64
- 3-2 탐라·제주사 학술총서 발간 / 65
- 3-3 제주의 고고학 서적 발간 / 67
- 3-4 제주도 항일운동 인물사전 발간 / 68

4. 제주 역사 교육 및 홍보 69

- 4-1 찾아가는 제주사 교실 특강 / 70
- 4-2 제주 땅이 품고 있는 역사 이야기 / 71
- 4-3 제주 구술사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 71
- 4-4 제주 유배 문화 재조명 / 73
- 4-5 제주 역사 유산 100선 출간 홍보 / 74

5. 제주 역사 국내외 교류 74

- 5-1 탐라·일본 대외교류사 현지 교류 조사 / 75
- 5-2 제주 표류민 귀환 과정과 동아시아 대외관계 연구 / 76

IV. 제주 역사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 78

- 1. 설문 조사 목적 78
- 2. 설문 문항 78
- 3. 설문 대상 78
- 4. 설문 결과 내용 79
- 5. 최종 종합 결과 111
 - 5-1 제주역사 관심도 및 조례·정책 / 111
 - 5-2 제주 역사 인식·참여 / 112
 - 5-3 제주 역사 과제 우선순위 및 고려 사항과 필요지원 / 113

- 5-4 제주 역사 기록 수집 및 유산 발굴 / 114
- 5-5 제주 역사 서적 편찬 / 114
- 5-6 제주 역사 교육·홍보 및 교류 / 115

V. 제주학연구센터 역사 분야 중장기 계획 116

- 1. 제주학연구센터 역사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2027-2031) 116
 - 1-1 일성록 제주기사 번역 편찬 사업 / 117
 - 1-2 제주 고전 강독회 / 119
 - 1-3 고문서 해제 발간 사업 / 120
 - 1-4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121
 - 1-5 제주 역사 인물 평전 발간 / 124
 - 1-6 제주 역사문화자원 구축과 미래 활용 / 126
 - 1-7 제주 근현대 지역사 자료 수집 조사 / 127
 - 1-8 제주학 교양문고 발간 사업 / 129

VI.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중장기 기초계획(안) 131

- 1.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및 성격 131
 - 1-1 계획의 필요성 및 성격 / 131
- 2. 중장기 계획의 기본 구조 132
 - 2-1 5개년 연도별 예산액 및 주요 사업축 / 132
 - 2-2 5개년 사업 추진 계획(초안) / 133
- 3. 2026년도 원년 사업 추진 체계 136
 - 3-1 연구 및 추진 체계 / 136
- 4. 추진상 주요 고려사항 140

참고문헌 141

표 차례

| | |
|--|-----|
| 〈표 1〉 기초조사 자문 | 4 |
| 〈표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총서 발간 목록(역사) | 15 |
| 〈표 3〉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역사자료총서 발간 목록 | 17 |
| 〈표 4〉 제주문화원 향토사료 발간 목록(역사) | 19 |
| 〈표 5〉 제주교육박물관 향토교육자료집 발간 목록 | 21 |
| 〈표 6〉 국립제주박물관 고전총서 발간 목록 | 23 |
| 〈표 7〉 제주학연구센터 역사 도서 발간 목록 | 25 |
| 〈표 8〉 제주 향토사학자 연구 활동 | 29 |
| 〈표 9〉 제주 역사문화자원 종목별 분류 | 31 |
| 〈표 10〉 제주 역사문화자원 지역별 종목 분류표 | 31 |
| 〈표 11〉 제주 역사문화자원 분포 | 32 |
| 〈표 12〉 제주 역사 분야 신규 사업 전문가 제안 목록 | 43 |
| 〈표 13〉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관련 신규 사업 제안 목록 | 45 |
| 〈표 14〉 유·무형 유산 발굴 관련 신규 사업 제안 목록 | 55 |
| 〈표 15〉 제주 역사 서적 편찬 관련 신규 사업 제안 목록 | 64 |
| 〈표 16〉 제주 역사 교육 및 홍보 관련 신규 사업 제안 목록 | 69 |
| 〈표 17〉 제주 역사 국내외 교류 관련 신규 사업 제안 목록 | 75 |
| 〈표 18〉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계획(역사 분야) 현황 및 제4차 계획 과제 ... | 116 |
| 〈표 19〉 제주도내 마을별 호적 자료 현황 | 122 |
| 〈표 20〉 박옹후 선생 기탁 자료 목록 | 124 |
| 〈표 21〉 5개년 연도별 예산액 | 133 |
| 〈표 22〉 5개년 추진 계획(초안) | 134 |
| 〈표 23〉 2026년 예산 배분 | 136 |
| 〈표 24〉 기본계획 수립 추진 조직 | 137 |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국제사회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협약을 통해 지역별 독창적 문화 보존을 강조하고,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각 지역의 본질적 정체성 전략으로 지역학이 형성됨
-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 정착과 1995년 전면 실시로 지자체 지역 경쟁력 전략 수립이 요구되었고, 역사학계에서는 1980년대부터 국가사와 구분되는 ‘지방사’를 제도적 분야로 정리하려는 노력이 시작됨
- 제주사의 특수성과 시대 흐름 속에서 제주학의 역사적 발전·학문적 성격을 통해 지자체 지역학의 방향 모색이 시점임
-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년 9월 제정됨에 따라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체계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됨

2. 연구 방법과 제주 역사 정립 의미

- 도내 역사 연구기관 현황 조사로 주요 기관을 정리하여 지역학 인프라 분포·공백·중복·협력 가능성을 파악함
- 전문가 심층면담으로 제주 역사 연구자·종사자 대상 신규 사업 제안을 수집함
- 도민 역사 인식 조사로 도민 대상 역사 인식·교육 경험·관심 분야·사업 기대·우려를 파악함
- 도내 연구기관 현황·전문가 의견·도민 인식을 종합해 제4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27-2031)의 역사 분야와 제주 역사 정립 5개년 기본계획(2026-2030)의 초보 방향을 제시함. 제시 내용은 로드맵 초안 수준으로 본격 계획 수립에서 수정·보완을 전제함
- 제주 역사 관련 기존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일관성·지속성·효율성을 확보함

3.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성과

- 1997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제주사정립사업 기금 10억 원 출연으로 제주도 지원 하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가 발족함
- 고고·역사·인류·민속·언어학자 등 전문가 20명이 구성되었고, 새로운 제주사 정립 조사·연구를 통해 제주 정체성 확립과 역사 체계화에 기여함
- 제주역사정립위원회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취지와 성과를 계승해 2025년 발족함

II. 제주 역사 연구 기반 현황

- 제주 역사 연구의 기관·인물·자원 현황을 정리하여 도내 여러 연구기관의 활동, 해방 전후 향토사학자의 업적, 제주 국가유산 현황을 파악함
- 제주 역사 연구는 특정 기관이 아닌 탐라문화연구원, 제주학회 등 다수 기관에서 학술지 발간, 자료 발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행됨
- 개인 연구와 문화자원 보존을 통해 제주 고유 역사 보존과 대중화를 뒷받침함

1. 도내 연구기관 현황

- 제주 역사 연구기관은 1900년대 이후 순차 설립되어 학술 연구와 대중화를 병행함
- 각 기관은 자료 수집·보존·역사·교육을 통해 제주 고유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보존함
- 1900년대 연구기관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은 1967년 제주도문제연구소로 출범해 2014년 탐라문화연구원으로 확대됨
 - (사)제주학회는 1978년 제주도연구회로 창립, 1997년 사단법인화됨
 - 제주대학교 사학과는 1981년 신설, 1997년 석사과정, 2006년 박사과정이 개설됨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민속과 자연을 결합한 박물관으로 1984년 개관함
- (사)제주도사연구회는 1989년 제주대 교수·역사교사·향토사가 참여로 창립됨
- (사)제주4·3연구소는 1989년 제주4·3 진실 규명 목적으로 설립됨
- 제주문화원은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됨
- 제주교육박물관은 1995년 제주교육 문화 진흥 목적으로 개관함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는 1997년 발족했고, 2025년 제주역사정립위원회로 계승됨
-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는 1999년 전통문화 발굴·복원 목적으로 설립됨

○ 2000년대 연구기관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01년 정체성 확립·문화교류 목적으로 개원함
- 국립제주박물관은 2001년 제주 역사·문화 자료 전시·연구 목적으로 개관함
-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는 2004년 한라산 생태 연구를 위해 설립됨
-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은 2006년 탐라사 정립 목적으로 출범함
-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2008년 문화유산 보존·연구 목적으로 개원함
- 제주고고학연구소는 2009년 문화유산 조사·보호 목적으로 창립함
-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 제주학 정립·대중화 목적으로 설립됨
- (사)질토래비는 2018년 역사문화 발굴·공유 단체로 창립됨
- 일영문화유산연구원은 2021년 문화재 발굴·교육·목적으로 개원함

○ 설립 예정 기관

- 제주역사관은 2028년 개관 목표로,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는 2030년 개관 목표로 진행 중임

○ 향토사학자와 역사문화자원 현황

- 해방 전후 김석익·김봉현·김태능·홍순만·김찬흠 등 향토사학자들이 제주 사료를 수집·정리하고 통사 편찬·인명사전 작업 등으로 연구 기초를 마련함
- 제주 역사문화자원은 총 410건의 국가유산으로 구성됨. 국가지정 87건, 국가등록 26건, 도지정 297건임. 제주시 236건(57.6%), 서귀포시 162건(39.5%), 도일원 12건(2.9%) 분포되었고, 교육·관광 콘텐츠 활용을 위한 보존 체계 구축이 필요함

Ⅲ. 제주 역사 분야 신규 사업 제안

- 제주 역사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안된 제주 역사 관련 신규 사업을 취합하여,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과제들을 주제별 과제군으로 제시함
- 각 연구 사업은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 역사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제주 유·무형 유산 발굴, 제주 역사 서적 편찬, 제주 역사 교육 및 홍보, 제주 역사 국내외 교류, 다섯 영역으로 재구성하였음
- 정리된 과제군은 전문가 면담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집약한 결과물로, 개별 아이디어를 넘어 중장기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전략적 신규 사업으로 참고할 수 있음

〈제주 역사 분야 신규 사업 전문가 제안 목록〉

| 구분 | 사업 내용 |
|---------------------|--|
|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 <input type="checkbox"/> 제주 마을회관 자료 전수 조사 및 DB화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호적중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input type="checkbox"/> 일제강점기 제주도내 신사(神社·神祠)의 성격 규명과 활용 방안 |
| | <input type="checkbox"/> 일본 20세기 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제주 자료 수집 |
| | <input type="checkbox"/> 제주의 건축도구 아카이빙 사업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출향조(出鄕祖) 조사 연구 |
| | <input type="checkbox"/> 제주의 옛길 조사 연구 및 활용 |
| | <input type="checkbox"/> 제주의 근현대 제주학연구(學者) |
| | <input type="checkbox"/> 제주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 자료 집성과 활용 |
| | <input type="checkbox"/> 제주형 비지정문화유산 중요도 측정을 위한 분류 지표 체계 구축 및 활용 |
| 유무형 유산 발굴 | <input type="checkbox"/> 제주 3성 9진 실측 및 기록 정비 사업 |
| | <input type="checkbox"/> 조선시대 봉수와 연대 원형 조사와 활용 |
| | <input type="checkbox"/> 탐라의 해양 교류(유물) 출토지 조사 및 연구 |
| | <input type="checkbox"/> 고려와 원(몽고) 간섭기의 제주유산 찾기 |

| 구분 | 사업 내용 |
|---------|--|
| | <input type="checkbox"/> 탐라 역사 관련 신화·전설 조사 |
| | <input type="checkbox"/> 동자복 서자복 활용 사업 |
| | <input type="checkbox"/> 제주인의 정체성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돌문화 경관의 보존 및 활용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전통정원 발굴 및 보존·관리·활용 |
| 서적 편찬 | <input type="checkbox"/> 제주 역사 대사전 발간 |
| | <input type="checkbox"/> 탐라·제주사 학술 총서 발간 |
| | <input type="checkbox"/> 제주의 고고학 서적 발간 |
| | <input type="checkbox"/> 제주도 항일운동 인물 사전 발간 |
| 교육 및 홍보 |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 제주사 교실 특강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땅이 품고 있는 역사 이야기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구술사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유배 문화 재조명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역사 유산 100선 출간 홍보 |
| 국내외 교류 | <input type="checkbox"/> 탐라일본 대외 교류사 현지 교류 조사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표류민 귀환 과정과 동아시아 대외관계 연구 |

Ⅳ. 제주 역사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

-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 역사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제주 역사의 관심과 이해도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의 향후 중장기 역사 사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1. 제주 역사 관심도 및 조례 정책

- 제주도민은 대체로 제주 역사에 관심(80.7%)이 있고, 관심을 갖는 이유로는 대체로 ‘제주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36.4%)와 ‘제주의 정체성과 뿌리를 알고 싶어서’(31.4%)라고 응답하였고,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로는 대체로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느껴져서’(34.5%)와 ‘제주 역사

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 기회가 적어서’(27.6%)라고 응답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5년에 제정한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문가의 인지도(46.8%)는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본인의 제주역사 지식수준은 대체로 ‘높다’(35.3%)는 응답이 대체로 ‘낮다’(22.7%)는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2. 제주 역사 인식·참여

- 제주 역사의 국내(도내·도외 포함) 인지도는 대체로 아직 잘 안 알려졌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전문가가 생각하는 인지도(18.2%)보다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인지도(31.0%)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전문가는 절반 이상(50.6%)이 제주 역사의 국내(도내·도외 포함) 인지도가 낮다고 응답하였음
- 도민들이 제주 역사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요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주 역사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 기회가 적어서’(35.1%)와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느껴져서’(32.5%) 그리고 ‘흥미롭고 매력적인 콘텐츠(책, 영상, 전시 등)가 부족해서’(20.8%)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음
- 제주도민들이 제주 역사 관련 정보 접근 경로로는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40.0%)서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고, 다음으로 ‘인터넷 검색, SNS를 통해’(24.0%) 그리고 ‘강연, 답사 등 행사에서’(12.7%) 등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제주 역사의 정체성으로 제주도민은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 문화’(27.7%)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탐라국과 개국 신화의 자주정신’(25.7%)과 ‘공존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23.7%)도 비슷한 비율로 높게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공존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46.8%)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외세 저항과 자립정신’(18.2%)과,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 문화’(13.0%)로 응답함으로써 제주도민과 전문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3. 제주 역사 과제 우선순위 및 고려 사항과 필요지원

- 우선 추진 제주 역사 과제 1순위로 ‘제주 역사 기록과 자료의 조사·수집’을 제주도민(64.3%)과 전문가(79.2%)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도민 ‘제주 역사 교육 확대와 대중 홍보 강화’(14.3%)와 ‘제주 유·무형 유산 발굴 및 활용 기반 마련’(11.7%)을, 전문가는 또한 ‘제주 역사 교육 확대와 대중 홍보 강화’(11.7%), ‘제주 유·무형 유산 발굴 및 활용 기반 마련’(9.1%)으로 제주도민과 전문가들은 비슷하게 판단하고 있음

- 제주 역사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1순위로 제주도민은 ‘지역사회 및 도민 의견 반영’(32.3%)을, 전문가는 ‘전문 인력 양성’(31.2%)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차이를 보이나, 다음으로 제주도민 ‘자료 보존과 관리 강화’(28.0%), ‘정책 및 행정 지원’(19.3%)을, 전문가 ‘자료 보존과 관리 강화’(27.3%), ‘정책 및 행정 지원’(20.8%)으로 같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4. 제주 역사 기록 수집 및 유산 발굴

- 제주 역사 기록(문헌·사진·증언 등)을 수집할 때, 우선 수집이 필요한 자료로 ‘마을·지역단체(마을위원회 등) 소장 자료’를 제주도민(37.7%)과 전문가(36.4%)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도민은 ‘개인·가문 소장 자료(족보, 고문서 등)’(23.3%)와 ‘공공기관·교육기관 소장 자료’(17.7%) 그리고 ‘국내 다른 지역에 소장된 제주 자료’(17.7%)를, 전문가는 ‘개인·가문 소장 자료(족보, 고문서 등)’(22.1%)와 ‘국내 다른 지역에 소장된 제주 자료’(16.9%)를 우선 수집이 필요한 자료로 생각하고 있음
- 제주 역사 유·무형 유산의 발굴과 활용을 위해 최우선 조사가 필요한 분야로 제주도민은 ‘탐라·제주의 신화와 전설’(31.3%)을, 전문가는 ‘제주 마을 공동체 문화유산’(61.0%)으로 보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도민은 ‘제주 마을 공동체 문화유산’(26.7%)과 ‘탐라·제주의 신화와 전설’(23.7%)을, 전문가는 ‘탐라 유적 및 유물’(16.9%), ‘제주 자연 및 지질 유산’(10.4%)을 조사가 필요한 분야로 보고 있음

5. 제주 역사 서적 편찬

- 제주 역사를 알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사서적으로는 ‘일반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역사서’를 제주도민(53.0%)과 전문가(55.8%) 모두 높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도민은 ‘주제별로 집성한 제주 역사 사

전'(20.0%)과 '2천 년 제주 역사를 아우르는 통사'(13.0%)를, 전문가는 '주제별로 집성한 제주 역사 사전'(20.8%)과 '제주 역사 옛 문서의 번역 및 해설서'(14.3%)를 필요한 역사 서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6. 제주 역사 교육·홍보 및 교류

- 제주 역사 교육하고 홍보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주도민은 '미디어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31.0%)를, 전문가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37.7%)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도민은 '학교 교육과정 연계'(23.3%)와 '제주 역사 관련 대중서 보급'(18.7%)을, 전문가는 '제주 역사 관련 대중서 보급'(20.8%)과 '박물관·기념관 등 역사 문화 시설 조성'(16.9%)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제주도민과 전문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V. 제주학연구센터 역사 분야 중장기 계획

- 이 장은 제주역사정립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면서도, 제주학연구센터의 자율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함
- 제주학연구센터 제4차 중장기 운영 기본계획(2027-2031)을 새롭게 수립함에 있어, 제3차 운영 기본계획(2022-2026)의 역사 분야 사업 실행 여부와 제4차 운영 과제 간 연계 현황을 확인함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역사 분야) 운영 계획 현황 및 제4차 계획 과제〉

| 제3차 운영계획 (2022-2026) 추진 과제 | 2022-2026년 추진 완료 및 추진 중 과제 | | | 제4차 운영계획 (2027-2031) 추진 과제 |
|-------------------------------|-------------------------------|-------------|-------------|-------------------------------|
|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 2023년 신규 | 2025년 종료 | - |
|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사업 |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사업 | 2016년 신규 | 2026년 종료 | (신규)일성록 제주기사 번역 편찬 사업 |

| | | | | |
|----------------------------|-----------------------------------|-------------|-------------|--------------------------------|
| 제주 고전 강독회 | 제주 고전 강독회 | 2018년 신규 | 연속 | 제주 고전 강독회 |
| 고문서 해제 발간 | 고문서 해제 발간 | 2018년 신규 | 연속 | 고문서 해제 발간 |
| - |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교육특구) | 2025년 신규 | 2026년 종료 | - |
| - | 제주역사 정립기치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기초조사) | 2025년 신규 | 2025년 종료 | - |
| 제주역사 인물 평전 발간 | 제주역사 인물 평전 발간 | 2026년 신규 | 연속 | 제주역사 인물 평전 발간 |
| 제주 호적 자료의 기초적 연구 | 제주 호적 자료의 기초적 연구 | 2022년 신규 | 2022년 종료 | - |
|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2026년 신규 | 연속 |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 (현대사)제주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 제주 역사문화자원 구축과 미래 활용 | 2026년 신규 | 연속 | 제주 역사문화자원 구축과 미래 활용 |
| 제주 근현대 지역사 자료 수집 조사 | - | - | - | 제주 근현대 지역사 자료 수집 조사 |
| 제주학 교양문고 발간 사업 | - | - | - | 제주학 교양문고 발간 사업 |

-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역사 분야 운영 계획 과제 대부분이 계획대로 수행됨
(5년간 계획 이행률 80% 완료)
- 미수행 과제는 제4차 운영 계획으로 재편성하고, 계획 수립→실행→차기 계
획의 체계적 연계를 입증함

Ⅵ.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중장기 기초계획(안)

- 이 장은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중장기 5개년(2026-2030년) 기본계획 수
립의 기초 단계로서,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 초안 성격임
- 2026년은 기반 조성 단계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학술대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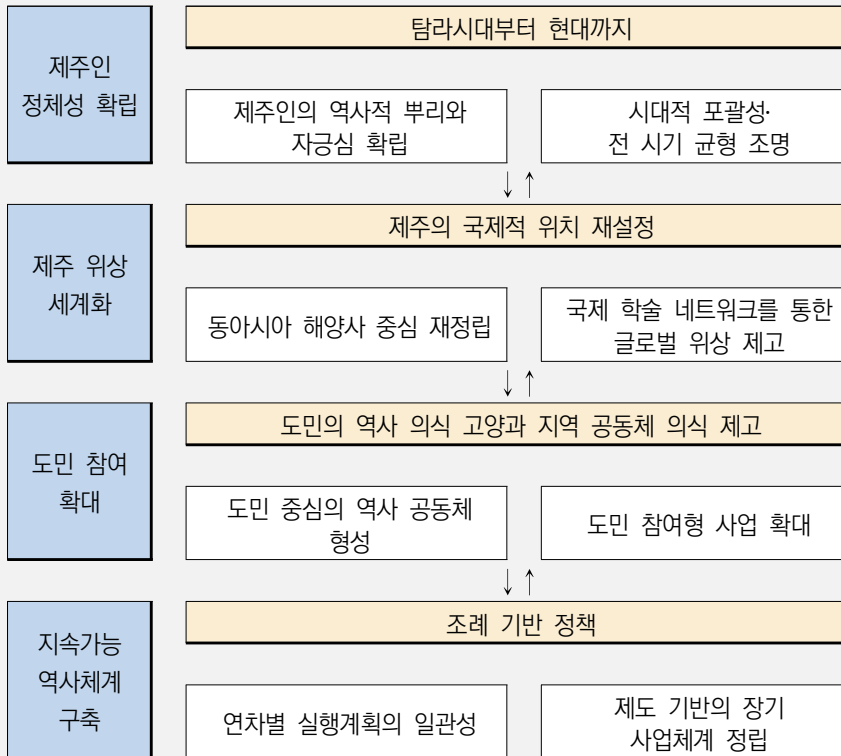
중점을 맞춤

- 2027년 이후에는 사업 본격화에 따른 점진적 증액(연평균 12%)으로 5개 사업축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전문기관 지원 규정에 따라 도내 연구기관 지원 비중을 증가시킴

〈5개년 연도별 예산액〉

| 연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예산액(천원) | 350,000 | 400,000 | 450,000 | 500,000 | 550,000 | 2,250,000 |
| 전년비 증감 | - | ▲14.3% | ▲12.5% | ▲11.1% | ▲10.0% | |

〈중장기 계획의 핵심 목표〉



○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5개 사업축
을 중심으로 2026-2030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함

〈제주역사정립사업 5개 사업축〉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 배경

-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말 세계화 담론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국가 중심의 틀이 약화되면서 지역이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핵심 개념으로 떠올랐음
 -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 연구의 정당성이 강화되었고, 국제사회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협약을 통해 지역별 독창적·특유적 문화 보존에 초점을 맞추었음
 - 글로벌화에 맞서는 글로벌리즘의 등장으로 지방의 문화·역사적 고유성과 정체성 인식이 확대되었음
-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각 지역의 본질적 정체성과 전략 모색 과정에서 지역학이 형성되었음
 -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지역이 국가의 부속 개념에서 독립적 주체로 부상하면서 지역 정체성 구축 요구가 커졌음
- 유럽·미국에서는 도시 문화 재생을 목표로,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는 관광 유치 위한 전통 기반 정체성 탐구를 중심으로 지역학이 활성화되었음
-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지역사회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
 - 199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 정착과 함께 지자체들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었고, 이로써 지역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었음
 -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로 지역 정체성 구축과 발전 방안 탐색 등 실질적 연구 과제가 부상하였음
 - 2013년 「문화기본법」과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역문화 육성의 법적 틀

이 갖춰졌음

□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 이러한 자치분권의 정책 및 시대적 흐름 아래 문화정책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변화와 요구를 고려하여 제주도가 지향하는 지역학의 방향성과 종합적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의 필요성

- 역사학계에서 지역사 또는 지방사 논의는 오랜 시간 진행되어 왔고, 1980년대부터 국가사와 구분되는 ‘지방사’를 역사학의 제도적 분야로 정리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음
- 21세기 자치 확대와 문화 다양성 강조로 지역사가 부상하며, 지방사가 국가사와 대등한 독립적 역사로서 재조명되었음
- 제주사는 탐라국부터 4·3까지 연속적 서술이 가능하며, 화산섬과 유배문화, 공동체문

화 등 독특한 요소를 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음

- 제주시의 특수성과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제주학의 역사적 발전과 학문적 성격을 통해 지자체 지역학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시점임
-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년 9월 제정됨에 따라 제주 역사 정립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 역사 정립 지원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조례 제정은 제주 역사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공식적 출발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

2. 연구 방법

2-1 연구 방법

- 도내 역사 연구기관 현황 조사
 - 제주 도내 주요 역사 연구·조사 기관의 현황을 정리하여 향후 지역학 인프라의 분포와 공백, 중복 영역,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삼고자 함
- 전문가 심층면담
 - 제주 역사 관련 연구자 및 관련 종사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제주 역사 신규 사업 제안을 수집함
- 도민 역사 인식 조사
 -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 역사 인식, 교육 경험, 관심 분야, 향후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파악하기 위한 인식조사를 수행함
- 제주학연구센터 역사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 제주역사정립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면서도, 제주학연구센터의 자율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함
- 중장기 기본계획(안)을 위한 로드맵 초안
 - 연구기관 현황·전문가 의견·도민 인식을 종합하여,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역사정립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안)의 초보적 방향과 과제 구조를 가설적으로 제시함
 - 여기서 제시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로드맵 초안의 수준으로, 본격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절차에서 수정·보완될 전제하에 작성되었음을 분명히 함

〈표 1〉 기초조사 자문

| 순서 | 자문 명단 | 순서 | 자문 명단 |
|----|----------------------|----|---------------------|
| 1 | · 강경희(제주역사문화진흥원 원장) | 8 | · 송원섭(제주대학교 교수) |
| 2 | · 강만생(제주역사정립위원회 위원장) | 9 | · 양정필(제주대학교 교수) |
| 3 | · 고재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 | 10 | · 장창은(제주대학교 교수) |
| 4 | · 김경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 11 | · 전영준(제주대학교 교수) |
| 5 | · 김동전(제주대학교 교수) | 12 | · 정주연(제주대학교 교수) |
| 6 | · 김수정(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 13 | · 한금순(제주대학교 강사) |
| 7 | ·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 14 | · 홍기표(전 제주역사문화진흥원장) |

3. 제주 역사 정립의 의미와 조례 제정 내용

3-1 제주 역사 정립의 의미

3-1-1 역사 정립의 시대적 의미

■ 지역 정체성의 재확립

- 세계화와 정보화가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 기반임
- 제주역사의 체계적 정립은 외부 문화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제주만의 독자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할을 함

■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기록과 전승

- 제주 역사를 조사·연구하고, 자료를 발굴·편찬함으로써 왜곡이나 단편적 기억이 아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미래 세대에게 정확한 역사 인식을 전달함

■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토대

- 제주 역사의 올바른 정립은 지역 발전 정책, 문화 진흥,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함

3-1-2 역사 정립의 사회적 의미

■ 도민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고양

- 제주 역사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음
- 올바른 역사 인식은 도민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적 자산이 되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기반이 됨

■ 문화다양성의 보존과 확산

- 제주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함
- 지역 고유의 문화가 전국적,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교육적·문화적 자산의 축적

- 제주 역사의 정립은 학교 교육, 평생학습, 지역축제 등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기반 자료로 활용되어, 미래 세대의 정체성 교육과 문화적 성장에 기여함

3-2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3-2-1 조례 제정의 취지

■ 제주역사의 올바른 인식과 계승

- 제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료 발굴 및 연구의 체계화

- 제주역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사료의 발굴 및 편찬 사업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고, 후대에 정확히 전승할 필요성에 대응함

■ 도민 자긍심과 지역 정체성 강화

- 제주역사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

■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적 자산 확보

- 올바른 역사 인식과 자료의 축적을 통해 미래 세대가 제주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함

3-2-2 조례 제정의 정책적 필요성

■ 제주 역사 정립의 제도적 공백 해소

- 기존에는 제주 역사와 관련된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음
-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업의 일관성, 지속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지역 발전과 문화적 경쟁력 제고

-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는 지역 발전과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
- 제주역사 정립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명확화

- 조례를 통해 정책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전문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위원회 설치와 운영, 관계기관 협력 등의 규정을 통해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도민 참여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제주역사 정립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3-3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 목적 및 기본방향

- 제주 역사의 보존·계승 및 활용을 통해 제주 역사의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도민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주 역사 조사·연구, 사료 발굴 및 편찬 등 전반적인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도지사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의 책임을 가짐. 필요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실행 계획의 수립

- 제주 역사 정립 사업의 방향 및 목표, 예산 및 자원, 정책 발굴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된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실행계획은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함.

■ 사업의 범위

제4조(대상사업)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2. 유·무형 유산 발굴
3. 편찬 사업
4. 교육 및 홍보 사업
5. 국내외 교류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업

■ 재정적 지원

-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제주역사정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주역사 정립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제주역사정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력

-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음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9.03.] (제정) 2025-09-03 조례 제4065호

관리책임부서명: 문화정책과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역사의 보존·계승 및 활용을 통하여 제주역사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도민의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역사 정

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실행계획 등의 수립)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역사 정립 사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제주역사 정립 사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3. 제주역사 정립 사업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역사 정립에 관한 사항

제4조(대상사업)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사료의 발굴 사업
2. 제주역사 정립 관련 유·무형 유산 발굴 사업
3. 제주역사 정립 관련 편찬 사업
4. 제주역사 정립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제주역사 정립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역사 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주역사정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역사정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주역사 정립 사업의 정책 발굴
3. 그 밖에 제주역사 정립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품을 담당하는 국장, 세계유산본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및 제주학 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역사 정립과 관련하여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직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 기관, 민간 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제4065호, 2025.9.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사정립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인 제주사정립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위원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임기로 본다.

4.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의 주요 연구성과

- 1997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제주사정립사업 기금 10억 원을 출연함에 따라 제주도 지원하에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가 발족됨
 - 고고·역사·인류·민속·언어학자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
- 새로운 제주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21세기 제주의 정신적·철학적 바탕을 마련하고자 추진됨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는 출범 이후 제주 역사의 정립과 체계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해 왔음.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4-1 제주역사의 흐름 정리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연구 끝에 2006년 고대부터 현대까지 제주 역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제주사연표』 3권을 발간했

음. 1권은 고대~일제시대, 2권은 현대사(①,②)로 구성되어 있음

- 『제주사연표』는 제주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주요 사실들을 모두 추출·정리해 제주역사 정립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간행되었음
 - 한·중·일 고대사서 등 각종 문집부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관찬사서, 〈황성신문〉, 〈구한국관보〉 등 필수적인 1차 사료를 참고해 탐라시대 전후 시기로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현대에 이르는 전 시기의 제주도 관계 자료를 수록했음
- 이로써 제주 역사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확립되고, 향후 제주 역사 및 문화권 정립사업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4-2 탐라사 연구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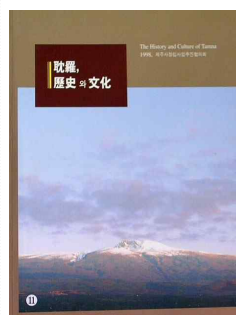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는 기존 왕조사 일부로만 다뤄졌던 제주사를 재조명하고, 제주인이 주체가 되는 역사 연구사업을 추진했음
- 1997년 12월 〈탐라사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사정립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탐라사 연구 필요성과 새로운 관점 ▲탐라사 형성 ▲탐라국의 정치사회구조와 대외관계 ▲탐라국의 중앙으로의 귀속 등에 대해 논의함
- 탐라사 정립의 일환으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과 애월읍 금성리 석축유적 조사 및 하원동 고분군 등 유적 발굴 사업도 병행했음. 이 과정에서 중국 화폐 등 타 지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되었고, 고려 후기~조선 전기 묘역 구조 등을 파악함



『제주사연표』



『제주 하원동 분묘군』



『탐라, 역사와 문화』



『일본신문이 보도한 제주도』

- 1998년에는 탐라시대를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고고학적 유적·유물 자료를 총망라해 체계화한 『탐라, 역사와 문화』를 발간했음
- 2010~2011년에는 선사시대~조선초기 탐라 역사를 시대별로 개관한 『탐라사Ⅰ』와 30개의 분야별 연구 결과를 수록한 『탐라사Ⅱ』를 발간했음. 『탐라사Ⅰ』은 대중적 개설서 형식으로 탐라역사의 대중적 이해와 보급에 힘쓰고자 했음

4-3 제주근대사 연구의 시각 확대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는 『제주사연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개항시기 일본 신문에 수록된 제주 관련 기사를 수집·번역해 2006년 『일본 신문이 보도한 제주도 -1878년~1910년』을 발간함
 - 자료집은 ▲개항 이후 일본어민의 제주어장 침탈 ▲통어권(通漁權) 확보 문제 ▲제주도 진출 일본어민의 보호문제 ▲일본어민 침투에 따른 제주어민과의 분쟁 등을 상세히 담았음
 - 제주 관련 기사가 수록된 신문은 오사카아사히신문, 고베신보, 오사카마이니치신문, 고베유신일보 등 규슈와 오사카, 고베 등지에서 발행된 지방지임
- 이 자료집이 발간됨으로써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개항시기 제주근대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성과를 얻게 되었음

4-4 성과 및 의의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는 『제주사연표』 발간, 탐라국 및 고대사 연구 심화, 학술 세미나 개최, 탐라사 개설서 발간, 그리고 고고학적 유적 조사 등 다양한 성과를 통해 제주 역사의 체계화와 주체적 정립, 지역 정체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음
- 『제주사연표』는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지역 연표사로서, 지역사 연구의 모범이 되었음. 또한 탐라시대의 석축 문화 등 고고학적 연구도 진행하여, 제주 고유의 문화 전통을 재확인하는 데 기여했음
- 제주역사정립위원회는 이같은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의 취지와 연구 성과를 계승하여, 제주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한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2025년 발족했음

- 제주역사정립위원회는 역사·지리·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주 역사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과 조사·연구, 콘텐츠 개발, 주요 사업 심의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됨



제주역사정립위원회 위원 위촉식(2025.03.28.)

II. 제주 역사 연구 기반 현황

- 이 장은 제주 역사 연구를 뒷받침하는 기관·인물·자원의 전반적 현황을 다룸. 도내 연구기관의 활동, 해방 전후 향토사학자의 선구적 업적, 그리고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현황을 정리했음
- 제주 역사 연구는 특정 기관과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내 여러 기관에서 연구와 발간이 진행되고 있음
 - 1900년 이후 탐라문화연구원, 제주학회, 제주도내 박물관, 제주문화원, 제주학연구센터 등 도내 여러 연구기관이 순차적으로 설립되며 제주 역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전개하고 있음
 - 각 기관은 학술지 발간, 자료 발굴, 역주·간행,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보존하며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음
- 개인 연구로는 해방 전후 김석익, 김봉현, 김태능, 홍순만, 김찬흠 등 향토사학자들이 제주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주 통사 서술과 인명사전 편찬 등 선구적 작업을 수행함
- 제주 역사문화자원은 총 410건의 국가 유산(국가 지정 87건, 국가 등록 26건, 도 지정 297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교육·관광 콘텐츠로 활용 가능하므로 자원의 지속적 보존을 위한 제도·행정 체계 구축과 콘텐츠 개발 연계가 필요함

1. 1900년대 제주 역사 조사·연구기관

1-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제주도의 인문,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와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학술 진흥에 기여하는 대학 부설 연구기관임. 1967년 ‘제주도 문화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제 영역에 걸친 연구 및 분야 간 협동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제

주도문제연구소로 출범함

- 1975년 제주문화연구소로 거쳐, 1976년 탐라문화연구소로, 2014년 탐라문화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함. 2012년 학술지 『탐라문화』가 등재지로 선정되었고, 『탐라문화총서』와 『탐라문화학술총서』 등 각종 총서와 함께 발간을 이어가고 있음
- 2019년 '난민 문제' 해결방안 연구 주제로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재학생 대상 지역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

〈표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총서 발간 목록(역사)

| 순서 | 서명 | 저자 | 총서명 | 발행연도 |
|----|----------------------------------|-----------------|---------|------|
| 1 | 耽羅錄(영인) | 이원조 | 총서 3 | 1989 |
| 2 | 耽羅誌草本 外(영인) | 이원조 | 총서 4 | 1989 |
| 3 | 耽羅誌(영인) | 남만리 | 총서 5 | 1989 |
| 4 | 耽羅誌(영인) | 이원진 | 총서 9 | 1991 |
| 5 | 濟州大靜縣德修里戶籍中草(Ⅰ~Ⅳ) | 탐라문화연구소 | 총서 11 | 1993 |
| 6 | 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Ⅰ~Ⅵ) | 탐라문화연구소 | 총서 14 | 1998 |
| 7 | 濟州大靜縣下臺里戶籍中草(Ⅰ~Ⅵ) | 탐라문화연구소 | 총서 15 | 2000 |
| 8 | 濟州東伍軍籍簿 | 탐라문화연구소 | 총서 16 | 2001 |
| 9 | 浮海文集(上) | 안병택 | 총서 17 | 2002 |
| 10 | 浮海文集(下) | 안병택 | 총서 18 | 2003 |
| 11 | 水隱詩集(上) | 김희돈 저/오문복 역 | 총서 19 | 2005 |
| 12 | 水隱詩集(下) | 김희돈 저/오문복 역 | 총서 20 | 2005 |
| 13 |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 조사 보고서 I | 한라일보사/조성윤 편집 | 총서 21 | 2008 |
| 14 | 변경봉 문집 | 변경봉 저/허남춘 외 역 | 총서 24 | 2010 |
| 15 | 제주 속의 탐라(심재집) | 김석익 저/오문복 외 역 | 총서 26 | 2011 |
| 16 | 조선시대 제주금석문(上) | 홍기표 | 총서 30 | 2022 |
| 17 | 조선시대 제주금석문(下) | 홍기표 | 총서 31 | 2023 |
| 18 | 제주도고문서연구 | 고창석 | 학술총서 1 | 2002 |
| 19 | 제주도포구연구 | 고광민 | 학술총서 2 | 2003 |
| 20 |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 오창명 | 학술총서 3 | 2004 |
| 21 |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 조성윤 | 학술총서 7 | 2008 |
| 22 |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 진영일 | 학술총서 8 | 2008 |
| 23 |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 윤용택 외 | 학술총서 13 | 2012 |
| 24 | 재일제주인의 삶과 기업가 활동 | 고광명 | 학술총서 14 | 2013 |
| 25 |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 한금순 | 학술총서 15 | 2013 |
| 26 | 일본인 학자가 본 제주인의 삶 | 이재하·노리코 저/안행순 역 | 학술총서 16 | 2013 |

| | | | | |
|----|---------------------------|-------|---------|------|
| 27 |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 김동전 외 | 학술총서 18 | 2015 |
| 28 |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 채미하 외 | 학술총서 22 | 2019 |
| 29 | 중세 동아시아의 해양과 교류 | 김일권 외 | 학술총서 23 | 2019 |
| 30 | 조선시대 제주사회와 타자인식 | 정소연 외 | 학술총서 24 | 2020 |
| 31 | 주제로 본 탐라국사 | 김창현 | 학술총서 32 | 2023 |
| 32 | 제주4·3, 여순10·19의 책임을 위한 연대 | 강영신 외 | 학술총서 35 | 2025 |
| 33 | 생동하는 탐라국 역사 | 김창현 | 학술총서 36 | 2025 |

1-2 (사)제주학회

- 1978년 국문학, 인류학, 민속학, 지리학, 역사학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국내 최초로 전국 규모의 지역학 연구를 수행하는 제주도연구회를 창립함. 1996년에는 제주도연구회를 제주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7년에는 사단법인 제주학회로 거듭나면서 제주도 연구의 주요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제주학회 학술지 『제주도연구』는 1984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여 2021년 등재지로 선정됨. 2022년부터 제주도 연구에 우수한 업적을 남긴 연구자에게 ‘제주학 학술상’을 시상하고 있고 『제주학 총서』 등 전문 연구 출판물 수행하고 있음
- 제주도 관련 실증적 조사 연구와 지역교류 학술대회,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제주학 학술 문화의 지속적 확장을 이어가고 있음

1-3 제주대학교 사학과

- 1981년 제주대학교 사학과는 지나간 인류의 과거를 과학적으로 탐구·이해함으로써 오늘과 내일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신설되었음
- 한국전통문화를 재인식하고 동·서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올바른 역사 인식과 판단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음
- 1997년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2003년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된 것에 이어 2006년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개설되었음

1-4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1984년 개관한 박물관으로 제주의 역사, 민속, 자연사에 대한 자료 수집과 보존, 조

사 연구, 전시개선, 사회교육, 학술교류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제주항과 제주공항 근처에 전국 유일무이하게 ‘민속과 자연’을 결합한 ‘제주 속의 작은 제주’를 표상화한 박물관임. 국내외 관광객이 짧은 시간 내 제주의 독특한 풍물과 생활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관람 시설은 자연사전시실, 민속전시실, 근현대생활사전시실, 제주바다전시관, 특별전시실, 야외석물전시장 등이 있으며 제주의 전통 생활과 문화, 그리고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음

〈표 3〉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역사자료총서 발간 목록

| 순서 | 서명 | 저자 | 총서명 | 발행연도 |
|----|---|----------------|--------|------|
| 1 | 이형상 제주목사 관련 편지 모음집-이별의 한 뉘 수심 넓은 바다처럼 깊은데- | 이형상 외 저/김익수 역 | 역사총서 1 | 2017 |
| 2 | 이형상 제주목사 관련 편지 모음집-목도에서 경쇠 치던 벼에게 보낸 편지- | 이형상 외 저/김익수 역 | 역사총서 2 | 2018 |
| 3 | 이형상 제주목사 관련 편지 모음집-빠어난 절역에서의 유람은 평생에 제일이더라- | 이형상 외 저/김익수 역 | 역사총서 3 | 2019 |
| 4 | 탐라록 | 이형상 저/이진영 역 | 역사총서 4 | 2020 |
| 5 | 탐라장계초 | 이형상 저/김익수 역 | 역사총서 5 | 2021 |
| 6 | 남한박물 | 이형상 저/김새미오 외 역 | 역사총서 6 | 2022 |
| 7 | 고문서에 담긴 조선 후기 제주인의 삶-제주 대포리 고부이씨 집안 소장 고문서- | 문창선 외 역 | 역사총서 7 | 2023 |
| 8 | 새롭게 쓴 탐라사 | 김동전 외 | - | 2024 |



탐라문화
제1호
2019. 12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제1집 • 2012년 발행
濟州島研究
제1집
2012. 12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탐라 특별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탐라 특별전〉

1-5 (사)제주도사연구회

- 1989년 창립된 제주도사연구회는 제주대학교 사학과 및 국교과 교수(강사)와 제주도내 역사 교사 및 기존의 향토사가까지 참여해 제주사 연구가들의 집합체 성격을 가졌음
- 제주사 기본자료 수집과 기존 연구의 정리, 연구자의 발표 및 토론 그리고 답사, 도민을 위한 교양강좌 실시 등을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음
- 1991년 학술지 『제주도사연구』를 창간하여 2003년까지 발간하고, 2005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등 제주사 연구의 한 축을 담당했음. 2007년 이후 휴지기로 들어감

1-6 (사)제주4·3연구소

- 1989년 설립된 제주4·3연구소는 제주 4·3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은폐되고 왜곡되었던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제주도민의 명예 회복에 기여하고자 창립됨
- 창립 이후 유족회 결성 등 4·3특별법 제정과 진상 조사 보고서 확정의 이론적 틀을 만들어 냈음
- 증언 채록 및 피해 조사, 학술 연구 및 세미나, 자료 발굴, 정기 간행물 출판, 유물·유적지 발굴, 추모 및 대외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 제주 4·3 평화공원 내 평화기념관에 상주해 있음

1-7 제주문화원

-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의 행정 구역을 사업 지역으로 하는 지방 문화원이 설립되었고, 제주 지역에도 1994년 12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제주문화원을 두게 되었음
-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향토 사료의 발굴 및 발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약 30년간 활발한 활동을 진행함. 특히 방대한 향토 사료의 발굴, 발간, 역주 사업은 제주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공헌함
- 문화학교, 문화대학, 실버합창단, 제주신화전설인형극단, 민요봉사동아리 운영 등의 교육사업과 전래전승문화 전승사업, 마을기록화사업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함

〈표 4〉 제주문화원 향토사료 발간 목록(역사)

| 순서 | 서명 | 저자 | 발행연도 | 비고 |
|----|------------------|-----------------|------|--------|
| 1 | 濟州市 옛 지명 | 제주문화원 | 1996 | |
| 2 | 續陰晴史 | 김윤식 저/김익수 역 | 1996 | |
| 3 | 知瀛錄 | 이익태 저/김익수 역 | 1997 | |
| 4 | 丙子日錄 | 미상/김익수 역 | 1997 | |
| 5 | 文學속의 濟州-詩選集 | 제주문화원 | 1997 | |
| 6 | 修信使記錄 | 김기수 외 저/김익수 역 | 1998 | |
| 7 | 濟州女人像 | 홍순만 외 | 1998 | |
| 8 | 文學속의 濟州-時調選集 | 제주문화원 | 1998 | |
| 9 | 文學속의 濟州-小說選集 | 제주문화원 | 1999 | |
| 10 | 文學속의 濟州-隨筆選集 | 제주문화원 | 1999 | |
| 11 | 南遊錄 達告辭 耽羅別曲 訓民篇 | 박지원 외 저/김익수 역 | 1999 | |
| 12 | 20世紀 濟州人名辭典 | 김찬흠 | 2000 | |
| 13 | 老橘詩集 禾菴詩集 | 김협 외/김익수 역 | 2000 | |
| 14 | 옛 사람들의 登漢拏山記 | 김봉욱 역 | 2000 | |
| 15 | 南槎日錄 | 이증 저/김익수 역 | 2001 | |
| 16 | 蘆峯文集 卷一, 詩集 | 김정 저/김익수 역 | 2001 | |
| 17 | 濟州史人名事典 | 김찬흠 | 2002 | |
| 18 | 朝鮮襄與勝覽-濟州道篇(영인본) | 이병연 외 | 2002 | |
| 19 | 徐福集團과 濟州島 | 홍순만 | 2002 | |
| 20 | 蘆峯文集 卷二·三·四 | 김정 저/김익수 역 | 2003 | |
| 21 | 增補耽羅誌(영인본) | 담수계 | 2004 | |
| 22 | 增補耽羅誌(수정본/활자화) | 담수계 | 2004 | |
| 23 | 革菴散稿 | 김형식 저/오문복 역 | 2004 | 북제주문화원 |
| 24 | 農隱文集(영인본) | 김문주 | 2004 | |
| 25 | 譯註 增補耽羅誌 | 담수계 저/김순이 외 역 | 2005 | |
| 26 | 제주항일인사실기 | 김찬흠 | 2005 | 북제주문화원 |
| 27 | 謹齋北學日記 | 김균배 저/오문복 역 | 2005 | |
| 28 | 재일한인의 갈등과 도전 | 강재언 저/고성중 역 | 2005 | |
| 29 | 靜軒瀛海處坎錄 | 조정철 저/김익수 저 | 2006 | |
| 30 | 재일 제주도 사람의 타향살이 | 고선희 저/고성중 역 | 2006 | 북제주문화원 |
| 31 | 白首餘音 | 김경중 저/백규상 역 | 2006 | |
| 32 | 譯註 濟州古記文集 | 김정 외 저/김익수 외 역 | 2007 | |
| 33 | 일본으로 돈벌이 간 제주도사람 | 고선희 저/고성중 역 | 2007 | 북제주문화원 |
| 34 | 下加里所藏古文書(영인본) | 제주문화원 | 2007 | |
| 35 | 新興里誌 | 김정탁 외 저/김찬흠 외 역 | 2007 | |
| 36 | 南槎錄 上 | 김상헌 저/홍기표 역 | 2008 | |
| 37 | 浮海文集 I | 안병택 저/오문복 역 | 2008 | |
| 38 | 南槎錄 下 | 김상헌 저/홍기표 역 | 2009 | |
| 39 | 浮海文集 II | 안병택 저/오문복 역 | 2009 | |
| 40 | 葵窓集 | 이건 저/김익수 역 | 2010 | |
| 41 | 續陰晴史(재발간) | 김윤식 저/김익수 역 | 2010 | |

| | | | | |
|----|---------------------|---------------|------|---|
| 42 | 知羸錄(재발간) | 이익태 | 2010 | |
| 43 | 浮海文集 3 | 안병택저/오문복 역 | 2013 | . |
| 44 | 사연따라 七百里 | 홍순만 | 2014 | . |
| 45 | 제주생활문화100년 | 김봉오 외 | 2014 | . |
| 46 | 海隱文集 | 김희정저/백규상 역 | 2014 | . |
| 47 | 浮海文集 IV | 안병택 저/오문복 역 | 2015 | . |
| 48 | 譯註 耽羅紀年 | 김석익저/홍기표 외 역 | 2015 | . |
| 49 | 국역 증보탐라지 | 윤시동 저/김영길 역 | 2016 | . |
| 50 | 제주의 편액 | 홍기표 | 2016 | . |
| 51 | 譯註 耽羅錄 上 | 이원조/백규상 역 | 2016 | . |
| 52 | 譯註 耽羅錄 中 | 이원조/백규상 역 | 2017 | . |
| 53 | 譯註 耽羅紀年 | 김석익 저/홍기표 외 역 | 2017 | . |
| 54 | 제주도 명승 | 오문복 | 2017 | . |
| 55 | 濟州島金石文 | 백규상 외 | 2017 | . |
| 56 | 제주城안 역사인물 읽고 찾고 그리다 | 김원순 외 | 2017 | . |
| 57 | 4·3과 인물 | 김관후 | 2018 | . |
| 58 | 譯註 耽羅錄 下 | 이원조 저/백규상 역 | 2018 | . |
| 59 | 淸州島金石文集 I | 백규상 외 | 2018 | . |
| 60 | 4·3과 인물(증보판) | 김관후 | 2019 | . |
| 61 | 譯註 知羸錄 | 이익태 저/김익수 역 | 2019 | . |
| 62 | 譯註 耽營官報錄 | 이원조 저/백규상 역 | 2019 | . |
| 63 | 淸州島金石文集 II | 백규상 외 | 2019 | . |
| 64 | 譯註濟州邑誌 | 백규상 역 | 2020 | . |
| 65 | 濟州島金石文集III | 백규상 외 | 2020 | . |
| 66 | 譯註 大靜縣衙中日記 | 김인택 저/백규상 역 | 2021 | . |
| 67 | 濟州島金石文集 IV | 백규상 외 | 2021 | . |
| 68 | 譯註 耽羅日記(역주 탐라일기) | 이원호저/윤찬호 외 역 | 2022 | . |
| 69 | 濟州島金石文集 V | 백규상 외 | 2022 | . |
| 70 | 역주 조선환여승람 제주도편 | 백규상 역 | 2023 | . |



제주도사연구회, 『제주도사연구』



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제주문화원, 누리집 전자책

1-8 제주교육박물관

- 1995년 개관한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지역 교육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제주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제주 교육 관련 유물과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조사 연구하며 제주 교육사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 2010년 이후부터 제주 향토 사료를 발굴하고 역주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평생학습관과 현장 체험을 운영하여 대중적 관심을 유발하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표 5〉 제주교육박물관 향토교육자료집 발간 목록

| 순서 | 서명 | 저자 | 총서명 | 발행연도 |
|----|---------------------|---------------|---------|------|
| 1 | 효열록 | 김영락 저/고창석 역 | 향토교육자료집 | 1997 |
| 2 | 노촌선생문집 | 이약동 저/오문복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06 |
| 3 | 耽羅誌草本(上) | 이원조 저/고창석 외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07 |
| 4 | 耽羅誌草本(下) | 이원조 저/고창석 외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08 |
| 5 | 우암선생문집 | 남구명 저/김영길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10 |
| 6 | 효열록·대정군군병도안·보초등록 | 고창석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11 |
| 7 | 제주교육박물관 소장 제주의 고문서 | 고창석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12 |
| 8 | 탐라빈흥록 | 고창석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13 |
| 9 | 규암선생문집 | 송인수 저/백규상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14 |
| 10 | 난곡선생문집 | 김양수 저/이진영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15 |
| 11 | 한재복학일기 | 박봉술 저/백규상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16 |
| 12 | 매계선생문집 | 이한진 저/김영길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16 |
| 13 | 탐라계록 제주목관첩 | 이원조 저/고창석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17 |
| 14 | 양우상화두문집 | 오이권 외 저/오문복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17 |
| 15 | 팔오헌선생문집 남천록·시 | 김성구 저/김영길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18 |
| 16 | 정기록 | 고경명 외 저/김영길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19 |
| 17 | 고문서로 보는 조선후기 제주인의 삶 | 오창림 외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20 |
| 18 | 영현시고 | 김대홍 저/김영길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21 |
| 19 | 영현유고 | 김대홍 저/김영길 역 | 향토교육자료집 | 2022 |

1-9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 1997년 발족한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는 『제주사연표』 발간, 탐라국 및 고대사 연구 심화, 학술세미나 개최, 탐라사 개설서 발간, 고고학적 유적 조사 등 다양한 성과를 통해 제주 역사의 체계화와 주체적 정립,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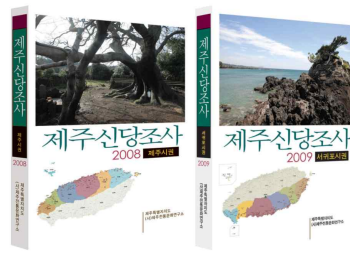
- 『제주사연표』는 지역 연표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탐라시대 석축 문화 등 고고학 조사를 통해 제주 고유 문화 전통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함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의 취지와 연구 성과를 계승하여 제주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2025년 제주역사정립위원회가 발족되었음

1-10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 1999년 설립된 제주전통문화연구소는 제주지역 전통문화의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탐구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 예술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복원·계승함으로써 21세기 제주 문화 예술 발전과 제주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음
- 잊혀가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발굴·보급하고 신당 기행 등을 통해 소외되었던 옛 신앙의 자취를 현대에 복원하였으며, 전통문화 채록과 출판, 민속놀이 및 축제 연구, 학술 교류, 제주 역사 문화 교육 등을 수행함



제주교육박물관, 사이버 전시실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2. 2000년대 제주 역사 조사·연구기관

2-1 제주문화예술재단

- 2001년 개원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간 국가간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여 제주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문화 예술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 예술 창작 보급과 활동을 지원함. 문화유산의 발굴 · 보존, 문화 예술 정보의 교류, 문화재 연구소 및 조형 연구소 운영 등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함

2-2 국립제주박물관

- 2001년 개관한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와 유물의 수집 · 보존과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적인 전시와 학술조사 · 연구 등 지역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됨
- 제주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통사적 흐름에 따라 유물 중심으로 상설전시하고 있으며, 제주의 인물·자연·문화 특별전과 사료 번역 역사서 등을 연차별로 발간하고 있음

〈표 6〉 국립제주박물관 고전총서 발간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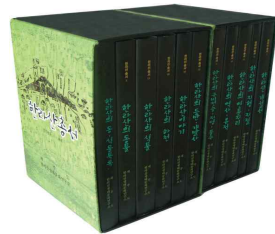
| 순서 | 서명 | 저자 | 총서명 | 발행 연도 |
|----|---------|---------------|--------|-------|
| 1 | 지영록 | 이익태 저/서광덕 외 역 | 고전총서 1 | 2021 |
| 2 | 표해일기 | 양우종 저/안대회 외 역 | 고전총서 2 | 2022 |
| 3 | 관풍안 | 안대회 외 역 | 고전총서 3 | 2023 |
| 4 | 제주부영사요람 | 정하정 외 역 | 고전총서 4 | 2025 |

2-3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2004년 창립된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는 한라산의 하천, 동물, 식물이나 역사 · 유적 등 제방면에 관한 저술을 발간함.
- ‘물을 품은 오름 현장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주최하여 제주도의 독특한 지질 · 지형과 생태계를 체험하고 제주의 생태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운영함



국립제주박물관, 〈탐라 특별전〉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총서』

2-4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 2006년 개원한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은 제주 탐라사의 정립을 고민하고 제주 정체성과 탐라문화권 정립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출범함
- 향파두리 향몽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일제 식민잔재 청산 활동 추진계획 수립 연구 등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체험, 영상 콘텐츠 제작과 같은 대중화 작업에도 주력함

2-5 제주문화유산연구원

- 2008년 개원한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제주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와 발굴 조사를 통한 연구를 활용하여 제주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제주 고고학의 학문적 활성화, 전문 연구인력의 배양, 함께하는 문화재의 공공성을 추구함. 발굴 조사를 비롯해 지표조사, 문화재 학술 조사 등 다방면의 연구 활동과 함께 제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교육 활동, 제주 역사 바로 알리기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6 제주고고학연구소

- 2009년 창립한 제주고고학연구소는 제주도의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고 보호하며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재의 총체적인 보존·관리·활용 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됨
- 문화유산의 보존·보호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학술보고서 발간과 학술행사,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문화유산의 전시·정비 및 시설에 대한 자문과 수탁 관리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함

| | | |
|--|--|---|
|  <p>사단법인제주역사문화진흥원 다문방라 TV</p> <p>제주역사문화진흥원, 유튜브 채널<다문 탐라></p> |  <p>제주문화유산연구원, 『문화재발굴조사보고서』</p> |  <p>제주고고학연구소, 〈탐라역사문화권 세미나〉</p> |
|--|--|---|

3. 2010~2020년대 제주 역사 조사·연구기관

3-1 제주학연구센터

- 2011년 창립된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도의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와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연구기관임
- 제주학의 정립과 연구의 중추 기능 수행 및 제주학 대중화 사업을 목적으로 함. 제주학 지원 사업 및 교류,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제주어·제주역사·제주민속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7〉 제주학연구센터 역사 도서 발간 목록

| 순서 | 서명 | 저자 | 총서명 | 발행연도 |
|----|---|---------|---------|------|
| 1 |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동아일보-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01 | 2017 |
| 2 |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일본어신문-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02 | 2017 |
| 3 |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I -효종대-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03 | 2017 |
| 4 |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조선일보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04 | 2018 |
| 5 |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시대일보·신한민보·조선중앙일보·중앙일보·중외일보-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05 | 2018 |
| 6 |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II -현종대-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06 | 2018 |
| 7 | 제주 고문서(Ⅰ) 제주 상창리 梁氏家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07 | 2018 |
| 8 |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매일신보-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08 | 2019 |
| 9 |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부산일보-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09 | 2019 |
| 10 |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III -숙종대(상/하)-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10 | 2019 |
| 11 | 프란게문고 제주기사 자료집-재일조선인 미디어 I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11 | 2019 |
| 12 | 제주 고문서(Ⅱ) 제주 도두리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12 | 2019 |
| 13 | 해녀박물관 소장 자료 번역집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13 | 2020 |
| 14 | 프란게문고 제주기사 자료집-재일조선인 미디어 II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14 | 2020 |
| 15 |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IV -경종·영조대(1724~1734)-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15 | 2020 |
| 16 | 유배 문화 자원 조사 보고서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16 | 2020 |
| 17 | 제주 유배 문화 사료집(Ⅰ) 제주 유배사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17 | 2020 |
| 18 | 제주 유배 문화 사료집(Ⅱ) 제주 유배사·문학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18 | 2020 |
| 19 | 제주 고문서(Ⅲ) 제주 상예리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19 | 2020 |
| 20 | 濟洲島現況一般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20 | 2021 |
| 21 | 제주 고문서(Ⅳ) 제주 조천 김해김씨 金義正 후손가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21 | 2021 |
| 22 | 제주 고문서(Ⅴ) 대포동·도순동·회수동·하원동 소장 節目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22 | 2022 |
| 23 |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V -영조대(1735~1759)-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23 | 2022 |

| | | | | |
|----|---|---------|----------|------|
| 24 | 제주 고문서(VI) 제주 애월읍 수산리 密陽朴氏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24 | 2023 |
| 25 | 承政院日記 濟州記事VI-영조대(1760~1776)(上)·(中)·(下)-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25 | 2023 |
| 26 | 제주의 입도조,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보고서 I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26 | 2023 |
| 27 |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VII-정조대(1776~1781)(上)·(下)-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27 | 2024 |
| 28 | 제주 고문서(VII) 제주 원주변씨 邊景鵬 후손가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28 | 2024 |
| 29 | 제주의 입도조,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보고서 II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29 | 2024 |
| 30 |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VIII-정조대(1782~1786)(上)·(下)- | 제주학연구센터 | 역사총서 30 | 2025 |
| 31 | 제주 사료와 설화 속의 중국 |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총서 01 | 2012 |
| 32 | 濟州啓錄 | 고창석 외 | 제주학총서 04 | 2012 |
| 33 | 제주통사 | 김봉옥 | 제주학총서 06 | 2013 |
| 34 | 탐라사의 재해석 |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총서 08 | 2013 |
| 35 | 탐라순력도 탐색 | 오창명 | 제주학총서 14 | 2014 |
| 36 | 탐라왕국 | 강문규 | 제주학총서 32 | 2017 |
| 37 |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운주당 할망 우인 고수선 평전 | 문소연 | - | 2018 |
| 38 | 濟州島概勢 |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총서 42 | 2019 |
| 39 | 제주학 인물사 :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총서 55 | 2022 |
| 40 | 문화재로 읽는 제주 인물사 | 김일우 외 | 제주학총서 61 | 2022 |
| 41 | 조선후기 제주의 목민관들 | 김새미오 외 | 제주학총서 66 | 2023 |
| 42 | 강평국, 근대 제주를 짚어지다 | 한금순 | 제주학총서 74 | 2024 |
| 43 | 고향愛를 품은 在日제주인의 선한 영향력 | 고광명 | 제주학총서 78 | 2025 |
| 44 | 오늘의 제주, 역사로 묻고 답하다 | 김일우 | 제주학총서 79 | 2025 |
| 45 | 제주 五賢, 그 자취와 올림을 찾는 여정 | 현행복 | 제주학총서 80 | 2025 |
| 46 | 조선시대 제주 목민관 비석(군)의 실태조사와 자원화 방안 | 흥기표 | 제주학연구 15 | 2015 |
| 47 | 제주성 일대 옛길의 가치규명 및 보존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 강경희 외 | 제주학연구 23 | 2015 |
| 48 | 조선시대 제주 정려비 실태조사와 자원화 방안 | 흥기표 | 제주학연구 27 | 2016 |
| 49 | 제주 역사인물 전승 조사와 문화자원화 방안 | 좌혜경 외 | 제주학연구 30 | 2016 |
| 50 |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 운동 | 이호룡 | 제주학연구 33 | 2016 |
| 51 | 동아시아 해상 무역로에서 제주도의 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 | 강창화 외 | 제주학연구 34 | 2016 |
| 52 | 제주 역사문화 자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김동전 외 | 제주학연구 41 | 2017 |
| 53 | 근대 제주 사진엽서 자료 연구 | 고영자 외 | 제주학연구 52 | 2018 |
| 54 | 제주학 선구자 석주명에 대한 기초 연구 | 양정필 외 | 제주학연구 53 | 2018 |
| 55 | 선사인류의 제주도 정착 및 적응과정 복원: 고고자료와 절대연대측정치를 중심으로 | 고재원 외 | 제주학연구 59 | 2019 |
| 56 | 4·3피해자 회복탄력성 연구 | 김종민 외 | 제주학연구 62 | 2019 |
| 57 | 제주화교 역사 및 문화유산의 발굴에 대한 연구 | 양세영 외 | 제주학연구 63 | 2019 |
| 58 | 일본 가고시마현 아미마오시마 지역 전쟁 유적지 조사 연구 | 김선필 외 | 제주학연구 66 | 2019 |
| 59 | 정조(正祖)의 제주통치론 | 김호 | 제주학연구 71 | 2020 |
| 60 | 근현대 제주 사회의 변동과 제주인의 삶 | 양정필 외 | 제주학연구 75 | 2021 |
| 61 |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문화 조사연구 | 진관훈 외 | 제주학연구 78 | 2022 |
| 62 |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의 설립과 운영 | 조성윤 | 제주학연구 79 | 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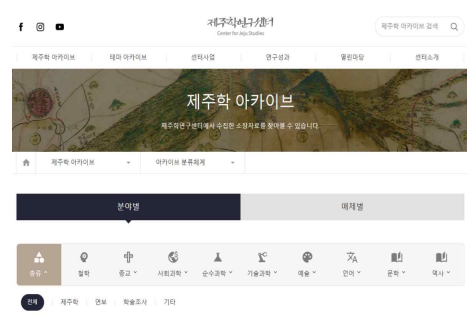


| | | | | |
|----|---|-------|----------|------|
| 63 |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종합적 연구-지명, 순력, 생활상을 중심으로- | 배영환 외 | 제주학연구 90 | 2023 |
| 64 | 근현대 제주인의 학교 설립을 위한 기부 활동 기초 조사 | 양정필 외 | 제주학연구 92 | 2024 |

3-2 (사)질토래비

- 2018년 창립된 질토래비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공유하며 제주 가치를 알리는 제주 역사 문화 공유단체임
- 제주역사문화 탐방, 제주 역사문화 유적 안내판 설치 견인, 돌하르방 제자리 찾기 운동, 제주 역사 문화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3-3 일영문화유산연구원

- 2021년 설립된 일영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재 조사 연구 기관으로, 주로 유적의 발굴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 외에도 문화유산 교육,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문화재 관련 책자 발간 등 문화유산 대중화를 위한 교육활동과 학술연구에 주력하고 있음

| | | |
|---|---|--|
|  |  |  |
| <p>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p> | <p>질토래비, 『제주역사문화의 길을 열다』</p> | <p>일영문화유산연구원, 『지역국가유산교육 우수사업』</p> |

3-4 건립 추진 기관

3-4-1 제주역사관

- 제주역사관은 2028년 개관 목표로 제주의 근현대사를 통합적으로 전시하고, 관련 유산을 수집·조사·연구하는 역사관으로 추진 중임
 - 위치 및 규모: 제주시 일도2동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2주차장에 지상 3층·지하 1층 (4130㎡) 규모로 건립 예정
 - 시설 구성: 상설·기획전시실, 개방형 아카이브, 시민전시홀, 열린도서관, 세미나실 등
- 제주 근현대사(고문서, 마을문서, 사진·자료 등)를 집중 수집·조명하며 역사문화와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도내 최초로 제주의 주체적 근현대사를 다루어 제주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함

3-4-2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는 2030년 개관 목표로 '제주 국가유산 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활용 허브 기관'을 표방함
 - 지역 유관 기관·단체와의 연계성 강화, 복합유산(문화·자연·무형·근현대문화유산) 연구 영역 확대, 제주 관내 출토 유물의 과학적인 보존 처리 확충, 국가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공공수장고 설치·확충
 - 제주도 국가유산 지정(등록) 행정적 지원 확대, 기후 변화 대응 실시간 지속 가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연유산 훼손·멸실 방지 등 역할 수행
- 도내 제주 유관 기관과의 역할과 기능 중복을 피하고 수장고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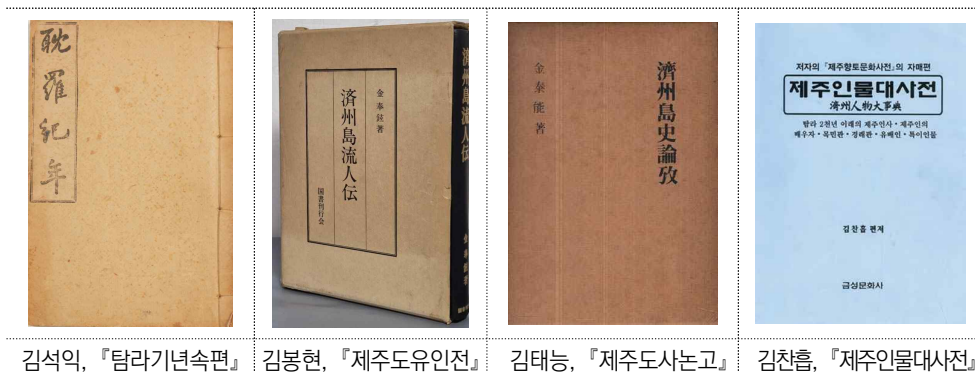
4. 제주 향토사학자 현황

- 해방 전후 김석익, 김봉현, 김태능, 홍순만, 김찬흠 등 향토사학자들이 제주 사료를 수집·정리하여, 통사 편찬과 인명 연구 등 제주 역사 연구의 선구적 기초를 마련함

〈표 8〉 제주 향토사학자 연구 활동

| 성명 | 생몰년 | 연구 활동 |
|-----|-----------|--|
| 김석익 | 1885~195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학자이자 향토사학자. 938년(태조 21)부터 1906년(고종 43)까지의 제주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탐라기년』(1918), 1906년(광무 10)부터 1955년까지의 제주 현대사를 정리한 『탐라기년속편』 및 탐라인물고, 『파한록』 등 많은 저술을 남김 |
| 김태능 | 1906~197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사학자. 제주신보에 ‘탐라향토사’, ‘제주의 유적인들’, ‘탐라와 삼별초’, ‘몽고의 탐라지배’ 등의 제주사에 관계되는 기획 연재를 기고하며 제주인의 정체성과 외세 침략에 대한 제주인의 저항사를 기록함. 주요 저서로는 『제주도사논고』(1982), 『제주도약사』 등이 있음 |
| 박용후 | 1909~199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이자 향토사학자. 채집하고 연구한 제주 방언 자료를 집대성하여 『제주방언연구』(1960)를 저술함. 제주 향토사 연구와 한학에도 뜻을 두며, 지속적 자료 수집을 통해 『제주도지』, 『남제주군지』, 『원대정군지』,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등을 편찬함 |
| 김봉현 | 1919~19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일 역사학자. 『제주도 유인전』(1981)은 고려 말부터 조선 말까지 600여 년 동안의 제주 유배자 140여 명을 기록했고, 유배자의 내력과 함께 당시 국가적·사회적 배경을 기술함. 이외 제주 개국설화부터 일제 말기까지를 다룬 『제주도역사지』, 『제주도 피의 역사』, 『제주도의 지명고』 등의 저술을 남김 |
| 김봉옥 | 1923~2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이자 향토사학자. 30여 년간 교직에 종사하며 제주도 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대표 저서 『제주통사』(1987)를 통해 제주의 자연 환경과 옛 이름, 삼국시대 대외관계, 고려·조선시대 제주, 일제강점기와 광복후 제주 등 시대별 정치·경제·사회·문화상 등 탐라의 옛 모습과 현재 제주의 가치와 위상 등에 대한 기록을 정리함 |
| 홍순만 | 1929~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인이자 향토사학자. 제주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증보 탐라지』 영인본·수정본·역주본(2006)을 발행하는 등 제주의 역사·문화 자료 발굴과 간행을 주도함. 제주 전역의 비석 소재지 및 상태와 명문을 조사 연구하고, 『삼별초의 항쟁사』, 『서복집단과 제주도』 등을 저술함 |

| | | |
|----------------|-----------|---|
| 김찬흠 | 1933~20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자이자 향토사학자. 제주 인물 사료를 수집하여 방대한 인명사전을 편찬함으로써 제주 인물사 연구에 기반이 되는 자료를 구축함. 『20세기 제주인명사전』(2000), 『제주사인명사전』, 『제주향일인사실기』, 『제주애월읍명감』, 『제주향토문화사전』 등을 저술함 |
| 오성찬 | 1940~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인이자 향토사학자. 제주 역사 자료 보존과 마을 단위 공동체 연구에 주력하였으며, 대표 저서인 『제주의 마을』(1985~2002)에서는 제주도 각 마을을 직접 답사하여 연혁, 지명 유래, 민속, 관련 인물, 설화 등을 상세히 기록함.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지 편찬 사업을 지도함으로써 향토사 보존 활동을 수행함 |
| 현재 활동 중인 향토사학자 | | |
| 오문복 | 193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학자이자 향토사학자. 제주의 주요 고문헌을 역주하고 사료 조사에 주력함. 저역본으로는 『영주풍아』(1988), 『영주십경』, 『정의군지』, 『부해문집』, 『제주도명승』 등이 있으며 현재도 활동 중임 |
| 김익수 | 193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사학자. 제주의 주요 고문헌을 역주하고 사료 조사에 주력함. 『지영록』(1997), 『남유록·달고사·탐라별곡·훈민편』, 『노봉문집』, 『남사일록』, 『속음청사』, 『규창집』 등 다수의 역주본이 있으며 현재도 활동 중임 |



김석익, 『탐라기년속편』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김찬흠, 『제주인물대사전』

5. 제주 역사문화자원 현황

- 역사문화자원은 학술적으로 역사성, 문화성을 간직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 건조물, 자연환경 등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임
- 제주에는 총 410건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가 지정 유산이 87건, 국가 등록 유산이 26건, 도 지정 유산이 297건임

〈표 9〉 제주 역사문화자원 종목별 분류

| 구분 | 종목 | 수 | 구분 | 종목 | 수 |
|-------|----------|----|------|----------------|-----|
| 국가 지정 | 보물 | 7 | 도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40 |
| | 사적 | 7 |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 25 |
| | 명승 | 9 |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 111 |
| | 천연기념물 | 50 |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 82 |
| | 국가무형유산 | 5 | |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 12 |
| | 국가민속문화유산 | 9 |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 10 |
| 국가 등록 | 국가등록문화유산 | 26 |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 | 17 |
| 합계 | | | | | 410 |

- 종목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이 111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 82건, 천연기념물 50건 순으로 나타남
- 제주 국가유산 410건을 지역별(제주시·서귀포시·제주도 일원)과 14개 종목별로 분류하면, 제주시 236건(57.6%), 서귀포시 162건(39.5%), 제주도 일원 12건(2.9%)으로 분포됨

〈표 10〉 제주 역사문화자원 지역별 종목 분류표

| 지역 | 보물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국가무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도유형문화유산 | 도무형유산 | 도기념물 | 도민속문화유산 | 도등록문화유산 | 도문화유산자료 | 도자연유산 | 합계 |
|--------|----|----|----|-------|--------|----------|----------|---------|-------|------|---------|---------|---------|-------|-----|
| 제주시 | 6 | 6 | 1 | 26 | 2 | 3 | 9 | 24 | 12 | 69 | 49 | 7 | 9 | 13 | 236 |
| 서귀포시 | 1 | 1 | 8 | 22 | 1 | 6 | 17 | 14 | 8 | 42 | 33 | 4 | 1 | 4 | 162 |
| 제주도 일원 | 0 | 0 | 0 | 2 | 2 | 0 | 0 | 2 | 5 | 0 | 0 | 1 | 0 | 0 | 12 |
| 합계 | 7 | 7 | 9 | 50 | 5 | 9 | 26 | 40 | 25 | 111 | 82 | 12 | 10 | 17 | 410 |

- 국가 지정 유산 87건(보물 7·사적 7·명승 9·천연기념물 50·국가무형유산 5·국가민속문화유산 9)과 국가 등록 유산 26건, 도 지정 유산 297건(도 유형문화유산 40·도 무형 유산 25·도 기념물 111·도 민속 문화유산 82·도 등록문화유산 12·도 문화유산 자료 10·도 자연유산 17)으로 구성됨
- 제주시는 보물 6건, 사적 6건의 국가 지정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 지정 기념물 69건과 도 지정 민속문화유산 49건의 비중이 높음. 반면 서귀포시는 명승 8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체적으로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보여줌
- 제주 역사문화자원은 교육·관광 콘텐츠 개발의 풍부한 원천으로, 지속적 보존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체계 구축과 함께 향후 콘텐츠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활용이 필요함

〈표 11〉 제주 역사문화자원 분포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 연도 |
|----|----|----------------------|--------------------------------|-------|
| 1 | 보물 | 제주 관덕정 | 제주시 관덕로 19 (삼도이동) | 1963 |
| 2 | 보물 |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 | 서귀포시 추사로 44 대정읍, 추사유물전시관 | 2006 |
| 3 | 보물 | 안중근의사 유묵 - 천연불수반수기양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1999 |
| 4 | 보물 |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 제주시 원당로16길 41 (삼양일동) | 1993 |
| 5 | 보물 | 동여비고 | 제주시 일주동로 17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 | 2008 |
| 6 | 보물 | 제주향교 대성전 | 제주시 서문로 43 (용담일동, 제주향교) | 2016 |
| 7 | 보물 | 이익태 지영록 | 제주시 일주동로 17 (건입동) | 2018 |
| 8 | 사적 | 제주 삼성혈 | 제주시 삼성로 22 (이도일동) | 1964 |
| 9 | 사적 | 제주목 관아 | 제주시 삼도2동 43-40번지 외 | 1993 |
| 10 | 사적 |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126-1번지 외 | 1997 |
| 11 | 사적 | 제주 고산리 유적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 1998 |
| 12 | 사적 | 제주 삼양동 유적 | 제주시 선사로2길 13, 외 (삼양일동) | 1999 |
| 13 | 사적 |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일원 (안성리) | 2007 |
| 14 | 사적 | 제주 용담동 유적 | 제주시 서천길 8-0 (용담이동) | 2012 |
| 15 | 명승 |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서귀동) | 2008 |
| 16 | 명승 | 제주 서귀포 산방산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 2011 |
| 17 | 명승 | 제주 서귀포 쇠소깍 | 서귀포시 쇠소깍로 128, 일원 (하효동) | 2011 |
| 18 | 명승 | 제주 서귀포 외돌개 | 서귀포시 서홍동 791번지 일원 | 2011 |
| 19 | 명승 | 사라오름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번지 | 2011 |
| 20 | 명승 |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 서귀포시 하원동 산1-4번지, 도순동 산1-1번지 일원 | 2011 |
| 21 | 명승 | 한라산 백록담 | 서귀포시 토평동 산 15-1 | 2012 |
| 22 | 명승 | 한라산 선작지왓 | 서귀포시 영남동 산 1-0 | 2012 |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 연도 |
|----|-------|-----------------------------|------------------------------|----------|
| 23 | 명승 | 제주 방선문 | 제주시 거북새미길 48-26 (오등동) | 2013 |
| 24 | 천연기념물 |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 서귀포시 보목동 산1번지 삼도 | 1962 |
| 25 | 천연기념물 |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산85 | 1962 |
| 26 | 천연기념물 |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 서귀포시 서홍동 2565 | 1962 |
| 27 | 천연기념물 | 제주 김녕굴과 만장굴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 7-1 외 | 1962 |
| 28 | 천연기념물 |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번지 | 1964 |
| 29 | 천연기념물 |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 제주시 명림로 584 | 1964 |
| 30 | 천연기념물 | 제주 산천단 곰솔 군 | 제주시 516로 3041-24 (아라일동) | 1964 |
| 31 | 천연기념물 |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56번길 3 | 1964 |
| 32 | 천연기념물 |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 서귀포시 도순동 210번지 | 1964 |
| 33 | 천연기념물 |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8 (서홍동) | 1964 |
| 34 | 천연기념물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원 | 1966 |
| 35 | 천연기념물 | 제주의 한란 | 제주 제주시일원 | 1967 |
| 36 | 천연기념물 | 제주 서귀포층 패류 화석산지 | 서귀포시 서홍동 707 등 | 1968 |
| 37 | 천연기념물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 등 | 1971 |
| 38 | 천연기념물 |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6-1 등 | 1979 |
| 39 | 천연기념물 |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습새) 번식지 | 제주제주시추자면사수도일원 | 1982 |
| 40 | 천연기념물 |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 등 | 1984 |
| 41 | 천연기념물 | 제주의 제주마 | 제주시 용강동 | 1986 |
| 42 | 천연기념물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 1993 |
| 43 | 천연기념물 | 제주 남읍리 난대림 |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1457-1 | 1993 |
| 44 | 천연기념물 |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 1993 |
| 45 | 천연기념물 |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946번지 | 1993 |
| 46 | 천연기념물 | 제주 천제연 난대림 |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 1993 |
| 47 | 천연기념물 | 제주 천지연 난대림 | 서귀포시 서귀동 973번지 | 1993 |
| 48 | 천연기념물 | 제주 당처물동굴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 외 | 1996 |
| 49 | 천연기념물 |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등 | 2000 |
| 50 | 천연기념물 |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 | 서귀포시 서귀동 산4번지 및 법환동 산1-3번지 등 | 2000 |
| 51 | 천연기념물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4번지 등 | 2000 |
| 52 | 천연기념물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0 등 | 2000 |
| 53 | 천연기념물 |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59-3번지 등 | 2001 |
| 54 | 천연기념물 |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 | 서귀포시 상호동 1616번지 외 | 2002 |
| 55 | 천연기념물 |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215-5 | 2004 |
| 56 | 천연기념물 | 제주 비양도 호니토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산 128-2 | 2004 |
| 57 | 천연기념물 | 제주 수산리 곰솔 |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274번지 | 2004 |
| 58 | 천연기념물 |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지 2499-1 외 | 2004 |
| 59 | 천연기념물 |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 서귀포시 중문동 2663-1번지 등 | 2005 |
| 60 | 천연기념물 |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 102-1 등 | 2005 |
| 61 | 천연기념물 | 제주 사림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주변 해역 | 2005 |
| 62 | 천연기념물 | 제주 용천동굴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 외 | 2006 |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 연도 |
|-----|----------|---------------------|---------------------------|----------|
| 63 | 천연기념물 | 제주 수산동굴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8 등 | 2006 |
| 64 | 천연기념물 | 제주 선흘리 벵뒤굴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5 등 | 2008 |
| 65 | 천연기념물 |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1 등 | 2009 |
| 66 | 천연기념물 | 제주 물장오리 오름 | 제주시 봉개동 산78-38번지 등 | 2010 |
| 67 | 천연기념물 |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 제주시 도련6길 21, 외 (도련일동) | 2011 |
| 68 | 천연기념물 | 제주 사계리 용머리 화산쇄설층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216번길 24-32 | 2011 |
| 69 | 천연기념물 | 제주 강정동 담팔수 | 서귀포시 강정동 5647-0 (벚길이소당) | 2013 |
| 70 | 천연기념물 | 제주 흑우 | 제주시 신비마을길 13 | 2013 |
| 71 | 천연기념물 | 제주 흑돼지 | 제주시 | 2015 |
| 72 | 천연기념물 | 거문오름용암동굴계상류동굴군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덕천리910 외 | 2017 |
| 73 | 천연기념물 |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홍동 산1-1 일대 | 2025 |
| 74 | 국가무형유산 | 망건장 | 제주특별자치도 | 1980 |
| 75 | 국가무형유산 | 탕건장 | 제주특별자치도 | 1980 |
| 76 | 국가무형유산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 제주시 | 1980 |
| 77 | 국가무형유산 | 제주민요 | 서귀포시 | 1989 |
| 78 | 국가무형유산 | 제주큰굿 | 제주시 | 2021 |
| 79 | 국가민속문화유산 | 제주 잣동네 말방아 |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920-1 | 1975 |
| 80 | 국가민속문화유산 | 제주 당거리동네 말방아 | 제주시 애월읍 신영리 1009-1 | 1975 |
| 81 | 국가민속문화유산 |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34번길 32 | 1979 |
| 82 | 국가민속문화유산 | 제주 성읍마을 고평오 고택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34번길 5-3 | 1979 |
| 83 | 국가민속문화유산 | 제주 성읍마을 고창환 고택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서문로 4-7 | 1979 |
| 84 | 국가민속문화유산 | 제주 성읍마을 한봉일 고택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34번길 22-10 | 1979 |
| 85 | 국가민속문화유산 |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34번길 5-6 | 1979 |
| 86 | 국가민속문화유산 | 제주 성읍마을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1984 |
| 87 | 국가민속문화유산 |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 | 제주시 제주대화로 102 제주대학교박물관 | 2001 |
| 88 | 도 유형문화유산 | 제주향교 | 제주시 용담1동 298번지 | 1971 |
| 89 | 도 유형문화유산 | 연복정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 1971 |
| 90 | 도 유형문화유산 | 대정향교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26번지 | 1971 |
| 91 | 도 유형문화유산 | 정의향교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20번지 | 1971 |
| 92 | 도 유형문화유산 | 향사당 | 제주시 삼도1동 973-2번지 | 1975 |
| 93 | 도 유형문화유산 | 신촌향사 | 제주시 조천읍 신촌5길 27 | 1975 |
| 94 | 도 유형문화유산 | 추자처사각 | 제주시 추자면 영흥2길 21-14 | 1975 |
| 95 | 도 유형문화유산 | 옹방록 | 제주시 용담1동 298번지 | 1991 |
| 96 | 도 유형문화유산 | 연방록 | 제주시 용담1동 298번지 | 1991 |
| 97 | 도 유형문화유산 | 급제선생안 | 제주시 삼성로 22 (이도일동) | 1991 |
| 98 | 도 유형문화유산 | 탐라지도및지도병서 |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 1991 |
| 99 | 도 유형문화유산 | 제주삼읍도총지도 |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 | 1991 |
| 100 | 도 유형문화유산 | 홍화각기 | 제주시 삼성로 22 (이도일동) | 1991 |
| 101 | 도 유형문화유산 | 관음사목조관음보살좌상 | 제주시 산록북로 660, 관음사 (아라일동) | 1999 |
| 102 | 도 유형문화유산 | 존자암지세존사리탑 | 서귀포시 하원동 산1-1번지 | 2000 |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 연도 |
|-----|----------|----------------------|-----------------------------|----------|
| 103 | 도 유형문화유산 | 보림사목조관음보살좌상 | 제주시 사라봉동길 61, 보림사 (건입동) | 2002 |
| 104 | 도 유형문화유산 | 선덕사소장대자암판묘법연화경 권3~4. | 상효동 1156-6 | 2003 |
| 105 | 도 유형문화유산 | 선덕사소장화암사판묘법연화경 권4~7 | 서귀포시 하원동 산1 영원사 | 2003 |
| 106 | 도 유형문화유산 | 선덕사소장감인자복각묘법연화경 권1~2 | 상효동 1156-6 | 2003 |
| 107 | 도 유형문화유산 | 서산사소장목조보살좌상및복장일괄 | | 2004 |
| 108 | 도 유형문화유산 | 선광사소장목판본류등불경전적일괄 | | 2004 |
| 109 | 도 유형문화유산 | 남국선원소장목판본류불경전적 | | 2004 |
| 110 | 도 유형문화유산 | 정방사소장석조여래좌상및복장유물일괄 | 정방동 236 정방사 | 2005 |
| 111 | 도 유형문화유산 | 월계사 목조아미타불 좌상 | 한림읍 옹포리 4 | 2007 |
| 112 | 도 유형문화유산 |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 월평동 1198 | 2007 |
| 113 | 도 유형문화유산 | 용문사 목조석가 여래좌상 | 구좌읍 하도리 3142 | 2007 |
| 114 | 도 유형문화유산 | 장한철의 표해록 | | 2008 |
| 115 | 도 유형문화유산 | 효열록 | | 2009 |
| 116 | 도 유형문화유산 | 대정군 군병도안 | 교육박물관로 35(이도2동) | 2009 |
| 117 | 도 유형문화유산 | 보초등록 | 제주시 | 2009 |
| 118 | 도 유형문화유산 | 쌍계암 묘법연화경 | 서귀포시 하원동 1857 쌍계암 | 2012 |
| 119 | 도 유형문화유산 | 홍화각 현판 | 제주시 삼성로 22 (이도일동) | 2013 |
| 120 | 도 유형문화유산 | 굴수소조 | 제주시 남조로 2023(조천읍, 돌문화공원관리소) | 2013 |
| 121 | 도 유형문화유산 | 남환박물 |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 | 2017 |
| 122 | 도 유형문화유산 | 탐라장계초 | 제주시 삼성로 40 민속자연사박물관 | 2017 |
| 123 | 도 유형문화유산 |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 서귀포시 | 2017 |
| 124 | 도 유형문화유산 | 정의현 객사 전패 | 서귀포시 성읍서문로 14 정의향교 | 2020 |
| 125 | 도 유형문화유산 | 지장보살본원경 | 제주특별자치도 | 2022 |
| 126 | 도 유형문화유산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 제주특별자치도 | 2022 |
| 127 | 도 유형문화유산 | 정방사 소장 현수제승법수 | 서귀포시 동부로12번길 19 한국불교태고종 정방사 | 2024 |
| 128 | 도 무형유산 | 해녀노래 | 제주시 | 1971 |
| 129 | 도 무형유산 | 영감놀이 | 제주시 | 1971 |
| 130 | 도 무형유산 |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 서귀포시 | 1990 |
| 131 | 도 무형유산 | 송당리마을제 | 제주시 | 1986 |
| 132 | 도 무형유산 | 납읍리마을제 | 제주시 | 1986 |
| 133 | 도 무형유산 | 덕수리불미공예 | 서귀포시 | 1986 |
| 134 | 도 무형유산 | 정동벌립장 | 제주시 | 1986 |
| 135 | 도 무형유산 | 방앗돌굴리는노래 | 서귀포시 | 1986 |
| 136 | 도 무형유산 | 멀치후리는노래 | 제주시 | 1986 |
| 137 | 도 무형유산 | 고소리술 | 서귀포시 | 1995 |
| 138 | 도 무형유산 | 고분양태 | 제주시 | 2002 |
| 139 | 도 무형유산 | 제주도 옹기장 | 서귀포시 | 2001 |
| 140 | 도 무형유산 | 제주불교의식 | 제주시 | 2002 |
| 141 | 도 무형유산 | 제주농요 | 제주시 | 2002 |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 연도 |
|-----|--------|--------------------|--------------------------|----------|
| 142 | 도 무형유산 | 진사대소리 | 제주시 | 2005 |
| 143 | 도 무형유산 | 귀리곶보리농사일소리 | 제주시 | 2007 |
| 144 | 도 무형유산 | 성읍리초가장 | 서귀포시 | 2008 |
| 145 | 도 무형유산 | 제주시 청민요 | 제주시 | 2009 |
| 146 | 도 무형유산 | 삼달리어업요 | 서귀포시 | 2013 |
| 147 | 도 무형유산 | 제주도 영장소리(행상소리) | 제주특별자치도 | 2017 |
| 148 | 도 무형유산 | 제주도 영장소리(진토굿파는 소리) | 제주특별자치도 | 2017 |
| 149 | 도 무형유산 | 구덕장 | 서귀포시 | 2019 |
| 150 | 도 무형유산 | 제주테우문화 | 제주특별자치도 | 2022 |
| 151 | 도 무형유산 | 제주 호상웃 | | 2025 |
| 152 | 도 무형유산 | 제주 돌담 쌓기 | | 2025 |
| 153 | 도 기념물 | 오현단 | 제주시 이도1동 1421-3번지 | 1971 |
| 154 | 도 기념물 | 용담지석묘1호 | 제주시 용담2동 581번지 | 1971 |
| 155 | 도 기념물 | 용담지석묘2호 | 제주시 용담2동 588번지 | 1971 |
| 156 | 도 기념물 | 용담지석묘3호 |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 1971 |
| 157 | 도 기념물 | 용담지석묘4호 |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 1971 |
| 158 | 도 기념물 | 오라지석묘1호 | 제주시 오라이동 2191번지 | 1971 |
| 159 | 도 기념물 | 도련지석묘1호 | 제주시 도련동 526번지 | 1971 |
| 160 | 도 기념물 | 도련지석묘2호 | 제주시 도련2동 529번지 | 1971 |
| 161 | 도 기념물 | 삼양지석묘1호 | 제주시 삼양동 2252번지 | 1971 |
| 162 | 도 기념물 | 외도지석묘1호 | 제주시 외도1동 20-1번지 | 1990 |
| 163 | 도 기념물 | 외도지석묘2호 | 제주시 외도1동 20-3번지 | 1990 |
| 164 | 도 기념물 | 외도지석묘3호 | 제주시 외도1동 23번지 | 1971 |
| 165 | 도 기념물 | 외도지석묘4호 | 제주시 외도1동 28번지 | 1971 |
| 166 | 도 기념물 | 외도지석묘5호 | 제주시 외도1동 29번지 | 1990 |
| 167 | 도 기념물 | 광령지석묘 1호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09-1번지 | 1971 |
| 168 | 도 기념물 | 광령지석묘 2호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11-1번지 | 1971 |
| 169 | 도 기념물 | 광령지석묘 3호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64번지 | 1971 |
| 170 | 도 기념물 | 광령지석묘 4호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4번지 | 1971 |
| 171 | 도 기념물 | 광령지석묘 5호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7번지 | 1971 |
| 172 | 도 기념물 | 광령지석묘 6호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35번지 | 1971 |
| 173 | 도 기념물 | 하귀지석묘 1호 |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1312-29번지 | 1971 |
| 174 | 도 기념물 | 하귀지석묘 2호 |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1908-2번지 | 1971 |
| 175 | 도 기념물 | 창천지석묘 1호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966-1번지 | 1990 |
| 176 | 도 기념물 | 신례리지석묘1호 | 서귀포시 신례로119번길 23-7 (남원읍) | 2002 |
| 177 | 도 기념물 | 신례리지석묘2호 | 서귀포시 일주동로 7864 (남원읍) | 2002 |
| 178 | 도 기념물 | 상예동지석묘1호 | 상예동 1514 | 2003 |
| 179 | 도 기념물 | 상예동지석묘2호 | 상예동 1514 | 2003 |
| 180 | 도 기념물 | 상예동지석묘3호 | | 2003 |
| 181 | 도 기념물 | 상예동지석묘4호 | 상예동 1527 | 2003 |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 연도 |
|-----|-------|-----------|---------------------------|----------|
| 182 | 도 기념물 | 상예동지석묘5호 | 상예동 1193 | 2003 |
| 183 | 도 기념물 | 색달동지석묘1호 | 색달동 1741-1 | 2003 |
| 184 | 도 기념물 | 광령리지석묘7호 | 애월읍 광령리 1825-1 | 2004 |
| 185 | 도 기념물 | 광령리지석묘8호 | 애월읍 광령리 1824, 1824-1 | 2004 |
| 186 | 도 기념물 | 광령리지석묘9호 | 애월읍 광령리 1821 | 2004 |
| 187 | 도 기념물 | 광령리지석묘10호 | 애월읍 광령리 1665 | 2004 |
| 188 | 도 기념물 | 하모리지석묘 | 대정읍 하모리 1268-1 | 2004 |
| 189 | 도 기념물 | 동일리지석묘1호 | 대정읍 동일리 1619 외 | 2005 |
| 190 | 도 기념물 | 동일리지석묘2호 | 대정읍 동일리 1607 | 2005 |
| 191 | 도 기념물 | 동일리지석묘3호 | 대정읍 동일리 1619 | 2005 |
| 192 | 도 기념물 | 동일리지석묘4호 | 대정읍 동일리 1619 | 2005 |
| 193 | 도 기념물 | 일과리지석묘 | 대정읍 일과리 1021 | 2005 |
| 194 | 도 기념물 | 화순리 지석묘 | 안덕면 화순리 703-2번지 외 3필지 | 2011 |
| 195 | 도 기념물 | 제주성지 | 제주시 이도1동 1437-6번지 3필 | 1971 |
| 196 | 도 기념물 | 삼사석 | 제주시 화북동 1380번지 | 1971 |
| 197 | 도 기념물 | 명월대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 1981 |
| 198 | 도 기념물 | 절부암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 1981 |
| 199 | 도 기념물 | 최영장군사당 | 제주시 추자면 대서4길 3-13 (대서리) | 1981 |
| 200 | 도 기념물 | 대정성지 |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 1971 |
| 201 | 도 기념물 | 법화사지 | 서귀포시 하원동 1071번지 | 1971 |
| 202 | 도 기념물 | 훈인지 | 서귀포시 성산을 훈인지로 39-22 (온평리) | 1971 |
| 203 | 도 기념물 | 해신사 | 제주시 진북길 9-2 (화북일동) | 1974 |
| 204 | 도 기념물 | 말등포연대 | 서귀포시 성산을 온평리 1355-1번지 | 1973 |
| 205 | 도 기념물 | 협자연대 | 서귀포시 성산을 섭지코지로 261 (고성리) | 1973 |
| 206 | 도 기념물 | 천미연대 | 서귀포시 성산을 신천리 267번지 | 1976 |
| 207 | 도 기념물 | 소마로연대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332-6번지 | 1976 |
| 208 | 도 기념물 | 조천연대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980번지 | 1976 |
| 209 | 도 기념물 | 우지연대 |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3977번지 | 1976 |
| 210 | 도 기념물 | 남두연대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780-1번지 | 1976 |
| 211 | 도 기념물 | 수근연대 | 제주시 용담삼동 1159-6 | 1996 |
| 212 | 도 기념물 | 별도연대 | 제주시 화북2동 1537번지 | 1996 |
| 213 | 도 기념물 | 연동연대 | 서귀포시 서호동 73번지 | 1996 |
| 214 | 도 기념물 | 당포연대 | 서귀포시 하예동 1729번지 | 1996 |
| 215 | 도 기념물 | 대포연대 | 서귀포시 대포동 2506번지 | 1996 |
| 216 | 도 기념물 | 왜포(고포)연대 |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84번지 | 1996 |
| 217 | 도 기념물 | 함덕연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152-1번지 | 1996 |
| 218 | 도 기념물 | 좌가연대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83-1번지 | 1996 |
| 219 | 도 기념물 | 종달연대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51-2번지 | 1996 |
| 220 | 도 기념물 | 애월연대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975번지 | 1996 |
| 221 | 도 기념물 | 귀덕연대 |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4-5 (귀덕리) | 1996 |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 연도 |
|-----|-------|--------------|---------------------------------|----------|
| 222 | 도 기념물 | 배령연대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649번지 | 1996 |
| 223 | 도 기념물 | 두모연대 |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605번지 | 1996 |
| 224 | 도 기념물 | 산방연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33-2번지 | 1996 |
| 225 | 도 기념물 | 서림연대 |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대수로27번길 53-1, 선 공유수면 | 1996 |
| 226 | 도 기념물 | 오소포연대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2번지 | 1996 |
| 227 | 도 기념물 | 별방진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 1974 |
| 228 | 도 기념물 | 명월성지 |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 1976 |
| 229 | 도 기념물 | 화북비석거리 | 제주시 화북동 3957번지 | 1976 |
| 230 | 도 기념물 | 조천비석거리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 1976 |
| 231 | 도 기념물 | 문경공고조기묘 | 제주시 아라동 2464번지 | 1977 |
| 232 | 도 기념물 | 용담동선사무덤유적 | 제주시 용담2동 741번지 | 1990 |
| 233 | 도 기념물 | 곽지패총 |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2043-1번지 외 5필지 | 1990 |
| 234 | 도 기념물 | 북촌리선사주거지유적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75번지 | 1990 |
| 235 | 도 기념물 | 존자암지 | 서귀포시 하원동 산1-1번지 | 1995 |
| 236 | 도 기념물 | 근을동환해장성 | 제주시 화북1동 4373번지 외 4필지 선 | 1998 |
| 237 | 도 기념물 | 별도환해장성 | 제주시 화북1동 1533-4번지 외 11필지 선 | 1998 |
| 238 | 도 기념물 | 삼양환해장성 | 제주시 삼양3동 2622-1번지 외 8필지 선 | 1998 |
| 239 | 도 기념물 | 애월환해장성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957-1번지 외 8필지 선 | 1998 |
| 240 | 도 기념물 | 북촌환해장성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93-3번지 외 1필지 선 | 1998 |
| 241 | 도 기념물 | 동북환해장성 |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687-5번지 외 2필지 선 | 1998 |
| 242 | 도 기념물 | 행원환해장성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2번지 외 | 1998 |
| 243 | 도 기념물 | 한동환해장성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90번지 외 4필지 선 | 1998 |
| 244 | 도 기념물 | 온평환해장성 | 서귀포시 성산읍 환해장성로 732, 외 6필지 선 | 1998 |
| 245 | 도 기념물 | 신산환해장성 |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49-5선 | 1998 |
| 246 | 도 기념물 | 하원동탐라왕자묘 | 서귀포시 하원동 21번지 | 2000 |
| 247 | 도 기념물 | 서귀진지 | 서귀포시 서귀동 717-1번지 | 2000 |
| 248 | 도 기념물 | 화북진지 | 제주시 화북1동 5761번지 등 | 2001 |
| 249 | 도 기념물 | 구역리노랑굴 |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721번지 | 2002 |
| 250 | 도 기념물 | 구역리검은굴 | 서귀포시 대정읍 신화역사로 11 (구역리) | 2002 |
| 251 | 도 기념물 | 신평리도요지 | 대정읍 신평리 59-1 | 2005 |
| 252 | 도 기념물 | 신도리도요지 | 대정읍 신도리 3138 | 2005 |
| 253 | 도 기념물 | 김녕리묘산봉광산김씨방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724번지 외 | 2003 |
| 254 | 도 기념물 | 가시리설오름청주한씨방묘 |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5184-6 (가시리) | 2003 |
| 255 | 도 기념물 | 유수암리산새미오름방묘 | 애월읍 유수암리 고성리 산124번지 | 2005 |
| 256 | 도 기념물 | 거로 능동산방묘 | 제주시 화북1동 3401 | 2008 |
| 257 | 도 기념물 | 무오법정사향일운동발상지 | 서귀포시 1100로 740-168, 외 (도순동) | 2003 |
| 258 | 도 기념물 | 수산진성 | 성산읍 수산리 580번지외 | 2005 |
| 259 | 도 기념물 | 김만덕묘비 | 건입동 397-4번지 사라봉 모충사 | 2007 |
| 260 | 도 기념물 | 의귀리 김만일묘역 | 남원읍 의귀리 1773번지 | 2009 |
| 261 | 도 기념물 | 섬사석비 | 이도1동 1313번지 | 2011 |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 연도 |
|-----|----------|--------|-----------------------------|----------|
| 262 | 도 기념물 | 한라산신제단 | 아라동 375-4번지 | 2011 |
| 263 | 도 기념물 | 조천진성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 | 2015 |
| 264 | 도 민속문화유산 | 동자복 | 제주시 만덕로 13-5 (건입동) | 1971 |
| 265 | 도 민속문화유산 | 서자복 | 제주시 용담1동 385번지 | 1971 |
| 266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이도2동 983-1 관덕정내 | 1971 |
| 267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일도2동 923번지 자연사박물관 정문 앞 | 1971 |
| 268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 1971 |
| 269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제주시 이도1동 996-1 | 1971 |
| 270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이도2동 983-1 | 1971 |
| 271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이도2동 983-1 | 1971 |
| 272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이도1동 1282-1번지외 (삼성혈 건시문전) | 1971 |
| 273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이도1동 삼성혈 입구 | 1971 |
| 274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 1971 |
| 275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이도1동 삼성혈 건시문전 | 1971 |
| 276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아라1동 제주대학교박물관 입구 | 1971 |
| 277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아라동 제주대학교박물관 입구 | 1971 |
| 278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아라동 제주대학교박물관 입구 | 1971 |
| 279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아라동 제주대학교박물관 입구 | 1971 |
| 280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이도2동 1176-1번지 제주시청 | 1971 |
| 281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이도1동 1176-1번지 제주시청 | 1971 |
| 282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제주시 북지로1길 8(도남동, KBS정문) | 1971 |
| 283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제주시 북지로1길 8(도남동, KBS정문) | 1971 |
| 284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용담2동 | 1971 |
| 285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용담2동 공항입구 | 1971 |
| 286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제주시 남조로 2023(조천읍, 돌문화공원관리소) | 1971 |
| 287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표선면 성읍리 동문 : 북우 | 1971 |
| 288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표선면 성읍리 동문 : 북좌 | 1971 |
| 289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동문 : 남우 | 1971 |
| 290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표선면 성읍리 동문 : 남좌 | 1971 |
| 291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표선면 성읍리 서문 : 북우 | 1971 |
| 292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표선면 성읍리 서문 : 북좌 | 1971 |
| 293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표선면 성읍리 서문 : 남우 | 1971 |
| 294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표선면 성읍리 서문 : 남좌 | 1971 |
| 295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표선면 성읍리 남문 : 동우 | 1971 |
| 296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표선면 성읍리 남문 : 동좌 | 1971 |
| 297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표선면 성읍리 남문 : 서우 | 1971 |
| 298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표선면 성읍리 남문 : 서좌 | 1971 |
| 299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대정읍 보성리 신편간 도로변 | 1971 |
| 300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대정읍 보성리사무소 입구 : 남 | 1971 |
| 301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대정읍 보성리 리사무소 입구 : 북 | 1971 |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 연도 |
|-----|----------|--------------|---------------------------------------|----------|
| 302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대정읍 보성리 서문 웅성내 | 1971 |
| 303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대정읍 보성리 보성초등학교 운동장 입구 | 1971 |
| 304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대정읍 보성리 보성초등학교 입구 : 북 | 1971 |
| 305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대정읍 보성리 보성초등학교 입구 : 남 | 1971 |
| 306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대정읍 인성리 남문 : 동 | 1971 |
| 307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대정읍 보성리 남문 : 서 | 1971 |
| 308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대정읍 안성리 추사관입구 : 동 | 1971 |
| 309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대정읍 안성리 추사관 입구 : 서 | 1971 |
| 310 | 도 민속문화유산 | 돌하르방 | 대정읍 인성리 동문웅성내 | 1971 |
| 311 | 도 민속문화유산 | 삼양동초가 | 제주시 삼양2동 2063번지 | 1978 |
| 312 | 도 민속문화유산 | 문형행가옥 | 제주시 애월읍 하가로 141-23 (하가리) | 1978 |
| 313 | 도 민속문화유산 | 오광준가옥 | 제주시 애월읍 하가로1길 11-4 (하가리) | 1978 |
| 314 | 도 민속문화유산 | 조군현가옥 | 제주시 조천읍 신촌북1길 17-1 (신촌리) | 1978 |
| 315 | 도 민속문화유산 | 양금석가옥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1313번지 | 1978 |
| 316 | 도 민속문화유산 | 송종선가옥 |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로 149-6 (하천리) | 1978 |
| 317 | 도 민속문화유산 | 김석윤가옥 | 제주시 진남로 44 (화북일동) | 1978 |
| 318 | 도 민속문화유산 | 조천리 황씨 종손 가옥 | 제주시 조천읍 조천9길 7 (조천리) | 1978 |
| 319 | 도 민속문화유산 | 조군현가옥 | 제주시 조천읍 신촌북1길 17-1 (신촌리) | 1978 |
| 320 | 도 민속문화유산 | 남방아 | 제주시 구릉동산길 13 (영평동) | 1991 |
| 321 | 도 민속문화유산 | 제구 |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 | 1991 |
| 322 | 도 민속문화유산 | 몰래물마을방사탑1호 | 제주시 도두2동 692-1번지 694경계 일원 | 1995 |
| 323 | 도 민속문화유산 | 몰래물마을방사탑2호 | 제주시 도두2동 692-1번지 694경계 일원 | 1995 |
| 324 | 도 민속문화유산 | 골앗마을방사탑1호 | 제주시 이호2동 1519-1번지 1521-2,1513-1경계 일원 | 1995 |
| 325 | 도 민속문화유산 | 골앗마을방사탑2호 | 제주시 오광로 8, 1521-2,1521-1경계 일원 | 1995 |
| 326 | 도 민속문화유산 | 골앗마을방사탑3호 | 제주시 오광로 8, 1529-2,1521-1,1528경계 | 1995 |
| 327 | 도 민속문화유산 | 골앗마을방사탑4호 | 제주시 이호2동 1544,1528,1545경계 일원 | 1995 |
| 328 | 도 민속문화유산 | 골앗마을방사탑5호 | 제주시 이호2동 1414-2번지,1411-1경계 일원 | 1995 |
| 329 | 도 민속문화유산 | 용수마을방사탑1호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238번지 공유수면 | 1995 |
| 330 | 도 민속문화유산 | 용수마을방사탑2호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288-1번지 공유수면 | 1995 |
| 331 | 도 민속문화유산 | 신흥리방사탑1호 | 제주시 조천읍 신흥로1길 24-14, 공유수면 | 1995 |
| 332 | 도 민속문화유산 | 신흥리방사탑2호 | 제주시 조천읍 신흥로1길 40, 공유수면(불덕) | 1995 |
| 333 | 도 민속문화유산 | 무릉리방사탑1호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3094,3094-1,4097경계 | 1995 |
| 334 | 도 민속문화유산 | 무릉리방사탑2호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3099-3번지 ,3100-3경계 | 1995 |
| 335 | 도 민속문화유산 | 무릉리방사탑3호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3126-2번지 ,3126-5,4097경계 | 1995 |
| 336 | 도 민속문화유산 | 무릉리방사탑4호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3126-1번지 | 1995 |
| 337 | 도 민속문화유산 | 인성리방사탑1호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497,493경계 | 1995 |
| 338 | 도 민속문화유산 | 인성리방사탑2호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490-1번지 ,490-2,495-1경계 | 1995 |
| 339 | 도 민속문화유산 | 송당보향당 | 구좌읍 송당리 산199-1 | 2005 |
| 340 | 도 민속문화유산 | 새미하로산당 | 제주시 회천동 1058 | 2005 |
| 341 | 도 민속문화유산 | 와흘보향당 | 와흘리 1273번지와 5필지 | 2005 |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 연도 |
|-----|----------|-------------------|-------------------------------|----------|
| 342 | 도 민속문화유산 | 수산보향당 | 성산읍 수산리 451 | 2005 |
| 343 | 도 민속문화유산 | 월평다리굿당 | 제주시 월평동 1137 | 2005 |
| 344 | 도 민속문화유산 | 제주 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 제주시 | 2008 |
| 345 | 도 민속문화유산 | 하가리 문귀인 가옥 | 제주시 하가로1길 2-5 (애월읍) | 2012 |
| 346 | 도 등록문화유산 | 제주 등명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원 | 2021 |
| 347 | 도 등록문화유산 | 고산리 등명대 | 제주시 | 2021 |
| 348 | 도 등록문화유산 | 김녕리 등명대 | 제주시 | 2021 |
| 349 | 도 등록문화유산 | 대포동 등명대 | 서귀포시 | 2021 |
| 350 | 도 등록문화유산 | 보목동 등명대 | 서귀포시 | 2021 |
| 351 | 도 등록문화유산 | 북촌리 등명대 | 제주시 | 2021 |
| 352 | 도 등록문화유산 | 영일동 등명대 | 제주시 | 2021 |
| 353 | 도 등록문화유산 | 제주 관음사 후불도 | 제주시 | 2021 |
| 354 | 도 등록문화유산 | 제주 금봉사 오백나한도 | 제주시 | 2021 |
| 355 | 도 등록문화유산 | 옛 한림성당 종탑 | 제주시 | 2022 |
| 356 | 도 등록문화유산 | 정방사 소장 조선글화엄경 | 서귀포시 동부로12번길 19 (한국불교태고종 정방사) | 2024 |
| 357 | 도 등록문화유산 | 정방사 소장 각설법망경 | 서귀포시 동부로12번길 19 (서귀동) | 2024 |
| 358 | 도 문화유산자료 | 이조여래좌상 | 제주시 오라이동 652-2번지 (월정사) | 2000 |
| 359 | 도 문화유산자료 | 월정사 소장 불상(목조보살입상) | 제주시 오라이동 652-2번지 (월정사내) | 2000 |
| 360 | 도 문화유산자료 | 제주속오군적부 |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제주시청) | 2002 |
| 361 | 도 문화유산자료 | 월영사소장목조여래좌상 | 제주시 하귀동남2길 40-16 (애월읍) | 2004 |
| 362 | 도 문화유산자료 | 보덕사소장목조여래좌상 | 제주시 독짓골8길 26 (도남동) | 2004 |
| 363 | 도 문화유산자료 | 선덕사대적광전 | 서귀포시 516로771번길 64 (상효동) | 2005 |
| 364 | 도 문화유산자료 |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 제주시 원두길 34 (화북일동) | 2008 |
| 365 | 도 문화유산자료 |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 제주시 구물동길 65 (애월읍, 선운정사) | 2011 |
| 366 | 도 문화유산자료 | 목장신정절목 | 제주시 남조로 2023 (조천읍, 돌문화공원관리소) | 2013 |
| 367 | 도 문화유산자료 | 안민고절목 | 제주시 남조로 2023 (조천읍, 돌문화공원관리소) | 2013 |
| 368 | 도 자연유산 | 금덕무환자나무및맹나무군락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920번지 | 1973 |
| 369 | 도 자연유산 | 동백동산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2번지 | 1971 |
| 370 | 도 자연유산 | 천제연담팔수나무 | 서귀포시 색달로189번길 27 (색달동) | 1971 |
| 371 | 도 자연유산 | 선흘리백서향및변산일엽군락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6번지 | 1973 |
| 372 | 도 자연유산 | 명월팽나무군락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846 하천변 | 1973 |
| 373 | 도 자연유산 | 영평조록나무 | 제주시 사송길 93-10 (영평동) | 1973 |
| 374 | 도 자연유산 | 조록나무뿌리 형상물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19 돌문화공원 | 1973 |
| 375 | 도 자연유산 | 광령굴나무 |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1165번지 | 1973 |
| 376 | 도 자연유산 | 신흥동백나무군락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59번지-1 | 1973 |
| 377 | 도 자연유산 | 무환자나무 |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 1976 |
| 378 | 도 자연유산 | 녹나무 | 제주시 중앙로14길 21 (삼도이동) | 1976 |
| 379 | 도 자연유산 | 위미동백나무군락 | 서귀포시 위미중앙로300번길 23-7 (남원읍) | 1982 |
| 380 | 도 자연유산 | 식산봉의황근자생지및상록활엽수림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13번지 외 12필지 | 1995 |
| 381 | 도 자연유산 | 비양도의비양나무자생지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산89번지 외 8필 | 1995 |

| 연번 | 종목 | 명칭 | 소재지 | 지정 연도 |
|-----|----------|---------------------------|---|----------|
| 382 | 도 자연유산 | 관음사의왕벚나무자생지 | 제주시 아라동 산66번지 관음사 | 1999 |
| 383 | 도 자연유산 | 북촌동굴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94번지 | 1999 |
| 384 | 도 자연유산 | 용연·용두암 | 제주시 용담1동 2581-4번지 등 | 2001 |
| 385 | 국가등록문화유산 | 남제주 강병대학교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43-3 (상모리) | 2002 |
| 386 | 국가등록문화유산 |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489, 1530, 1542, 1945 | 2002 |
| 387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이승만별장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56번지 | 2004 |
| 388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구 제주도청사 | 제주시 이도2동 1176-1번지 | 2005 |
| 389 | 국가등록문화유산 |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천제연폭포 구역내 | 2005 |
| 390 | 국가등록문화유산 | 남제주 구 대정면사무소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7 (상모리) | 2005 |
| 391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사라봉 일제 동굴진지 | 제주시 사라봉동길 74 (건입동) | 2006 |
| 392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어송생악 일제 동굴진지 | 제주시 해안동 산 220-12 외 | 2006 |
| 393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71번지 , 798-2 | 2006 |
| 394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86, 2664-2, 2664-3, 2664-5 | 2006 |
| 395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16번지 외 11필지 | 2006 |
| 396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일출봉 해안 일제 동굴진지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79번지 지선 공유수면 | 2006 |
| 397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70, 1820-1 | 2006 |
| 398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94-2번지 및 지선 공유수면 | 2006 |
| 399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모슬봉 일제 군사시설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415, 3415-1, 3417, 3428-1, 3430-1, 3430-2 | 2006 |
| 400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이교동 일제 군사시설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260, 3262-1, 3263-1, 3259-1, 3259-2, 4165 | 2006 |
| 401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10번지 외 12필지 | 2006 |
| 402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86-1번지 외 34필지 | 2006 |
| 403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와 정문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370번지 외 | 2008 |
| 404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306번지 외 | 2008 |
| 405 | 국가등록문화유산 | 미카형 증기기관차 304호 | 제주시 연동 270-5 삼무공원 | 2008 |
| 406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정광사 소조미륵여래입상 | 제주시 | 2014 |
| 407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육군 98병원) | 서귀포시 대안로88번길 82-22 (대정읍) | 2017 |
| 408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4·3 수악주둔소 | 서귀포시 | 2018 |
| 409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악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757 (토평동) | 2020 |
| 410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주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 | | 2021 |

III. 제주 역사 분야 신규 사업 제안

- 이 장은 제주 역사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안된 제주 역사 관련 신규 사업을 취합하여,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과제들을 주제별 과제군으로 재구성한 것임
- 각 연구 사업은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다섯 영역으로 재구성·제시함
 - 제주 역사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 제주 유·무형 유산 발굴
 - 제주 역사 서적 편찬
 - 제주 역사 교육 및 홍보
 - 제주 역사 국내외 교류
- 정리된 과제군은 전문가 면담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집약한 결과물로, 개별 아이디어를 넘어 중장기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전략적 신규 사업으로 제시함
- 향후 제주 역사 정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재정 투자 방향 설정, 신규 사업 공모 등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제공함

〈표 12〉 제주 역사 분야 신규 사업 전문가 제안 목록

| 구분 | 사업 내용 |
|------------------|---|
|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 <input type="checkbox"/> 제주 마을회관 자료 전수 조사 및 DB화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호적중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input type="checkbox"/> 일제강점기 제주도내 신사(神社·神祠)의 성격 규명과 활용 방안 |
| | <input type="checkbox"/> 일본 20세기 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제주 자료 수집 |
| | <input type="checkbox"/> 제주의 건축도구 아카이빙 사업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출향조(出鄕祖) 조사 연구 |
| | <input type="checkbox"/> 제주의 옛길 조사 연구 및 활용 |
| | <input type="checkbox"/> 제주의 근현대 제주학연구(學者) |
| | <input type="checkbox"/> 제주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 자료 집성과 활용 |

| 구분 | 사업 내용 |
|---------------|--|
| | <input type="checkbox"/> 제주형 비지정문화유산 중요도 측정을 위한 분류 지표 체계 구축 및 활용 |
| 유·무형 유산 발굴 | <input type="checkbox"/> 제주 3성 9진 실측 및 기록 정비 사업 |
| | <input type="checkbox"/> 조선시대 봉수와 연대 원형 조사와 활용 |
| | <input type="checkbox"/> 탐라의 해양 교류(유물) 출토지 조사 및 연구 |
| | <input type="checkbox"/> 고려와 원(몽고) 간섭기의 제주유산 찾기 |
| | <input type="checkbox"/> 탐라 역사 관련 신화·전설 조사 |
| | <input type="checkbox"/> 동자복 서자복 활용 사업 |
| | <input type="checkbox"/> 제주인의 정체성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돌문화 경관의 보존 및 활용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전통정원 발굴 및 보존·관리·활용 |
| 서적 편찬 | <input type="checkbox"/> 제주 역사 대사전 발간 |
| | <input type="checkbox"/> 탐라·제주사 학술 총서 발간 |
| | <input type="checkbox"/> 제주의 고고학 서적 발간 |
| | <input type="checkbox"/> 제주도 항일운동 인물 사전 발간 |
| 교육 및 홍보 |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 제주사 교실 특강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땅이 품고 있는 역사 이야기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구술사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유배 문화 재조명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역사 유산 100선 출간 홍보 |
| 국내외 교류 | <input type="checkbox"/> 탐라·일본 대외 교류사 현지 교류 조사 |
| | <input type="checkbox"/> 제주 표류민 귀환 과정과 동아시아 대외관계 연구 |

1. 제주 역사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 제주 역사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관련 신규 사업 제안은 전근대~근현대 산재 자료의 기초 자료 확보 및 영구 보존(DB·아카이빙)이 공통 목표로 제시됨
 - 제주 마을 기록, 근현대 일본 관련 자료, 고고학 발굴 유물, 비지정 문화유산, 제주학자 업적, 제주 출향조 등 제주 역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가 제안됨

- 문헌·현장·구술 조사를 병행하고 디지털화(목록화·DB 구축)를 핵심 방법으로 삼아, 기초 연구 기반 마련과 멸실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임
- 수집·정리된 자료는 향후 전시, 교육, 콘텐츠 제작 등으로 연계하여 도민 접근성을 높이고, 제주학 연구의 공용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임

〈표 13〉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관련 신규 사업 제안 목록

| 순서 | 사업 내용 |
|----|--|
| 1 | <input type="checkbox"/> 제주 마을회관 자료 전수 조사 및 DB화 - 시·읍·면 단위로 관내 모든 마을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자료 현황 조사 |
| 2 | <input type="checkbox"/> 제주 호적중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각 마을별로 조사된 호적 자료를 탈초하여 데이터베이스화 |
| 3 | <input type="checkbox"/> 일제강점기 제주도내 신사(神社·神祠)의 성격 규명과 활용 방안 - 신사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고, 일제 잔재 유적의 다크투어리즘 활용 방안 제시 |
| 4 | <input type="checkbox"/> 일본 20세기 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제주 자료 수집 - NPO 법인 인텔리전스연구소 구축 자료 중 미공개 제주 자료 조사 |
| 5 | <input type="checkbox"/> 제주의 건축도구 아카이빙 사업 - 1950~60년대 제주의 일상적 건축도구, 재봉틀 등 생활 유물 수집·기록 |
| 6 | <input type="checkbox"/> 제주 출향조(出鄕祖) 조사 연구 - 전라도권 제주 출신 집성촌 조사, 발간 |
| 7 | <input type="checkbox"/> 제주의 옛길 조사 연구 및 활용 - 문헌을 통해 마을간 대로·중로·소로 정리 및 마을간 도로망 체계 파악 |
| 8 | <input type="checkbox"/> 제주의 근현대 제주학연구(學者) - 작고한 선현들의 제주학 관련 자료 목록 정리, 아카이빙 |
| 9 | <input type="checkbox"/> 제주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 자료 집성과 활용 - 제주지역 고고학 발굴조사 보고서 목록화 작업 |
| 10 | <input type="checkbox"/> 제주형 비지정문화유산 중요도 측정을 위한 분류 지표 체계 구축 및 활용 - 비지정문화유산 관리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류 지표 체계 구축 |

1-1 제주 마을회관 자료 전수 조사 및 DB화

1-1-1 사업 필요성

- 제주도 마을은 호적 자료, 동계(洞契) 관련 자료, 재일 제주인 등 마을 발전을 위해

기부한 이들을 기록한 자료, 새마을 운동 관련 자료 등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사업 관련 자료들을 생성하고 보관하고 있음

- 제주인의 생활에서 마을의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 역사, 제주인의 정체성을 고찰하는 데 마을 소장 자료는 매우 중요함
- 지금까지 마을 자료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별 마을의 자료가 간헐적으로 소개되는 데 그치고 있음
- 제주도청의 행정적, 경제적 지원 하에 제주도 모든 마을의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아울러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반드시 요구됨

1-1-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마을별 자료 소장 상황 자체가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시·읍·면 단위로 관내 모든 마을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자료 현황을 파악함
 - 자료 현황을 파악하면서 소장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목록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함
- 향후 마을 소장 자료가 분실, 소실 등으로 사라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스캔해서 DB로 구축하여 보관함
- 조사된 마을 자료 목록 및 DB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 다만 수집된 마을 자료의 공개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함
 - 개인 정보, 마을 주민 간 갈등 등 공개하기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1-1-3 기대효과

- 제주인의 가장 중요한 생활 터전인 마을에서 생산한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자료로 구축함으로써 향후 제주사를 연구하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제주인이 직접 생산한 자료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1-2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1-2-1 사업 필요성

- 2019~2020년,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으로 총 15개 마을의 호적중초 목록화 조사를 완료함
- 각 마을별로 조사된 호적 자료를 탈초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향후 자료의 열실 및 분실에 대비하고 제주 역사 자료로 제공·활용할 필요가 있음

1-2-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대상 자료: 18세기 중반 이후 ~ 20세기 전반 제주도내 마을별 소장 호적 자료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서지사항 입력(발간 연도/크기/면수/보존 상태/관인 여부/관계자 기재 등)
 - 식년별 호구 정보 입력(호구별 개인 인적 사항/사조 정보/남녀 인구수 등)
- 보고서 제작
 - 마을별 호적중초의 기초 정보를 정리한 해제 정리
 - 아카이브 연계 등 공유 및 활용 방안 등 제시

1-2-3 기대효과

- 호적중초는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자료로, 조선시대 제주 마을 인구 및 주민 생활사 등을 파악하는 데 최적의 기록 자원임
- 전근대 제주지역 인적 정보 자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의 기초자료로 접근·활용될 수 있음

1-3 일제강점기 제주도내 신사(神社·神祠)의 성격 규명과 활용방안

1-3-1 사업 필요성

- 일제는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황국신민화를 이루기 위해 조선 총독부에서는 1915년 8월 16일자 총독부령 제82호로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을 공포하고 조선 내에 신사를 본격적으로 건립하기 시작했음

- 1936년 공포된 「개정신사규칙」에서는 ‘1면 1신사주의’를 내세워 산간벽지까지 신사를 세우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음
- 당시 제주도는 1읍 12면이었고 읍·면 전부에 신사가 세워졌는데, 그중 구좌면에는 동김녕리와 세화리 등 2개의 신사가 세워져 14개의 신사가 건립되었음
- 제주도 신사 관련 자료가 거의 없고 또 점차 개발로 신사 건립 장소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당시 일본인이나 마을 사람들이 신사참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80대 이상의 마을 원로들의 구술 채록과 약간의 흔적이라도 남아 있는 신사 터에 대한 실증적 기록 작업이 절실히 필요함

1-3-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문헌조사: 신사 관련 조선총독부 자료(일본어), 신문 자료(한국어·일본어), 한국어 및 일본어 논문, 사진 자료 수집
- 현장조사: 문헌자료 등의 기초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실증적 현장 조사 실시하여 신사 현장 실태 파악 실시
- 구술조사: 지역향토사 연구자 및 마을 원로 등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제주도내의 신사 관련 정보 수집 정리 분석
- 국내 신사 사례 조사: 신사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고, 일제잔재 유적의 다크투어리즘 활용 방안 제시
- 1차년 자료 수집을 위한 일본 방문, 2차년 국내 사례 조사 및 일제 신사 관련 심포지엄 개최, 3차년 최종 보고서 발간 등 연차 계획 수립

1-3-3 기대효과

- 제주도내의 신사 관련 연구는 일제잔재 유적의 현황과 실태를 목록화하고, 일제잔재 유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제안이 가능함
- 제주도내의 신사를 일제잔재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는 연구가 될 것이며, 향후 일제잔재 청산활동 연구를 하는데 이론적 토대와 방향 제시 마련 등 학문적으로 크게 기여함
- 제주도내의 신사 터 발굴을 통해 제주도 일대의 유적, 문화재, 근대 건축물 등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활용이 가능함

1-4 일본 20세기 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제주 자료 수집

1-4-1 사업 필요성

- NPO 법인 인텔리전스연구소는 200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총사령군 점령기의 프란계문고를 비롯하여 2004년 도서관의 모든 저널, 2006년부터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20세기 미디어정보 데이터베이스’하여 공개하고 있음
- 명치 시대부터 평성 시대까지의 자료로서 일제강점기 제주 관련 기사와 재일제주인 관련 기사 등을 수집 가능할 것임
- 아직까지 제주도에 공개되지 않은 제주 관련 자료들이 다수 있어 귀중하고 유익하게 활용 가능하므로 조사가 필요함

1-4-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1차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주 관련 기사 수집
- 2차적으로 일본 방문하여 기사 수집 및 복사
- 수집한 자료 번역 및 내용별 혹은 시대별로 분류
 - 1차년도에 일본에서 자료 수집을 통해 조사 대상의 건수를 파악한 후 구체적 연차별 계획을 세울 수 있음

1-4-3 기대효과

- 제주학 연구와 제주학의 대중화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함
- 일본 내 재일조선인 신문 등 제주 관련 기사 전수 조사를 통해 해방 전·후 일본에서의 제주인의 생활과 사회상을 파악함으로써 제주 근현대사를 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1-5 제주의 건축도구 아카이빙

1-5-1 사업 필요성

- 1950~1960년대 제주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건축도구, 재봉틀 등 생활유물들이 급격한 세대교체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어, 이들의 체계적인 수집·기록과 장기적인 보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유물 단순 수집을 넘어 도민들의 구술 인터뷰, 현장 관찰, 사진 및 영상 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당시 생활사와 기술, 문화적 맥락을 복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자료 확보는 제주 지역 고유의 산업·생활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 정체성 강화와 역사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함

1-5-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박물관, 공방, 개인 소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도구 및 생활유물 목록을 작성하고, 각종 도구의 형태, 용도, 사용 상태를 상세히 기록·사진 촬영함
- 유물과 관련된 도민들의 구술 기록을 병행 채록하여 유물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다층적으로 기록함
- 아카이빙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자료 및 인터뷰 내용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자료로도 보존·배포함

1-5-3 기대효과

- 제주의 과거 생활문화와 기술 변천사를 생생하게 시각화하여, 일반 대중과 연구자 모두에게 유익한 전시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 자산이 확보됨
- 제주 지역사 연구 및 문화유산 보존 학술 분야의 기초 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역사교육 콘텐츠의 깊이와 다양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음

1-6 제주 출향조(出鄕祖) 조사 연구(전라도권 제주 출신 집성촌 조사)

1-6-1 사업 필요성

- 제주 출향조의 전라도권 집성촌 분포 및 형성 과정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미비하여, 제주인의 지역적 이동과 사회적 네트워크 이해에 한계가 존재함
- 제주 지역사와 더불어 전라도권 내 제주 출신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밝히는 기초 자료 마련이 시급함

1-6-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전라도권 대상 집성촌 현장 방문, 주민 인터뷰 및 구술조사를 병행하여 역사 자료 확보함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술 보고서를 제작하고, 지역문화 교육 자료로 제작함

1-6-3 기대효과

- 제주 출향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내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사적 연결망을 복원함
- 지역사회 정체성 강화 및 제주 출향조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함

1-7 제주의 옛길 조사연구 및 활용

1-7-1 사업 필요성

- 조선시대 마을간의 옛길, 소로, 중로, 대로로 연결된 도로 구성, 목장과 목장을 연결하는 옛길,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과 군사도로에 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함
- 제주도내 기존 도로의 확장, 일제강점기 수탈용 도로(하치마키) 건설 등 근대식 도로 체계 이해가 필요함
- 현대 제주 마을 분포와 과거 도로망을 통해 기존마을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마을의 변화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1-7-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조선시대 고지도·읍지류 등 문헌을 통해 마을간 대로·중로·소로를 정리하고, 군사 도로·목장 도로 등을 분석하여 마을간 도로망 체계를 파악함
- 1919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도(1/2.5만, 11도엽)상 1등 도로, 달로, 연로, 간로, 소로 표기 자료와 현대 지도를 비교 연구해서, 조선시대~현대 도로의 변화상을 파악함
- 주요 마을을 대상으로 한질(대로)과 거미줄 같은 올레길이 펼쳐진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의 상이성과 상사성을 연구 조사함

1-7-3 기대효과

- 제주 마을 공간, 공동체의 이동 동선 등 옛길의 역사를 간취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살피볼 기회가 마련됨
- 전통적인 공동체 산물의 획득과 이동을 통해 마을길의 변화상을 추적할 수 있음

1-8 제주의 근현대 제주학연구(學者) 아카이빙

1-8-1 사업 필요성

- 김석익 <탐라기년>, 담수계 <증보탐라지>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제주의 대한 기록물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선현들의 기록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여 제주도민들에게 제주학과 역사에 대해 홍보할 필요가 있고, 제주에 대한 선현의 애정이 후손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음

1-8-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작고하신 선현들의 제주학 관련 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기준을 정함
- 원로들의 업적을 조사하여 아카이빙함
- 이에 대한 평가(세미나)와 전시회도 병행하여 홍보함

1-9 제주고고학의 유구 및 유물 자료집성과 활용

1-9-1 사업 필요성

- 제주고고학의 기초 자료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 시대별·유적별 유구 및 유물 도면 집성이 요구됨
- 최근까지 조사된 유적의 도면자료를 전자화하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1-9-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제주지역 고고학 발굴조사 보고서 목록화 작업
- 시대별 중요 유구의 선별과 자료 집성
- 토기, 석기, 금속기, 옥기 등 유물 도면의 전산화 및 자료 취합
- 시대별·도구별 구분 후 대상 유물의 선별 기준 제시

1-9-3 기대효과

- 제주고고학 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수월해짐
- 제주고고학의 편년정립을 위한 양식적 분석자료 제공
- 전자문서와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연구자료 활용
- 제주고고학 연구자 및 학문적 연구역량 증진

1-10 제주형 비지정문화유산 중요도 측정을 위한 분류 지표 체계 구축 및 활용

1-10-1 사업 필요성

- 제주도에는 387개의 지정문화유산 외에 약 1,500여 개의 비지정문화유산이 산재하나, 지정제도 밖에 있어 체계적 조사·평가·보존·활용이 미흡함

- 이에 따라, 훼손·멸실 위험이 매우 높고, 정책·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이 곤란한 상황임

1-10-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화유산 중요도 측정 방법론(CKP: Cultural Keystone Methods)을 제주도의 비지정문화유산 중요도 측정에 적합하도록 변환 및 적용시킴으로써, 제주형 비지정문화유산 중요도 측정 분류 지표 체계 구축하고자 함
- 세부 주요 내용
 - 제주도의 비지정문화유산 중요도 측정에 적합한 문화유산 중요도 측정 방법론(CKP: Cultural Keystone Methods) 수립
 - 문헌·기록 조사, 구술사·참여관찰, 현장 실측
 - 3개 권역(제주시, 서귀포시, 부속도서지역) 비지정문화유산 60개 대상 시범 평가 수행
 - 비지정문화유산 관리 정책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한 「제주형 CKP 분류 지표 체계 및 평가 매뉴얼」, 「우선보존 목록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1-10-3 기대효과

- 비지정문화유산의 표준화된 중요도 측정 지표 제공
 - 지표·루브릭 기반의 과학적·투명한 평가로 비지정문화유산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지정·등록·예산 편성의 합리성이 제고됨.
- 리스크 기반의 선제적 관리
 - 중요도와 취약도의 동시 분석에 따른 응급보존 및 완화대책 수립으로 훼손 예방 및 보전 효과 증대.

2. 제주 유·무형 유산 발굴

- 제주 역사 유·무형 유산 발굴 관련 신규 사업 제안은 고대~현대 제주 유산의 조사 및 자료화·활용이 공통 목표임
 - 3성 9진성, 호국전설, 탐라 교류 유물, 고려시대 불교·목축 유산, 조선 봉수·연대, 동자복·서자복, 돌문화 연구 등 제주 방어체계와 역사유산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

둘이 제안됨

- 현장 실측, 문헌 조사를 병행하고 디지털화·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방법으로 삼아 학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문화 콘텐츠화로 확대시키는 방안임
- 지역 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공동체 발전을 연계한 장기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구상임

〈표 14〉 유·무형 유산 발굴 관련 신규 사업 제안 목록

| 순서 | 사업 내용 |
|----|---|
| 1 | □ 제주 3성 9진 실측 및 기록 정비 사업 - 제주 3개 성, 9개 진성에 대한 정밀 실측 진행 |
| 2 | □ 조선시대 봉수와 연대 원형 조사와 활용 - 원형이 남아 있는 봉수와 연대 현황조사 및 활용 |
| 3 | □ 탐라의 해양 교류(유물) 출토지 조사 및 연구 - 탐라가 고려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제주산 유물이 출토된 지역 조사 |
| 4 | □ 고려와 원(몽고) 간섭기의 제주유산 찾기 - 고려와 원(몽고) 간섭기의 불교·목축 등 제주 유산 조사 |
| 5 | □ 탐라 역사 관련 신화·전설 조사 - 호종단(고종달) 등 탐라 역사 신화, 전설 전수 조사 |
| 6 | □ 동자복 서자복 활용 사업 - 동자복 서자복을 구도심 활성화의 한 축으로 활용 |
| 7 | □ 제주인의 정체성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 제주 정신문화의 핵심가치를 개념화한 「제주인의 정체성 모델」 정립 |
| 8 | □ 제주 돌문화 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제주도 내 산재한 돌문화 경관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
| 9 | □ 제주 전통정원 발굴 및 보존·관리·활용 - 제주 전통정원의 역사 파악,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2-1 제주 3성 9진 실측 및 기록 정비 사업

2-1-1 사업 필요성

- 제주의 3개 성(제주성, 대정성, 정의성)과 9개 진성(명월진성, 별방진성 등)은 제주

방어체계·지역사회의 핵심 유산이므로, 실측의 기록 갱신과 자료 현대화, 체계화가 필요함

- 전문 연구기관이 체계적으로 실측한 현장 기반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제주 역사 교육 및 관광 자료로도 활용 가능함

2-1-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제주 3개 성, 9개 진성에 대한 정밀 실측을 진행하고 과거 도량형·척 기준과 비교 분석함
- 문헌상 기록(몇 척 등)이 실제 현장과 다르고, 옛 도량형 등 기준이 일정 치 않기 때문에 최신 GPS 기반 정확 계측, 도면의 현대화, 유적별 DB 통합, 디지털 문화재 등 재정비를 진행함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등 지역 전문 기관이 협업하여 인적·장비를 공동 활용함

2-1-3 기대효과

- 제주 지역사, 건축사, 방어체계사 등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및 학문의 발전을 촉진함
- 도민과 후대에게 실물 기반의 제주 역사교육·문화관광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함
- 지역 연구 기관의 전문성과 협업 역량을 강화함

2-2 조선시대 봉수와 연대 원형조사와 활용

2-2-1 사업 필요성

- 조선시대 방어유적 중 봉수와 연대는 육지부와 다른 형태를 보임. 연대 명칭은 제주에서 독특하게 많이 쓰이며, 지리적으로 봉수와 연대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기능은 같음
- 봉수와 연대의 원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해당 위치와 복원된 연대에 대한 실측자료만 남아 있고, 원형에 대한 현지조사(실측 등)가 없다시피 하여 구조나 축조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실정임

- 원형조사 자료를 가지고 조선시대 방어체계의 이해와 적용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가치를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2-2-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복원된 연대의 원형 찾기와 원형이 남아 있는 봉수와 연대 현황조사(실측, 측량 등), 실제 운용된 사례조사 및 문헌자료 정리
- 〈봉수의 길〉 체험형 답사프로그램 개발, 고지도와 문헌에 나타난 성곽(3성/9진), 봉수(25), 연대(38) 방어시스템 구현 디지털화, 야간에 조명을 이용한 봉수(연대)간 간접체험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
- 조선시대 외적에 대한 방어시스템 구축 방식과 운영체계 연구

2-2-3 기대효과

- 육지와 차별화된 제주 특유의 방어유적 체계를 규명하고 제주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봉수의 길〉 답사프로그램과 디지털 방어체계 구현을 통해 조선시대 방어시스템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함

2-3 탐라의 해양 교류(유물) 출토지 조사 및 연구

2-3-1 사업 필요성

- 탐라의 해양문화에 대한 실체적 유산인 교류 유물에 대한 연구 및 교류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형편임
-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탐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실증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섬이라는 지리적으로 제한적인 여건에도 해양자원을 이용한 고대항로 개척 등 고대 탐라의 주체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2-3-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기원후부터 탐라가 고려에 완전하게 편입되기 이전 시기까지 외지산 유물이 제주에서 출토되거나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과 일본 지역에 제주산 유물이 출토된 지역조사
 - 탐라토기, 한반도(마한토기, 가야계토기, 백제계토기, 통일신라토기), 철제품, 옥제품, 도자기(중국), 항구유적(일본) 등
- 연차별 조사: 한반도 남부(전라도, 경상도), 일본 지역(큐슈, 오사카), 중국(절강성, 태산 등)
- 연구와 활용방안: 조사결과 공유 학술대회 개최, 〈고대 탐라의 흔적을 찾아〉 프로그램(디지털 등) 마련

2-3-3 기대효과

- 고대 탐라의 국제 향로 개척과 대외 위상 제고
- 탐라의 실체를 제주 중심의 대외교류적 측면에서 정립
- 탐라의 정체성 확립

2-4 고려와 원(몽고) 간섭기의 제주유산 찾기

2-4-1 사업 필요성

- 고려시대 제주는 간섭기~삼별초~원지배기~목호정벌(고려 귀속)로 이어짐. 지배체계의 변화, 불교의 유입, 목축문화의 변화, 동화된 언어의 탄생, 목호정벌에 따른 전쟁터 등 이로 인한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중세 굴곡진 제주역사 현장에 남겨진 유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세 제주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2-4-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고려간섭기의 불교유산, 여몽연합군과 삼별초와의 전쟁 진행 과정에 따른 유산(환해장성 등) 조사, 원 지배기의 목축문화유산, 목호토벌 전쟁유산과 고려 지배기의 15개 현촌의 유산, 동산유산(중국 청자) 등 조사

- 고려시대 유산을 유형유산(사찰, 성곽, 비석, 목장, 무덤, 외래유물 등), 언어유산(지명), 무형유산(음식문화) 등 분야별로 나누어 시기별로 정리
- 이를 콘텐츠화하여 각 유산별로 가치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

2-4-3 기대효과

- 빈약한 제주의 중세 문화유산을 다양한 관점에서 발굴하고 연구자료 확보
- 문화유산으로 보는 고려시대 제주의 역사를 입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구현
- 전래되는 이주문화와 전통문화의 융합과정을 통해 제주 정체성 확립

2-5 탐라 호국 관련 전설 전수조사

2-5-1 사업 필요성

- 고종달 호종단, 한라산신 신화, 오백장군(나한), 장군바위 등 제주 고유의 호국 전설들은 지역 민족정체성 및 문화적 뿌리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임
- 대부분이 구전 위주로 전승되어 체계적 자료화와 분석이 미흡한 상태로, 향후 문화유산 보존과 역사 연구에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 구축이 시급함

2-5-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제주 전역에 분포한 호국 관련 전설을 현지 조사와 문헌 수집을 통해 수집
- 구술 기록 채록을 통하여 서술의 다양성 확보, 전설별 세부 내용 및 유형 분석, 분류를 통한 체계적 정리 작업

2-5-3 기대효과

- 제주 전통문화의 보존과 대중화에 기여하며, 제주 역사문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지역 축제·공연 등 문화 콘텐츠 활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2-6 동자복 서자복 활용 사업

2-6-1 사업 필요성

- 고려시대 제주역사의 한 부분으로 동자복 서자복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동자복 서자복을 구도심 활성화의 한 축으로 활용하여, 제주성안의 재정비와 활용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2-6-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자복사로서의 동자복과 서자복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헌 및 현장 연구 수행
- 제주성을 중심으로 동자복·서자복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2-6-3 기대효과

- 고려시대 제주역사의 한 부분을 규명할 수 있음
- 제주성안의 재정비와 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7 제주인의 정체성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2-7-1 사업 필요성

- 전통 제주사회가 공유해 온 자립성·협동성·개척성에 기초한 ‘대동주의(大同主義, Ideal of Great Unity)’가 제주인의 생활 규범과 제주사회 운영의 실제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제주인의 정체성의 부재는 정책·산업·교육 전반의 방향성(나침반)을 상실하게 하여, 제주사회의 다양한 갈등(제주 관광 신뢰의 급락 문제, 원주민-이주민 간 갈등 문제 등) 발생시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어지고 임기응변식의 정책 대응을 반복하게 되는 원인이 됨

2-7-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제주 정신문화의 핵심가치(자립·협동·개척·대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개념화한 「제주인의 정체성 모델」 정립
- 관광·지역공동체 현장의 갈등 전환 실험(파일럿) 설계와 효과성 평가
- 마을·관광산업 분야를 위한 교육 모듈 제안
 - 마을(공동체 역량)·업장(공정가격·환대·다문화 응대)
- 제주인의 정체성을 적용한 관광산업(음식점 포함) 인증 체계 제안
 - 「제주 대동인증」(가칭): 정체성 기준 준수 업장·마을 인증 체계 설계

2-7-3 기대효과

- 정체성 기반 의사결정 기준(정책 나침반) 확립으로 단속·홍보 중심에서 구조 개선 중심으로 전환함
- 제주사회의 문화적 통합과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함
- 섬·관광도시의 세계적 보편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함

2-8 제주 돌문화 경관의 보존 및 활용

2-8-1 사업 필요성

- 제주 돌문화 경관은 이미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2017년부터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음
- 2022년에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주의 돌문화를 유산 후보로 추천했으나 정작 제주도 차원에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제주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돌문화 경관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기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돌문화 경관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보존 및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임

2-8-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대상 자료: 제주 전반에 흩어져 있는 다종다양한 제주 돌문화 경관
 - 발담, 원(갯)담, 불턱담, 우영담, 잣성, 돌가마(옹기가마), 돌염전(소금밭), 돌미륵, 돌하르방, 방사담, 석담, 지석묘, 석곽형 방묘, 암각화, 산담, 신당 돌담, 포제단 돌담, 축담, 통싯담, 울담, 올렛담, 마을길 돌담, 봉천수 돌담, 용천수 돌담, 포구 돌담, 연대, 도대불, 환해장성, 읍성(현성), 진성, 4·3 성담 등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선별
 - 제주도 내에 지역별에 산재한 돌문화경관의 데이터베이스화
 -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돌문화경관 선별
- 보고서 제작
 - 각 지역의 돌문화 경관을 특징에 맞게 정리
 - 선별된 대표적인 돌문화경관을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 아카이브 연계 등 공유 및 활용 방안 등 제시

2-8-3 기대효과

- 제주 돌문화경관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제주다운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최적의 자원임
- 다양한 돌문화경관의 선별을 통해 보존 및 활용계획을 수립함

2-9 제주 전통정원 발굴 및 보존·관리·활용

2-9-1 사업 필요성

- 정원은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역사와 문화의 산물로 우수한 정원은 지역 공동체의 자부심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외부인의 관광이나 체험 대상으로 최근 지역의 관광이나 문화 산업과 연계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제주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우수한 정원들이 산재하거나 만들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카페는 제주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정원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하지만 제주 정원의 출발점과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 전통정원의 역사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제주 정원의 발전 방향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제주 전통정원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동시에 주요한 제주 전통정원을 발굴 및 연구하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도민과 방문객을 위한 새로운 도시 기반 및 역사문화 사업 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9-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제주 정원의 역사 및 흐름에 대한 연구
 - 제주 전통정원에 대한 역사와 흐름 파악
 - 제주 전통정원에 대한 정의 및 유형
 - 주요 제주 전통정원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주요 제주 전통정원 보존·관리·활용 연구
 - 제주 전통정원의 현황을 파악
 - 제주 전통정원의 보존·관리 계획 수립
 - 제주 전통정원의 활용 방안

2-9-3 기대효과

- 제주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전통정원을 발굴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강화시킴
- 제주도민에게 지역 자부심을 심어주고 최근 지자체에서 주요한 지역 발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원 문화 산업의 기반을 형성함
- 방문객에게 새로운 지역 콘텐츠를 제공하여 제주 관광 사업 발전에 일익함

3. 제주 역사 서적 편찬

- 제주 역사 서적 발간 관련 신규 사업 제안은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제주사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신뢰도 높은 종합 지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공통 목표로 함

- 탐라·제주사, 제주 고고학, 항일운동 인물 등 시기·분야별 발간 사업을 통해 학술성과를 통합하면서도 대중 접근성이 높은 발간물 구성이 제안됨
- 각 사업은 분산된 조사 성과와 개별 연구를 키워드·시대·인물 단위로 재구성하여, 학계와 교육·문화·관광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구상임
- 지역 연구기관과 전문가, 시민 연구자, 현장 자료를 연계한 편찬 체계를 통해 중앙 중심 서술을 보완하고, 제주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장기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표 15〉 제주 역사 서적 편찬 관련 신규 사업 제안 목록

| 순서 | 사업 내용 |
|----|--|
| 1 | □ 제주 역사 대사전 발간 - 제주의 역사 총체적 집대성 대사전 편찬 |
| 2 | □ 탐라·제주사 학술 총서 발간 - 탐라·제주사 학술총서 및 대중 홍보용, 중고교 교재용 보급 |
| 3 | □ 제주의 고고학 서적 발간 - 고고학적 최근 성과를 반영한 고고학 개설서 출간 |
| 4 | □ 제주도 항일운동 인물 사전 발간 - 최근 성과를 반영한 공신력 있는 항일운동 인물 사전 편찬 |

3-1 제주 역사 대사전 발간

3-1-1 사업 필요성

- 제주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이 부재하여, 학계와 일반 모두에게 제주 역사에 대한 쉽고 정확한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분산된 단편적 연구·기록을 넘어선 통합적 지식체계 구축이 요구됨
- 기존 디지털문화대전 자료를 보완하고 제주 지역의 특수성과 심층성을 반영한 확장판 편찬의 필요성이 대두됨
- 키워드 중심의 편찬 방식을 도입하여, 주요 주제어에 대한 심도있는 해설과 풍부한 연계 정보를 제공, 학술 및 일반 대중 모두의 역사 이해를 촉진함

3-1-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분야별, 시기별, 주제별 키워드 선정을 통해 제주 역사를 다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설계함
- 학계 전문가, 지역 원로, 구술 보유자, 시민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의 협업을 통한 집필 및 자문을 진행함
- 고해상도 이미지, 영상, 지도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연계한 인쇄 및 웹 기반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함
- 검색, 추천, 통계 등 다양한 디지털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킴

3-1-3 기대효과

- 제주학 표준 참고서로서 교육, 관광, 문화 분야 등 다방면에 활용 가능한 기초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음
- 키워드 중심의 체계적 정보 제공으로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세대 간 지식 전승을 촉진함
- 지속적 업데이트가 가능한 디지털 지식 생태계 구축을 통해 최신 연구성과 반영과 데이터 개방·연계로 제주 문화자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
- 제주 역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역사정보 원천을 구축함

3-2 탐라·제주사 학술총서 발간

3-2-1 사업 필요성

- 1990년대 이후 30여 년에 걸친 탐라와 제주 역사의 심층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탐라·제주사’ 학술총서를 발간함으로써 제주민의 역사의식 고취 및 정체성 함양을 목적으로 함
- 대외적으로 탐라, 제주 역사의 홍보에 일조를 기하여, 탐라·제주사를 널리 선양함은 물론, 향후 탐라, 제주 역사를 주제로 한 각종 콘텐츠 개발에 다양한 소재를 제공함
- 일본 오키나와에서 현재 『오키나와현사(沖縄県史)』가 발간 중인 바, 이 지역의 선진적

편찬 작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제주 역사 통사의 깊이와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2-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3개년에 걸쳐 ‘탐라-제주사’ 학술총서(총 15권 전후), 대중 홍보용(1~2권), 중고교 교재용(1권)을 발행하여 보급함
- ‘제주사정립위원회’ 내 가칭 ‘탐라-제주사 편찬위원회(10명 전후)’를 구성하여, 전공 분야별 집필위원(20명 전후), 감수위원(5명 전후) 선정 등 집필과 편집 일체를 주관함
- 제주 역사문화 연구 실적이 우수한 도내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일체의 편찬, 집필, 편집, 감수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행정에서는 과감한 지원을 하여 민관 합동의 편찬 사업으로 추진함
- 오키나와 및 규슈 지역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 역사 자원과 편찬 현황 조사·분석함
- 국사편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성과를 교류함

3-2-3 기대효과

- 중앙 중심의 한국사 집필 및 편찬에서 탈피하여 지역사 중심의 학술 총서를 발간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학술 연구의 방향을 선도함
- 탐라-제주 역사의 심층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사진 등 문화예술 분야별 다양한 소재로 활용하는 데 일조함
- 국내외 학계와 지역사회에 제주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중적 관심을 증진시킴

○ 탐라-제주사 학술총서 발간 목차

1. 분량: ‘탐라-제주사’ 총 10권은 각 권당 A4 기준 300쪽 전후로 편성
2. 각 권별 제호(예시).
(1안) 시대별: 탐라-제주사
1권: 탐라의 건국과 신화
2~3권: 선사시대 탐라
4~5권: 고대 탐라국
6~7권: 중세 탐라국

8~9권: 조선 전기 제주
 10~11권: 조선 후기 제주
 12권: 개항 전후 제주
 13~14권: 일제강점기 제주
 15권: 해방 이후 제주

(2안) 시대별과 주제별 융합: 탐라·제주사

1권: 탐라의 건국과 신화
 2권: 탐라의 선사 유적과 문화
 3권: 탐라의 역사 유적과 문화
 4권: 고대 탐라국의 실체
 5권: 고대 탐라의 대외교류와 해양문화(해로)
 6권: 중세 탐라의 실상과 고려와의 관계
 7권: 중세 탐라와 삼별초 및 몽고
 8권: 조선 시대 제주 삼읍의 형성과 방어체제
 9권: 조선 시대 제주 목민관과 유배인
 10권: 조선 시대 제주와 '출륙 금지령'
 11권: 조선 시대 제주인의 삶(공납과 진상, 표류인, 해양유민 등)
 12권: 제국주의 침탈과 제주민의 농민 항쟁
 13권: 일제의 제주 침탈과 실상
 14권: 제주민의 항일 독립운동
 15권: 해방 이후 제주 사회와 4.3 항쟁

3-3 제주의 고고학 서적 발간

3-3-1 사업 필요성

- 제주고고학 개설서는 1995년 『제주도 고고학연구』 출간 이후 전무한 실정임. 1995~2025년(30년)의 고고학적 최근성과(2000년대 이후 폭증)를 반영한 통합 개설서 출간이 요구됨
- 영남의 고고학 사례와 같이, 제주 고고학의 기초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참고서 발간이 요구됨

3-3-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1995년 이후 축적된 제주고고학 연구 성과를 전면적으로 수합·정리하여 시대·유형별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집성함
- 선사·고대·중세·근세 등 각 시대별 연구 현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와 방법론적 제언까지 함께 담아 개설서의 방향 제시 역할을 하도록 함
- 시대별 전공자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장별 구성, 필자 배분, 서술 방식 등 편집 방향을 공동 논의하고, 합의된 기준에 따라 원고를 집필·교정함
- 학계와 현장에서 혼용되고 있는 고고학 용어를 검토하여 정의를 통일하고, 용어 사용 원칙과 해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와 문화재 행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함

3-3-3 기대효과

- 제주고고학 입문자와 신진 연구자들이 필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론서로 활용되어, 연구 인력 양성과 교육 현장에 기여함
- 그동안 개별 논문과 보고서에 흩어져 있던 연구 성과를 통합함으로써 제주고고학의 연구사적 전개를 조망할 수 있고, 학문적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함
- 제주지역 자료가 한국고고학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갖는지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국가 단위 고고학 서술과 교과서, 전시 기획 등에서 제주고고학의 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함

3-4 제주도 항일운동 인물사전 발간

3-4-1 사업 필요성

- 인터넷에서 많은 사실을 취합하는 요즘, 항일운동 인물에 대한 정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유포되어 있음
- 김찬흠 선생 이후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한 인물사전이 필요한 시점임
- 국가보훈처 공훈록 등 공신력 있는 기준이 되는 사실을 제공할 항일운동 인물 사전이

요구됨

3-4-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인물에 대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확보된 내용만을 정리함
 - 항일운동 인물의 경우 고난과 핍박을 강조하다 보니, 지나치게 위인화하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있음. 이는 제대로 된 인물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왜곡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도 함

3-4-3 기대효과

- 인터넷상에 유포된 과장·왜곡 정보를 교정하고, 항일운동 인물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와 교육·대중홍보가 가능해짐
- 제주 항일운동 관련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향후 지역사 연구와 독립운동사 서술, 전시·콘텐츠 제작 등 2차 활용을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됨

4. 제주 역사 교육 및 홍보

- 제주 역사 교육·홍보 관련 신규 사업 제안은 대중이 제주사를 입체적으로 체험·학습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홍보하는 것을 공통 목표로 함
 - 고고 유적·발굴 현장 체험, 구술사 교육 콘텐츠, 유배 문화, 제주 역사 유산 100선 등 교실·현장·미디어를 아우르는 역사 학습·홍보 경로가 제안됨
- 문헌·유물·구술·유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과 역사 감수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제주 역사 교육 및 홍보 체계를 조성하려는 장기 전략 사업 구상임

〈표 16〉 제주 역사 교육 및 홍보 관련 신규 사업 제안 목록

| 순서 | 사업 내용 |
|----|---|
| 1 |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 제주사 교실 특강 |

| 순서 | 사업 내용 |
|----|--|
| | - 도내 주요 중·고등학교와 협약하여 직접 방문 특강 |
| 2 | □ 제주 땅이 품고 있는 역사 이야기 - 도내 발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구성 |
| 3 | □ 제주 구술사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 기존 구술 자료를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로 재가공 |
| 4 | □ 제주 유배 문화 재조명 - ‘(가칭)제주 유배 문화 기념관’ 조성 등 제주를 국내외 유배 연구의 산실로 양성 |
| 5 | □ 제주 역사 유산 100선 출간 홍보 - 시대별, 주제별 탐라, 제주사를 관통하는 제주 역사 유산 100선 선정 |

4-1 찾아가는 제주사 교실 특강

4-1-1 사업 필요성

-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제주 역사를 주제로 심화된 특강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역사 인식을 심어줌
- 역사에 대한 첫 관심과 기초인식은 교과서로부터 영향을 받음. 지역사는 내가 나고자한 토대의 역사로서 자신의 정체성 함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제주사는 교과서 안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음.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심화된 특강이 필요함

4-1-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도내 주요 중·고등학교와 협약하에 직접 찾아가서 특강을 하는 형태로 진행함
- 교과서 속에 언급된 제주사 관련 주제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제주 고산리 유적, 가장 오래된 신석기 사람들의 삶터(선사시대 제주사)
 - 삼별초와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고려시대 제주사)
 - 제주 4·3의 현재적 의미(근현대 제주사)

4-1-3 기대효과

- 제주사에 대한 관심 제고와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교과서에 나오는 제주사를 심화 학습함으로써 한국 역사상 제주사의 자리매김과 역사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음

4-2 제주 땅이 품고 있는 역사 이야기

4-2-1 사업 필요성

- 제주도에서 발굴된 고고 유물자료를 통해 선사~역사시대 제주섬의 살아있는 역사를 도민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함
- 문헌에서 알 수 없는 전통시대 제주민 삶의 흔적을 그동안 누적되어 온 고고발굴 현장과 자료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제주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4-2-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도내 발굴 전문기관(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일영문화재연구원)과 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 박물관)의 연계 하에 프로그램을 구성
- 기관 내에서는 제주 고고학 관련 주제를 잡아 특강을 진행하고, 그와 연계하여 유적 또는 발굴 현장을 답사함. 현재 발굴 중인 곳에 발굴 전문가의 안내하에 도민이 탐방할 수 있도록 함. 박물관의 경우 전시관뿐만 아니라 수장고를 볼 수 있도록 함

4-2-3 기대효과

- 제주도 땅에 잠재되어 있는 고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내 삶 터전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느끼게 해줌
- 문헌에 담겨져 있지 않는 제주민 삶의 역사를 물질자료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제주사를 균형감 있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4-3 제주 구술사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

4-3-1 사업 필요성

- 제주 해녀, 4·3 생존자, 농어촌 고령자 등 다양한 구술 채록이 수년간 축적되어 왔지만, 교육 자료로의 활용은 미비한 상황임
- 해당 구술 자료는 지역 정체성, 공동체 역사, 생애사, 민중사 등을 담고 있어 역사·사회·윤리·국어 교육에 활용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기존 구술 자료를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로 재가공하고, 학교·지역문화기관·박물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4-3-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대상 자료: 기존 구술 채록 자료(해녀, 제주 4·3 생존자, 고령자 및 이주민 생애사, 지역 민속 및 생활문화 등), 제주도 내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소, 박물관 등의 아카이브 연계
- 개발 콘텐츠 유형
 - 교육용 구술 자료집: 학년별 수준에 맞춰 구성 (질문-답 형식, 사진, 지역지도, 용어해설 포함)
 - 인터뷰 영상 편집본: 구술자 육성 기반 5~10분 내 짧은 스토리 영상 / 자막·해설 포함
 - 모듈형 수업안: 역사·사회·윤리·국어 과목에 연계 가능한 1~2차시 구성 / 발문, 토론, 글쓰기 포함
 - 활동 워크북: 구술 내용에 기반한 학생 참여형 활동지
 - 전시+교육 키트: 구술 인물 패널, 포토존, 마을지도, 관련 사물 키트 등 / 이동식 전시 가능
 - 연극/낭독극 대본: 구술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형 희곡 콘텐츠 개발
- 시민 향유 및 교육 확산 프로그램: 찾아가는 구술 이야기 전시(학교, 도서관, 마을회관 등), 구술 그림책 제작 체험(초등~중등 대상), 시민 구술극장(구술 자료 활용 연극), 교사 대상 구술 자료 활용 연수 등

4-3-3 기대효과

- 지역 구술 기록의 활용도를 높이고, 단순 보존에서 활용 중심 사업으로 전환
- 학생들의 지역 정체성 함양, 세대 간 소통 증진, 역사 감수성 강화

- 교사 연수와 교재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 조성
- 기존 구술 DB 사업(4·3, 해녀 등)과 유기적 연계 가능

4-4 제주 유배 문화 재조명

4-4-1 사업 필요성

- 기존의 제주 유배 문화는 주요 유배인 몇 명(예컨대 광해군, 추사 김정희, 면암 최익현 등)을 중심으로 그들의 유배길, 적소터, 음식문화 등에 대한 조명만 이루어져 극히 단편적이고, 특정 유배인 중심의 연구 성과만 제공됨
- 2020년대 초반 제주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제주 유배인 전수조사가 일정 정도 완료되어,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 유배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토대 연구가 마련됨
- 유배 문화가 제주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주 유배 문화의 재조명 사업이 현안으로 대두함

4-4-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제주 유배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외 유배 문화 개요’, ‘제주 유배의 기원’, ‘제주 유배인 실상’, ‘유배인과 제주인 교류’, ‘제주 문화와 유배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연구(학술대회 등)와 관련 저술 출간 및 홍보를 진행함
- 향후 5년 이내 가칭 ‘제주 유배 문화 기념관’을 조성하여 제주를 국내외 유배 문화 연구의 산실로 양성함

4-4-3 기대효과

- 유배 문화를 매개로 중국(원, 명), 한반도 등과 교류할 수 있는 역사적 연결고리를 마련함
- 제주 유배 문화와 관련한 여러 주제와 소재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분야별로 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제주 콘텐츠 개발에 기여함

4-5 제주 역사 유산 100선 출간 홍보

4-5-1 사업 필요성

- 선사 시대 탐라부터 근현대 제주에 이르기까지 탐라, 제주사를 관통하는 주요 역사 유산들을 엄밀한 문헌 고증을 거쳐 100선을 선정, 이를 출간·홍보함으로써 제주 ‘인문 관광’의 매개로 활용함
- 제주의 지질과 자연 유산은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인문 사회를 기반으로 한 역사 유산 조명과 홍보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임

4-5-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기존의 국가, 지방 지정 등록 유산을 바탕으로 시대별, 주제별 탐라, 제주사를 관통하는 역사 유산 100선을 선정함
- ‘제주역사정립위원회’ 주도로 ‘제주 역사 유산 100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연구와 출간홍보의 두 팀으로 나누어 선정, 집필, 출간, 홍보의 제반 실무를 담당함

4-5-3 기대효과

- ‘제주 역사 유산 100선’을 출간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질, 자연 분야의 세계 유산뿐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제주 섬사람 이야기까지 담은 인문 분야의 역사 유산까지 널리 알려 제주민 자긍심 고취에 일조함
- 지질, 자연 분야의 세계 유산과 연계하여 제주의 역사 유산까지 제공함으로써 균형 잡힌 제주 홍보와 관광에 활용함

5. 제주 역사 국내외 교류

- 제주 역사 국내외 교류 관련 신규 사업 제안은 제주가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온 실상을 복원하는 것을 공통 목표로 함
- 일본 현지 유적 조사와 표류·귀환 관련 문헌·사료 분석을 병행하여, 국가 간 외교분

아니라 민간 교섭·인도주의 실천 등 다층적인 대외관계의 역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내려는 구상임

- 축적된 연구 성과를 국제 학술 교류, 상설·기획전, 교육·관광 콘텐츠로 확장함으로써, 제주사의 대외성을 부각하고 동아시아 장기 연구·교류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임

〈표 17〉 제주 역사 국내외 교류 관련 신규 사업 제안 목록

| 순서 | 사업 내용 |
|----|---|
| 1 | <input type="checkbox"/> 탐라일본 대외 교류사 현지 교류 조사 - 탐라-일본 교류사 관점 조사,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교류 협력 |
| 2 | <input type="checkbox"/> 제주 표류민 귀환 과정과 동아시아 대외관계 연구 - 국제 해상로 및 표류민 반환 과정 조사 및 동아시아 네트워크 기능 재조명 |

5-1 탐라·일본 대외교류사 현지 교류 조사

5-1-1 사업 필요성

- 일본 오사카성 일대 나니와궁 유적, 나라 헤이조궁터 목간, 정창원 소장 도래계 유물 등은 탐라가 일본 고대 왕권과 직접 교류한 물적·문헌 증거를 제공하는 핵심 자료임
- 지금까지 개별 유적·유물 차원에서만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탐라-일본 관계사를 축으로 한 종합적인 현지 조사와 비교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탐라의 대외 네트워크와 해상 교통로를 복원함으로써, 제주가 동아시아 고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5-1-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일본 오사카성 주변 나니와궁 유적, 나라 헤이조궁터, 정창원 등 관련 유적·수장고를 중심으로 다년간 현지 답사를 실시하고, 탐라 관련 기록·유물에 대한 공동 조사·촬영·자료 공유를 추진함
- 일본 연구자와의 공동 워크숍 및 국제 학술대회를 정례화하여, 조사 결과와 해석을 상호 검증하고 다국어 보고서 및 논문집을 발간함

- 탐라 관련 유물·문헌의 목록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 이미지·3D 스캔 자료 확보 등을 통해 향후 연구와 전시에 활용 가능한 기초 인프라를 조성함

5-1-3 기대효과

- 탐라와 일본 간 고대 교류 양상을 해상 교통로, 사절 왕래, 물질문화 교류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제주 고대사 정립에 기여함
- 한·일 연구자·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호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양 지역 시민의 역사 이해와 문화 교류를 증진함
- 축적된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탐라 해양교류사 관련 상설·기획전, 교육 콘텐츠, 관광 코스(일본-제주 연계 해양문화 루트)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5-2 제주 표류민 귀환 과정과 동아시아 대외관계 연구

5-2-1 사업 필요성

- 조선시대 제주 및 한반도 표류민(이방익, 김대항 등)의 사례는 한-중-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제관계·외교사 측면에서 중대한 사료적·인문학적 가치를 지님
- 표류민 귀환의 실제 교섭(외교, 식량 보상, 인도주의 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국가 공식사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대외관계, 인도주의 교섭의 역사를 밝힐 수 있음
- 제주를 오가는 국제 해상로 및 표류민 반환 과정이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기능했음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5-2-2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 『지영록』 등 표류·귀환 관련 문헌 및 사료를 분석하고, 주요 표류민의 실경로·귀환 과정, 외교적·민간 협조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 표류 경로(쿠로시오 해류, 광동성, 안남 등) 및 귀국 교섭 과정(식량 보상, 생존율 등) 재구성하고 국가간 협력 및 민간 차원의 지원, 사망·생환 인원 등 실물기록을 조사함

5-2-3 기대효과

- 제주와 표류민의 귀환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옛 국제질서 및 네트워크의 실제 작동 양상을 구체적 복원함
- 표류와 귀환이 단순 민간 사건이 아닌 국가간 외교, 재난구호, 인도주의 실천의 사례로 재해석함
- 민간 외교와 그 현장을 새롭게 조명, 동아시아 인문공동체 연구에도 실질적 기여함

Ⅳ. 제주 역사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

1. 설문 조사 목적

-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 역사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제주 역사의 관심과 이해도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의 향후 중장기 역사 사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 역사 관련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도민 참여 확대 및 교육·홍보 전략 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2. 설문 문항

-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포함된 항목을 중심으로 관련 문항으로 구성함

| 제주도민 | 전문가 |
|---|---|
| <input type="radio"/> 제주역사 관심도 | <input type="radio"/> 제주역사 조례·정책 |
| <input type="radio"/> 제주 역사 인식·참여 | <input type="radio"/> 제주 역사 인식·참여 |
| <input type="radio"/> 제주 역사 과제 우선순위 | <input type="radio"/> 제주 역사 과제 우선순위 |
| <input type="radio"/> 제주 역사 기록 수집 및 유산 발굴 | <input type="radio"/> 제주 역사 기록 수집 및 유산 발굴 |
| <input type="radio"/> 제주 역사 서적 편찬 | <input type="radio"/> 제주 역사 서적 편찬 |
| <input type="radio"/> 제주 역사 교육·홍보 및 교류 | <input type="radio"/> 제주 역사 교육·홍보 및 교류 |
| <input type="radio"/> 응답자 일반사항 | <input type="radio"/> 응답자 일반사항 |

3. 설문 대상

- 표본 설계

- 조사 대상: 제주도민과 제주역사 관련 전문가
- 표본 크기: 총 377명(제주도민 300명/ 전문가 77명) /오차범위: 제주도민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pm 5.66\%$

■ 조사 방법 및 기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1:1) 개별 면접 조사(온라인 조사 보조적 병행)
- 조사 기간: 2025년 10월 24일(금) ~ 2025년 11월 5일(수)

■ 만족도 점수 측정 방법

| 점수 | 평가 |
|-------|----------------|
| 5점 척도 | |
| 5점 | 매우 긍정적(매우 만족) |
| 4점 | 긍정적(만족) |
| 3점 | 보통 |
| 2점 | 부정적(불만족) |
| 1점 | 매우 부정적(매우 불만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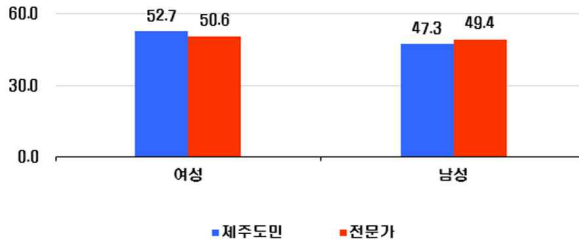
4. 설문 결과 내용

I. 응답자 일반현황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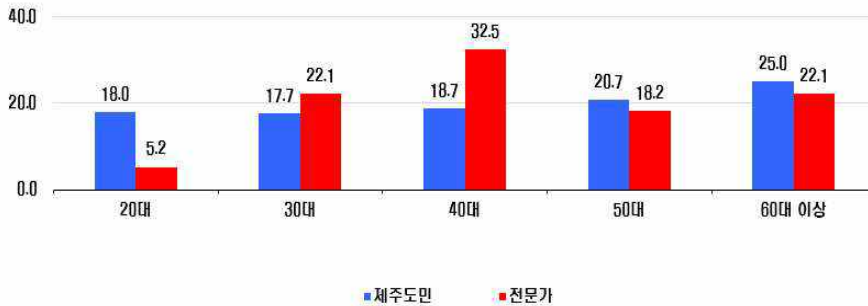
| 성별 | 제주도민 | | 전문가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여성 | 158 | 52.7 | 39 | 50.6 |
| 남성 | 142 | 47.3 | 38 | 49.4 |
| 전체 | 300 | 100.0 | 77 | 100.0 |

- 제주도민은 ‘여성’ 158명(52.7%), ‘남성’ 142명(47.3%)으로 구성됨
- 전문가는 ‘여성’ 39명(50.6%), ‘남성’ 38명(49.4%)으로 구성됨



2. 연령

| 구분 | 제주도민 | | 전문가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20대 | 54 | 18.0 | 4 | 5.2 |
| 30대 | 53 | 17.7 | 17 | 22.1 |
| 40대 | 56 | 18.7 | 25 | 32.5 |
| 50대 | 62 | 20.7 | 14 | 18.2 |
| 60대 이상 | 75 | 25.0 | 17 | 22.1 |
| 전체 | 300 | 100.0 | 77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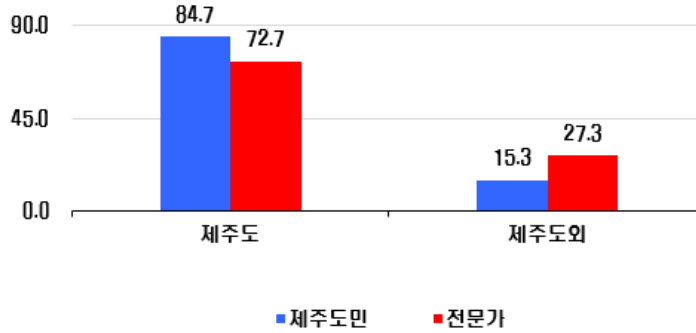


- 제주도민은 '20대' 54명(18.0%), '30대' 53명(17.7%), '40대' 56명(18.7%), '50대' 62명(20.7%), '60대 이상' 75명(25.0%)으로 구성됨
- 전문가는 '20대' 4명(5.2%), '30대' 17명(22.1%), '40대' 25명(32.5%), '50대' 14명(18.2%), '60대 이상' 17명(22.1%)으로 구성됨

3. 고향

| 성별 | 제주도민 | | 전문가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제주도 | 254 | 84.7 | 56 | 7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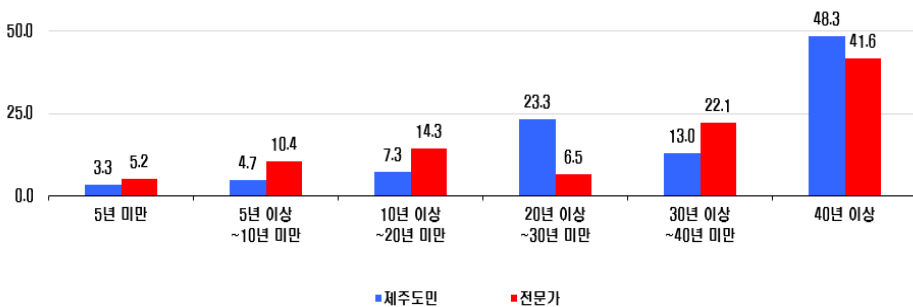
| | | | | |
|------|-----|-------|----|-------|
| 제주도외 | 46 | 15.3 | 21 | 27.3 |
| 전체 | 300 | 100.0 | 77 | 100.0 |



- 제주도민은 ‘제주도’ 254명(84.7%), ‘제주도외’ 46명(15.3%)으로 구성됨
- 전문가는 ‘제주도’ 56명(72.7%), ‘제주도외’ 21명(27.3%)으로 구성됨

4. 제주도 거주기간

| 구분 | 제주도민 | | 전문가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5년 미만 | 10 | 3.3 | 4 | 5.2 |
| 5년 이상~10년 미만 | 14 | 4.7 | 8 | 10.4 |
| 10년 이상~20년 미만 | 22 | 7.3 | 11 | 14.3 |
| 20년 이상~30년 미만 | 70 | 23.3 | 5 | 6.5 |
| 30년 이상~40년 미만 | 39 | 13.0 | 17 | 22.1 |
| 40년 이상 | 145 | 48.3 | 32 | 41.6 |
| 전체 | 300 | 100.0 | 77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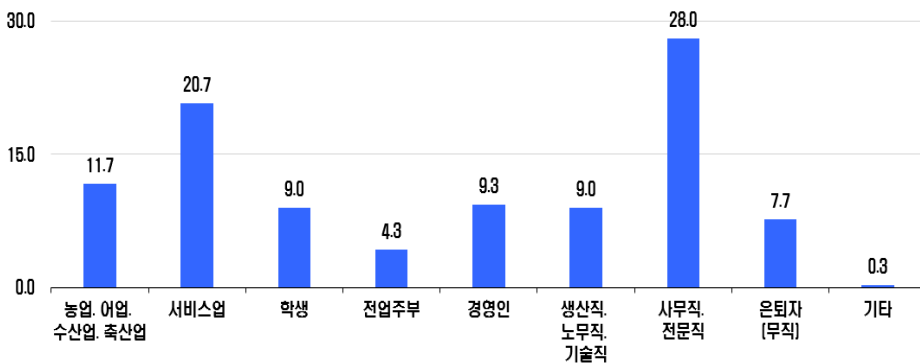
- 제주도민은 ‘5년 미만’ 10명(3.3%), ‘5년 이상~10년 미만’ 14명(4.7%), ‘10년 이

상~20년 미만' 22명(7.3%), '20년 이상~30년 미만' 70명(23.3%), '30년 이상~40년 미만' 39명(13.0%), '40년 이상' 145명(48.3%)으로 구성됨

□ 전문가는 '5년 미만' 4명(5.2%), '5년 이상~10년 미만' 8명(10.4%), '10년 이상~20년 미만' 11명(14.3%), '20년 이상~30년 미만' 5명(6.5%), '30년 이상~40년 미만' 17명(22.1%), '40년 이상' 32명(41.6%)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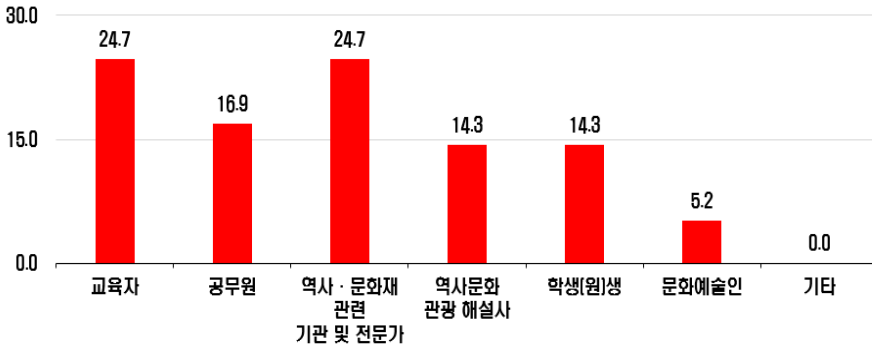
5. 직업

| 구분 | 제주도민 | | 구분 | 전문가 | |
|------------------|-------|-------|--------------------------|-------|-------|
| | 빈도(명) | 비율(%) | | 빈도(명) | 비율(%) |
| 농업·어업·수산업·축산업 | 35 | 11.7 | 교육자(교수, 교사, 강사 등 /전직 포함) | 19 | 24.7 |
| 서비스업 | 62 | 20.7 | | | |
| 학생 | 27 | 9.0 | 공무원(교육, 행정, 학예/전직 포함) | 13 | 16.9 |
| 전업주부 | 13 | 4.3 | | | |
| 경영인(음식점/학원/회사 등) | 28 | 9.3 | 역사·문화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 19 | 24.7 |
| 생산직·노무직·기술직 | 27 | 9.0 | 역사문화 관광 해설사 | 11 | 14.3 |
| 사무직·전문직 | 84 | 28.0 | 학생(원)생 | 11 | 14.3 |
| 은퇴자(무직) | 23 | 7.7 | 문화예술인 | 4 | 5.2 |
| 기타 | 1 | 0.3 | 기타 | 0 | 0.0 |
| 전체 | 300 | 100.0 | 전체 | 77 | 100.0 |



□ 제주도민은 '농업·어업·수산업·축산업' 35명(11.7%), '서비스업' 62명(20.7%), '학생' 27명(9.0%), '전업주부' 13명(4.3%), '경영인' 28명(9.3%), '생산직·노무직·기술직' 27명(9.0%), '사무직·전문직' 84명(28.0%), '은퇴자(무직)' 23명(7.7%), '기타' 1명

(0.3%)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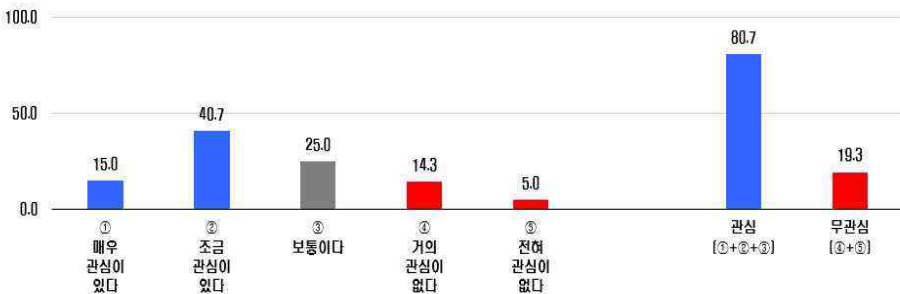
□ 전문가는 ‘교육자’ 19명(24.7%), ‘공무원’ 13명(16.9%), ‘역사·문화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19명(24.7%), ‘역사문화 관광 해설사’ 11명(14.3%), ‘학생(원)생’ 11명(14.3%), ‘문화예술인’ 4명(5.2%)으로 구성됨

II. 제주 역사 관심도 및 조례·정책

1. 제주 역사 관심도

(단위 : 명(%))

| 내용 | | 제주도민 (N=300) | | |
|-------------|-----------|--------------|------|-----------|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 관심(①+②+③) | 45 | 15.0 | 242(80.7) |
| ② 조금 관심이 있다 | | 122 | 40.7 | |
| ③ 보통이다 | | 75 | 25.0 | |
| ④ 거의 관심이 없다 | 무관심(④+⑤) | 43 | 14.3 | 58(19.3) |
| ⑤ 전혀 관심이 없다 | | 15 | 5.0 | |
| 평점(점) | | 3.4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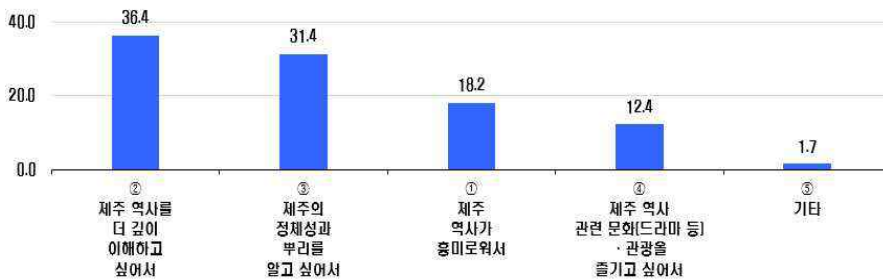


□ 『제주도민_제주 역사 관심도』에 대한 응답 결과 ‘관심① 매우 관심이 있다+② 조금 관심이 있다+③ 보통이다’ 응답이 242명(80.7%)으로 ‘무관심④ 거의 관심이 없다+⑤ 전혀 관심이 없다’ 응답 58명(19.3%)보다 높게 나타남. 평점은 3.46점으로 평가 됨

1_1. 제주 역사 관심 이유

(단위 : 명(%))

| 내용 | 제주도민 (N=242) | |
|----------------------------------|--------------|------|
| ① 제주 역사가 흥미로워서 | 44 | 18.2 |
| ② 제주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 88 | 36.4 |
| ③ 제주의 정체성과 뿌리를 알고 싶어서 | 76 | 31.4 |
| ④ 제주 역사 관련 문화(드라마 등)·관광을 즐기고 싶어서 | 30 | 12.4 |
| ⑤ 기타 | 4 | 1.7 |



□ 『제주도민_제주 역사 관심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제주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응답이 88명(36.4%)으로 가장 높고, ‘제주의 정체성과 뿌리를 알고 싶어서’ 응답 76명(31.4%), ‘제주 역사가 흥미로워서’ 응답 44명(18.2%), ‘제주 역사 관련 문화(드라마 등)·관광을 즐기고 싶어서’ 응답 30명(12.4%) 순으로 높게 나타남

1_2. 제주 역사 무관심 이유

(단위 : 명(%))

| 내용 | 제주도민 (N=58) | |
|------------------------------------|-------------|------|
| ① 제주 역사가 어렵게 느껴져서 | 2 | 3.4 |
| ②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느껴져서 | 20 | 34.5 |
| ③ 제주 역사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 기회가 적어서 | 16 | 27.6 |
| ④ 흥미롭고 매력적인 콘텐츠(책, 영상, 전시 등)가 부족해서 | 10 | 17.2 |
| ⑤ 다른 분야에 더 관심이 많아서 | 9 | 15.5 |
| ⑥ 기타 | 1 | 1.7 |

□ 『제주도민_제주 역사 무관심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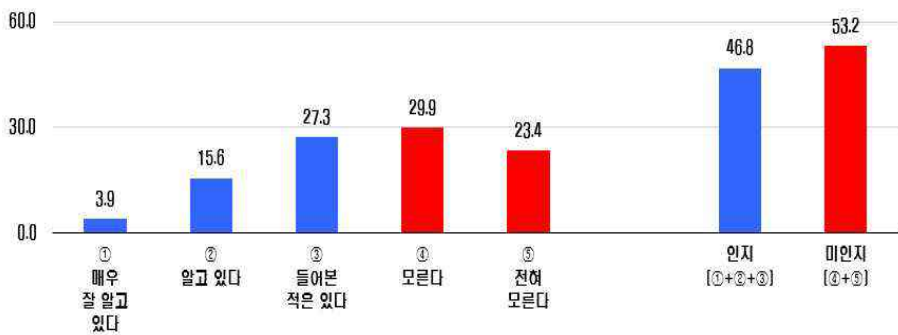
느껴져서’ 응답이 20명(34.5%)으로 가장 높고, ‘제주 역사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 기회가 적어서’ 응답 16명(27.6%), ‘흥미롭고 매력적인 콘텐츠(책, 영상, 전시 등)가 부족해서’ 응답 10명(17.2%), ‘다른 분야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응답 9명(15.5%) 순으로 높게 나타남



2. 2025년‘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인지도

(단위 : 명(%))

| 내용 | | 전문가 (N=77) | | |
|--------------|-----------|------------|------|----------|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인지(①+②+③) | 3 | 3.9 | 36(46.8) |
| ② 알고 있다 | | 12 | 15.6 | |
| ③ 들어본 적은 있다 | | 21 | 27.3 | |
| ④ 모른다 | 미인지(④+⑤) | 23 | 29.9 | 41(53.2) |
| ⑤ 전혀 모른다 | | 18 | 23.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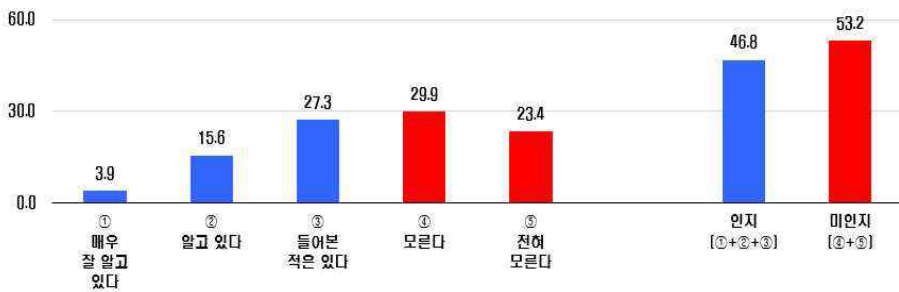


□ 『전문가_2025년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인지도』에 대한 응답 결과 ‘미인지(④ 모른다+⑤ 전혀 모른다)’ 응답이 41명(53.2%)으로 ‘인지(① 매우 잘 알고 있다+② 알고 있다+③ 들어본 적은 있다)’ 응답 36명(46.8%)보다 높게 나타남

3. 본인 제주 역사 지식수준

(단위 : 명(%))

| 내용 | | 제주도민 (N=300) | | |
|---------------|---------|--------------|------|-----------|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높음(①+②) | 2 | 0.7 | 106(35.3) |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 104 | 34.7 | |
| ③ 보통이다 | 보통(③) | 126 | 42.0 | 126(42.0) |
| ④ 거의 모른다 | 낮음(④+⑤) | 62 | 20.7 | 68(22.7) |
| ⑤ 전혀 모른다 | | 6 | 2.0 | |
| 평점(점) | | 3.1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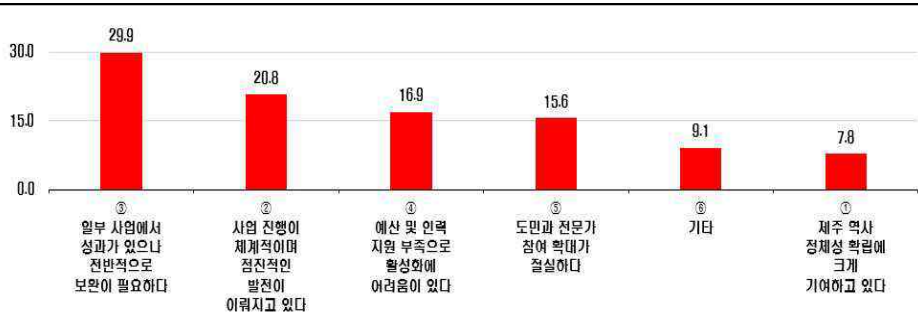


□ 『제주도민_본인 제주 역사 지식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 높음(① 매우 잘 알고 있다+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응답이 106명(35.3%)으로 '낮음(④ 거의 모른다+⑤ 전혀 모른다)' 응답 68명(22.7%)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응답은 126명(42.0%)으로 조사됨. 평점은 3.11점으로 평가됨

4.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사 관련 사업 평가

(단위 : 명(%))

| 내용 | 전문가 (N=77) | |
|----------------------------------|------------|------|
| ① 제주 역사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6 | 7.8 |
| ② 사업 진행이 체계적이며 점진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 16 | 20.8 |
| ③ 일부 사업에서 성과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 23 | 29.9 |
| ④ 예산 및 인력 지원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 13 | 16.9 |
| ⑤ 도민과 전문가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 | 12 | 15.6 |
| ⑥ 기타 | 7 | 9.1 |



□ 『전문가_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사 관련 사업 평가』에 대한 응답 결과, ‘일부 사업에서 성과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응답이 23명(29.9%)으로 가장 높고, ‘사업 진행이 체계적이며 점진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응답 16명(20.8%), ‘예산 및 인력 지원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응답 13명(16.9%), ‘도민과 전문가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 응답 12명(15.6%) 순으로 높게 나타남

5. 제주 역사 진흥을 위해 관련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단위 : 명(%))

| 내용 | 전문가 (N=77) | |
|-----------------------------------|------------|------|
| ①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빙 및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 34 | 44.2 |
| ② 지역사 교육·체험 프로그램 정책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 11 | 14.3 |
| ③ 제주 역사 연구 프로젝트 활성화 및 지원 강화 | 16 | 20.8 |
| ④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역사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 8 | 10.4 |
| ⑤ 교육 현장과의 연계 강화 | 4 | 5.2 |
| ⑥ 기타 | 4 | 5.2 |



□ 『전문가_제주 역사 진흥을 위해 관련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응답 결과,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빙 및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응답이 34명(44.2%)으

로 가장 높고, ‘제주 역사 연구 프로젝트 활성화 및 지원 강화’ 응답 16명(20.8%), ‘지역사 교육·체험 프로그램 정책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응답 11명(14.3%),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역사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응답 8명(1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6_1. 제주 역사에서 관심 있는 주제어

6_2. 제주 역사 관련 사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어

(단위 : 명(%))

| 주제어 내용 (상위 5개) | 제주도민 (N=1,252) | | 주제어 내용 (상위 5개) | 전문가 (N=313) | |
|-------------------|-------------------|------|-------------------|----------------|-----|
| 해녀 | 177 | 14.1 | 탐라 | 25 | 8.0 |
| 4·3 | 148 | 11.8 | 마을사 | 21 | 6.7 |
| 탐라 | 144 | 11.5 | 해녀 | 20 | 6.4 |
| 유배 | 123 | 9.8 | 4·3 | 19 | 6.1 |
| 제주어 | 49 | 3.9 | 유배 | 17 | 5.4 |

□ 『제주도민_제주 역사에서 관심 있는 주제어』에 대한 응답 결과, ‘해녀’ 응답이 177명(14.1%), ‘4·3’ 응답이 148명(11.8%), ‘탐라’ 응답 144명(11.5%), ‘유배’ 응답이 123명(9.8%), ‘제주어’ 응답이 49명(3.9%) 순으로 높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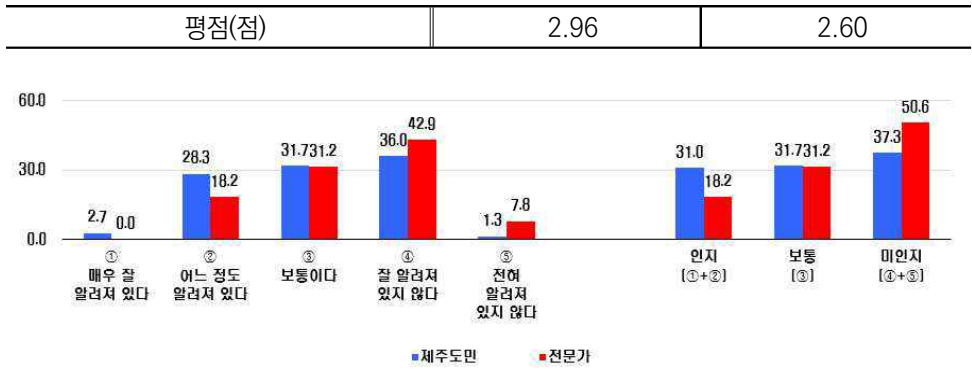
□ 『전문가_제주 역사 관련 사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어』에 대한 응답 결과, ‘탐라’ 응답이 25명(8.0%), ‘마을사’ 응답이 21명(6.7%), ‘해녀’ 응답 20명(6.4%), ‘제주 4·3’ 응답이 19명(6.1%), ‘유배’ 응답이 17명(5.4%) 순으로 높게 조사됨

III. 제주 역사 인식·참여

7. 제주 역사 국내(도내·도외 포함) 인지도

(단위 : 명(%))

| 내용 | | 제주도민 (N=300) | | | 전문가 (N=77) | | |
|----------------|-------|--------------|------|-----------|------------|------|----------|
| ① 매우 잘 알려져 있다 | 인지 | 8 | 2.7 | 93(31.0) | 0 | 0.0 | 14(18.2) |
| ②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 (①+②) | 85 | 28.3 | | 14 | 18.2 | |
| ③ 보통이다 | 보통(③) | 95 | 31.7 | 95(31.7) | 24 | 31.2 | 24(31.2) |
| ④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미인지 | 108 | 36.0 | 112(37.3) | 33 | 42.9 | 39(50.6) |
| ⑤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 (④+⑤) | 4 | 1.3 | | 6 | 7.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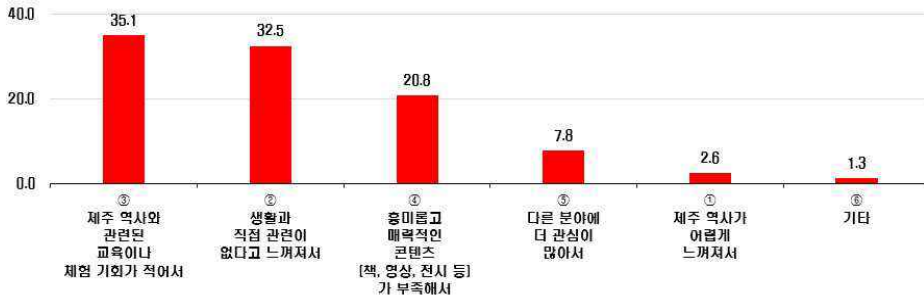
□ 『제주도민_제주 역사 국내(도내·도외 포함) 인지도』에 대한 응답 결과, ‘미인지(④ 잘 알려져 있지 않다+⑤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응답이 112명(37.3%)으로, ‘인지(① 매우 잘 알려져 있다+②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응답 93명(31.0%)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응답은 95명(31.7%)으로 조사됨. 평점은 2.96점으로 평가됨

□ 『전문가_제주 역사 국내(도내·도외 포함) 인지도』에 대한 응답 결과, ‘미인지(④ 잘 알려져 있지 않다+⑤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응답이 39명(50.6%)으로, ‘인지(① 매우 잘 알려져 있다+②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응답 14명(18.2%)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응답은 24명(31.2%)으로 조사됨. 평점은 2.60점으로 평가됨

8. 도민들이 제주 역사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요인

(단위 : 명(%))

| 내용 | 전문가 (N=77) | |
|------------------------------------|------------|------|
| ① 제주 역사가 어렵게 느껴져서 | 2 | 2.6 |
| ②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느껴져서 | 25 | 32.5 |
| ③ 제주 역사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 기회가 적어서 | 27 | 35.1 |
| ④ 흥미롭고 매력적인 콘텐츠(책, 영상, 전시 등)가 부족해서 | 16 | 20.8 |
| ⑤ 다른 분야에 더 관심이 많아서 | 6 | 7.8 |
| ⑥ 기타 | 1 | 1.3 |



□ 『전문가_도민들이 제주 역사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 ‘제주 역사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 기회가 적어서’ 응답이 27명(35.1%)으로 가장 높고,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느껴져서’ 응답 25명(32.5%), ‘흥미롭고 매력적인 콘텐츠 (책, 영상, 전시 등)가 부족해서’ 응답 16명(20.8%) 순으로 높게 나타남

9. 제주 역사 체계적 정리 수준

(단위 : 명(%))

| 내용 | | 제주도민 (N=300) | | | 전문가 (N=77) | | |
|---------------|--------------|--------------|------|---------------|------------|------|----------|
| ① 매우 잘 되어 있다 | 긍정적 (①+②) | 9 | 3.0 | 103 (34.3) | 1 | 1.3 | 22 |
| ② 어느 정도 되어 있다 | | 94 | 31.3 | | 21 | 27.3 | (28.6) |
| ③ 보통이다 | 보통(③) | 107 | 35.7 | 107(35.7) | 38 | 49.4 | 38(49.4) |
| ④ 거의 되어 있지 않다 | 부정적 (④+⑤) | 42 | 14.0 | 90(30.0) | 11 | 14.3 | 17 |
| ⑤ 잘 모르겠다 | | 48 | 16.0 | | 6 | 7.8 | (22.1) |
| 평점(점) | | 2.91 | | | 3.00 | | |



□ 『제주도민_제주 역사 체계적 정리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 ‘긍정적(① 매우 잘 되어 있다+②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응답이 103명(34.3%)으로, ‘부정적(④ 거의 되어 있지 않다+⑤ 잘 모르겠다)’ 응답 90명(30.0%)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응답은 107명 (35.7%)으로 조사됨. 평점은 2.91점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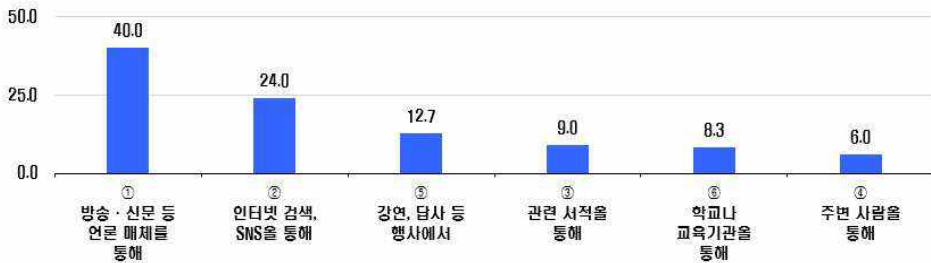
□ 『전문가_제주 역사 체계적 정리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 ‘긍정적(① 매우 잘 되어 있다+②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응답이 22명(28.6%)으로, ‘부정적(④ 거의 되어 있지 않다+⑤ 잘 모르겠다)’ 응답 17명(22.1%)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응답은 38명(49.4%)으로 조사됨. 평점은 3.00점으로 평가됨

10. 제주 역사 관련 정보 접근 경로

(단위 : 명(%))

| 내용 | 제주도민 (N=300) | |
|---------------------|--------------|------|
| ①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 120 | 40.0 |
| ② 인터넷 검색, SNS를 통해 | 72 | 24.0 |
| ③ 관련 서적을 통해 | 27 | 9.0 |
| ④ 주변 사람을 통해 | 18 | 6.0 |
| ⑤ 강연, 답사 등 행사에서 | 38 | 12.7 |
| ⑥ 학교나 교육기관을 통해 | 25 | 8.3 |

□ 『제주도민_제주 역사 관련 정보 접근 경로』에 대한 응답 결과,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응답이 120명(40.0%)으로 가장 높고, ‘인터넷 검색, SNS를 통해’ 응답 72명(24.0%), ‘강연, 답사 등 행사에서’ 응답 38명(12.7%)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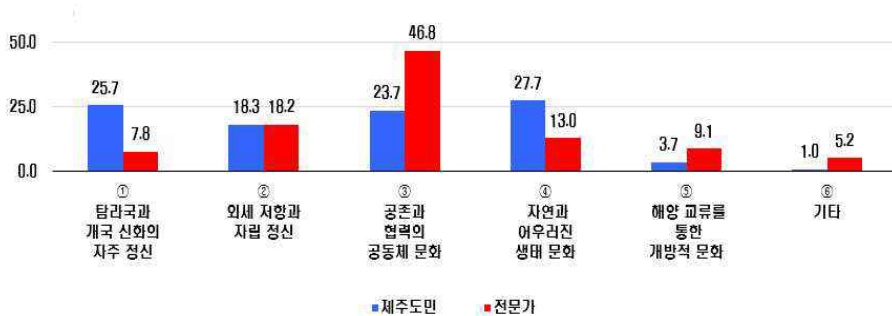
11. 제주 역사 학습이 도민 정체성 형성 도움 여부

(단위 : 명(%))

| 내용 | | 제주도민 (N=300) | | | 전문가 (N=77) | | |
|-------------|--------------|--------------|------|----------|------------|------|---------|
| ① 매우 그렇다 | 긍정적 (①+②) | 82 | 27.3 | 234 | 44 | 57.1 | 67 |
| ② 대체로 그렇다 | | 152 | 50.7 | (78.0) | 23 | 29.9 | (87.0) |
| ③ 보통이다 | 보통(③) | 55 | 18.3 | 55(18.3) | 8 | 10.4 | 8(10.4) |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부정적 (④+⑤) | 10 | 3.3 | 11(3.7) | 0 | 0.0 | 2(2.6)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 | 0.3 | | 2 | 2.6 | |
| 평점(점) | | 4.01 | | | 4.39 | | |



□ 『제주도민_제주 역사 학습이 도민 정체성 형성 도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긍정적(① 매우 그렇다+② 대체로 그렇다)’ 응답이 234명(78.0%)으로, ‘부정적(④ 별로 그렇지 않다+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11명(3.7%)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응답은 55명(18.3%)으로 조사됨. 평점은 4.01점으로 평가됨



□ 『전문가_제주 역사 학습이 도민 정체성 형성 도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긍정적 (① 매우 그렇다+② 대체로 그렇다)’ 응답이 67명(87.0%)으로, ‘부정적(④ 별로 그렇지 않다+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2명(2.6%)보다 높게 나타남. ‘보통’ 응답은 8명 (10.4%)으로 조사됨. 평점은 4.39점으로 평가됨

12. 제주 역사의 정체성

| 내용 | (단위 : 명(%)) | | | |
|--------------------|--------------|------|-------------|------|
| | 제주도민 (N=300) | | 전문가 (N=577) | |
| ① 탐라국과 개국 신화의 자주정신 | 77 | 25.7 | 6 | 7.8 |
| ② 외세 저항과 자립정신 | 55 | 18.3 | 14 | 18.2 |
| ③ 공존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 | 71 | 23.7 | 36 | 46.8 |
| ④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 문화 | 83 | 27.7 | 10 | 13.0 |
| ⑤ 해양 교류를 통한 개방적 문화 | 11 | 3.7 | 7 | 9.1 |
| ⑥ 기타 | 3 | 1.0 | 4 | 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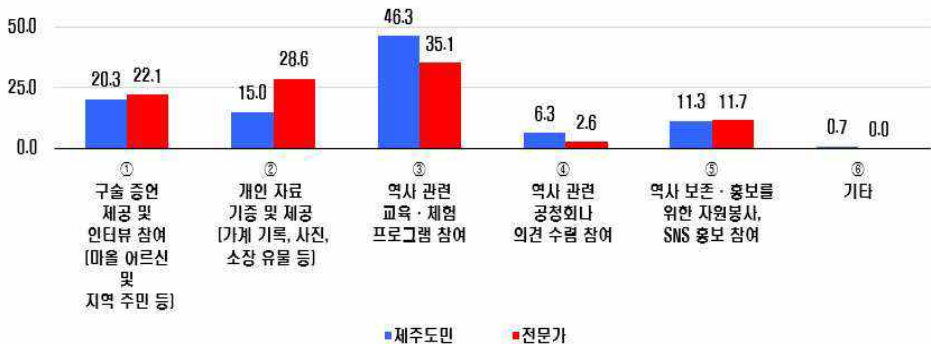
□ 『제주도민_제주 역사의 정체성』에 대한 응답 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 문화’ 응답이 83명(27.7%)으로 가장 높고, ‘탐라국과 개국 신화의 자립정신’ 응답 77명(25.7%), ‘공존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 응답 71명(23.7%), ‘외세 저항과 자립정신’ 응답 55명(1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_제주 역사의 정체성』에 대한 응답 결과, ‘공존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 응답이 36명(46.8%)으로 가장 높고, ‘외세 저항과 자립정신’ 응답 14명(18.2%),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 문화’ 응답 10명(13.0%) 순으로 높게 나타남

13. 제주 역사 진흥을 위한 도민 참여 방법

(단위 : 명(%))

| 내용 | 제주도민 (N=300) | | 전문가 (N=77) | |
|---------------------------------------|--------------|------|------------|------|
| ① 구술 증언 제공 및 인터뷰 참여(마을 어르신 및 지역 주민 등) | 61 | 20.3 | 17 | 22.1 |
| ② 개인 자료 기증 및 제공(가계 기록, 사진, 소장 유물 등) | 45 | 15.0 | 22 | 28.6 |
| ③ 역사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 139 | 46.3 | 27 | 35.1 |
| ④ 역사 관련 공청회나 의견 수렴 참여 | 19 | 6.3 | 2 | 2.6 |
| ⑤ 역사 보존·홍보를 위한 자원봉사, SNS 홍보 참여 | 34 | 11.3 | 9 | 11.7 |
| ⑥ 기타 | 2 | 0.7 | 0 | 0.0 |



□ 『제주도민_제주 역사 진흥을 위한 도민 참여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역사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응답이 139명(46.3%)으로 가장 높고, ‘구술 증언 제공 및 인터뷰 참여(마을 어르신 및 지역 주민 등)’ 응답 61명(20.3%), ‘개인 자료 기증 및 제공(가계 기록, 사진, 소장 유물 등)’ 응답 45명(15.0%), ‘역사 보존·홍보를 위한 자원봉사, SNS 홍보 참여’ 응답 34명(11.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_제주 역사 진흥을 위한 도민 참여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 역사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응답이 27명(35.1%)으로 가장 높고, '개인 자료 기증 및 제공 (가계 기록, 사진, 소장 유물 등)' 응답 22명(28.6%), '구술 증언 제공 및 인터뷰 참여(마을 어르신 및 지역 주민 등)' 응답 17명(22.1%), '역사 보존·홍보를 위한 자원봉사, SNS 홍보 참여' 응답 9명(11.7%) 순으로 높게 나타남

IV. 제주 역사 과제 우선순위 및 고려 사항과 필요지원

14. 우선 추진 제주 역사 과제

(단위 : 명(%))

| 내용 | 구분 | 제주도민 (N=300) | | | | | | | | | |
|-----------------------------|-----|--------------|------|-----|------|-----|------|-----|------|-----|------|
| | | 전문가 (N=77) | | | |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5순위 | |
| ① 제주 역사 기록과 자료의 조사·수집 | 도민 | 193 | 64.3 | 52 | 17.3 | 30 | 10.0 | 16 | 5.3 | 9 | 3.0 |
| | 전문가 | 61 | 79.2 | 7 | 9.1 | 3 | 3.9 | 5 | 6.5 | 1 | 1.3 |
| ② 제주 유·무형 유산 발굴 및 활용 기반 마련 | 도민 | 35 | 11.7 | 109 | 36.3 | 76 | 25.3 | 52 | 17.3 | 28 | 9.3 |
| | 전문가 | 7 | 9.1 | 29 | 37.7 | 19 | 24.7 | 9 | 11.7 | 13 | 16.9 |
| ③ 제주 역사 연구 관련 서적 편찬 | 도민 | 13 | 4.3 | 55 | 18.3 | 94 | 31.3 | 79 | 26.3 | 59 | 19.7 |
| | 전문가 | 2 | 2.6 | 27 | 35.1 | 20 | 26.0 | 20 | 26.0 | 8 | 10.4 |
| ④ 제주 역사 교육 확대와 대중 홍보 강화 | 도민 | 43 | 14.3 | 57 | 19.0 | 59 | 19.7 | 98 | 32.7 | 43 | 14.3 |
| | 전문가 | 9 | 11.7 | 11 | 14.3 | 20 | 26.0 | 26 | 33.8 | 11 | 14.3 |
| ⑤ 제주 역사 연구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 도민 | 17 | 5.7 | 27 | 9.0 | 42 | 14.0 | 56 | 18.7 | 158 | 52.7 |
| | 전문가 | 4 | 5.2 | 6 | 7.8 | 15 | 19.5 | 17 | 22.1 | 35 | 45.5 |



□ 『제주도민_우선 추진 제주 역사 과제_1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 ‘제주 역사 기록과 자료의 조사·수집’ 응답이 193명(64.3%)으로 가장 높고, ‘제주 역사 교육 확대와 대중 홍보 강화’ 응답 43명(14.3%), ‘제주 유·무형 유산 발굴 및 활용 기반 마련’ 응답 35명(11.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_우선 추진 제주 역사 과제_1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 ‘제주 역사 기록과 자료의 조사·수집’ 응답이 61명(79.2%)으로 가장 높고, ‘제주 역사 교육 확대와 대중 홍보 강화’ 응답 9명(11.7%), ‘제주 유·무형 유산 발굴 및 활용 기반 마련’ 응답 7명(9.1%) 순으로 높게 나타남

14_1. 우선순위 선택 이유

(단위 : 명(%))

| 내용 | 제주도민 (N=300) | | 전문가 (N=77) | |
|-------------------------------------|--------------|------|------------|------|
| ① 제주 역사 보존과 전승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 98 | 32.7 | 16 | 20.8 |
| ② 앞으로 연구와 교육의 기초가 되는 기반 사업이어서 | 66 | 22.0 | 28 | 36.4 |
| ③ 현재 부족하거나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느껴서 | 44 | 14.7 | 8 | 10.4 |
| ④ 제주 정체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 61 | 20.3 | 16 | 20.8 |
| ⑤ 제주사회와 후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 30 | 10.0 | 6 | 7.8 |
| ⑥ 기타 | 1 | 0.3 | 3 | 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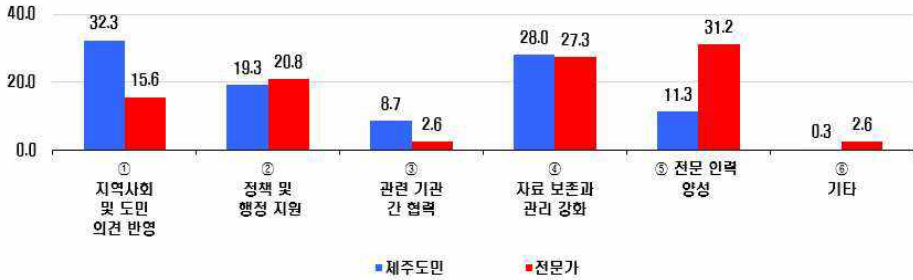
□ 『제주도민_우선순위 선택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제주 역사 보존과 전승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응답이 98명(32.7%)으로 가장 높고, ‘앞으로 연구와 교육의 기초가 되는 기반 사업이어서’ 응답 66명(22.0%), ‘제주 정체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응답 61명(20.3%), ‘현재 부족하거나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느껴서’ 응답 44명(14.7%), ‘제주사회와 후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응답 30명(1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_우선순위 선택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앞으로 연구와 교육의 기초가 되는 기반 사업이어서’ 응답이 28명(36.4%)으로 가장 높고, ‘제주 역사 보존과 전승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응답 16명(20.8%)과, ‘제주 정체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응답 16명(20.8%), ‘현재 부족하거나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느껴서’ 응답 8명(1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15. 제주 역사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단위 : 명(%))

| 내용 | 제주도민 (N=300) | | | | | | 전문가 (N=77) | |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지역사회 및 도민 의견 반영 | 97 | 32.3 | 48 | 16.0 | 50 | 16.7 | 12 | 15.6 | 2 | 2.6 | 6 | 7.8 |
| ② 정책 및 행정 지원 | 58 | 19.3 | 93 | 31.0 | 74 | 24.7 | 16 | 20.8 | 15 | 19.5 | 21 | 27.3 |
| ③ 관련 기관 간 협력 | 26 | 8.7 | 47 | 15.7 | 75 | 25.0 | 2 | 2.6 | 13 | 16.9 | 15 | 19.5 |
| ④ 자료 보존과 관리 강화 | 84 | 28.0 | 58 | 19.3 | 52 | 17.3 | 21 | 27.3 | 26 | 33.8 | 12 | 15.6 |
| ⑤ 전문 인력 양성 | 34 | 11.3 | 54 | 18.0 | 49 | 16.3 | 24 | 31.2 | 21 | 27.3 | 18 | 23.4 |
| ⑥ 기타 | 1 | 0.3 | 0 | 0.0 | 0 | 0.0 | 2 | 2.6 | 0 | 0.0 | 5 | 6.5 |



□ 『제주도민_우선 추진 제주 역사 과제_1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 ‘지역사회 및 도민 의견 반영’ 응답이 97명(32.3%)으로 가장 높고, ‘자료 보존과 관리 강화’ 응답 84명(28.0%), ‘정책 및 행정 지원’ 응답이 58명(19.3%), ‘전문 인력 양성’ 응답이 34명(11.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_우선 추진 제주 역사 과제_1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 ‘전문 인력 양성’ 응답이 24명(31.2%)으로 가장 높고, ‘자료 보존과 관리 강화’ 응답 21명(27.3%), ‘정책 및 행정 지원’ 응답이 16명(20.8%), ‘지역사회 및 도민 의견 반영’ 응답이 12명(15.6%) 순으로 높게 나타남

16. 제주 역사 진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장 기대되는 효과

(단위 : 명(%))

| 내용 | 전문가 (N=77) | |
|------------------------------------|------------|------|
| ① 제주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 | 15 | 19.5 |
| ② 제주의 역사 자원이 관광 자원으로 확장되어 지역경제에 기여 | 11 | 14.3 |
| ③ 청소년과 청년 세대 중심의 참여형 역사 교육 프로그램 정착 | 5 | 6.5 |
| ④ 제주 역사의 가치와 의미가 국내외 확산·재조명 | 34 | 44.2 |
| ⑤ 미발굴 또는 미정리된 역사의 재정립 | 11 | 14.3 |
| ⑥ 기타 | 1 | 1.3 |



- 『전문가_제주 역사 진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장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응답 결과, ‘제주 역사의 가치와 의미가 국내외 확산·재조명’ 응답이 34명(44.2%)으로 가장 높고, ‘제주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 응답 15명(19.5%), ‘제주의 역사 자원이 관광 자원으로 확장되어 지역경제에 기여’ 응답 11명(14.3%)과, ‘미발굴 또는 미정리된 역사의 재정립’ 응답 11명(1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V. 제주 역사 기록 수집 및 유산 발굴

17. 제주 역사 기록(문헌·사진·증언 등)을 수집할 때, 우선 수집이 필요한 자료

(단위 : 명(%))

| 내용 | 제주도민 (N=300) | | 전문가 (N=77) | |
|--------------------------|--------------|------|------------|------|
| ① 마을·지역단체(마을위원회 등) 소장 자료 | 113 | 37.7 | 28 | 36.4 |
| ② 공공기관·교육기관 소장 자료 | 53 | 17.7 | 11 | 14.3 |
| ③ 개인·가문 소장 자료(족보, 고문서 등) | 70 | 23.3 | 17 | 22.1 |
| ④ 국내 다른 지역에 소장된 제주 자료 | 53 | 17.7 | 13 | 16.9 |
| ⑤ 해외에 소장된 제주 자료 | 11 | 3.7 | 7 | 9.1 |
| ⑥ 기타 | 0 | 0.0 | 1 | 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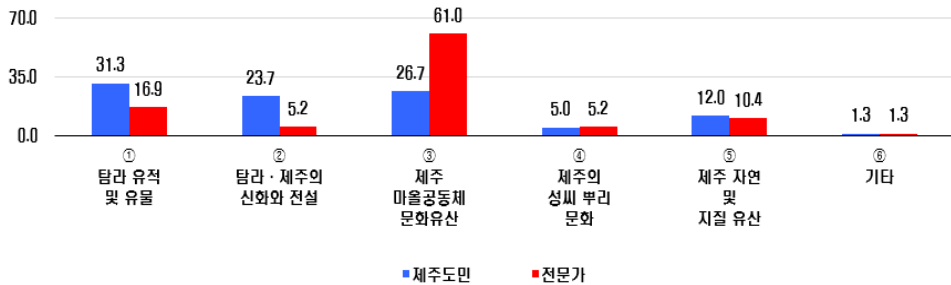
- 『제주도민_제주 역사 기록(문헌·사진·증언 등)을 수집할 때, 우선 수집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응답 결과, ‘마을·지역단체(마을위원회 등) 소장 자료’ 응답이 113명(37.7%)으로 가장 높고, ‘개인·가문 소장 자료(족보, 고문서 등)’ 응답 70명(23.3%), ‘공공기관·교육기관 소장 자료’ 응답 53명(17.7%)과 ‘국내 다른 지역에 소장된 제주 자료’ 응답 53명(17.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_제주 역사 기록(문헌·사진·증언 등)을 수집할 때, 우선 수집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응답 결과, ‘마을·지역단체(마을위원회 등) 소장 자료’ 응답이 28명(36.4%)으로 가장 높고, ‘개인·가문 소장 자료(족보, 고문서 등)’ 응답 17명(22.1%), ‘국내 다른 지역에 소장된 제주 자료’ 응답 13명(16.9%), ‘공공기관·교육기관 소장 자료’ 응답 11명(1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18. 제주 역사 유·무형 유산의 발굴과 활용을 위해 최우선 조사가 필요한 분야

(단위 : 명(%))

| 내용 | 제주도민 (N=300) | | 전문가 (N=77) | |
|-----------------|--------------|------|------------|------|
| ① 탐라 유적 및 유물 | 94 | 31.3 | 13 | 16.9 |
| ② 탐라·제주의 신화와 전설 | 71 | 23.7 | 4 | 5.2 |
| ③ 제주 마을공동체 문화유산 | 80 | 26.7 | 47 | 61.0 |
| ④ 제주의 성씨 뿌리 문화 | 15 | 5.0 | 4 | 5.2 |
| ⑤ 제주 자연 및 지질 유산 | 36 | 12.0 | 8 | 10.4 |
| ⑥ 기타 | 4 | 1.3 | 1 | 1.3 |



□ 『제주도민_제주 역사 유·무형 유산의 발굴과 활용을 위해 최우선 조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응답 결과, ‘탐라 유적 및 유물’ 응답이 94명(31.3%)으로 가장 높고, ‘제주 마을공동체 문화유산’ 응답 80명(26.7%), ‘탐라·제주의 신화와 전설’ 응답 71명(23.7%), ‘제주 자연 및 지질 유산’ 응답 36명(12.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_제주 역사 유·무형 유산의 발굴과 활용을 위해 최우선 조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응답 결과, ‘제주 마을공동체 문화유산’ 응답이 47명(61.0%)으로 가장 높고, ‘탐라 유적 및 유물’ 응답 13명(16.9%), ‘제주 자연 및 지질 유산’ 응답 8명(1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Ⅵ. 제주 역사 서적 편찬

19. 제주 역사를 알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사서적

(단위 : 명(%))

| 내용 | 제주도민 (N=300) | | 전문가 (N=77) | |
|-----------------------|--------------|------|------------|------|
| ① 주제별로 집성한 제주 역사 사전 | 60 | 20.0 | 16 | 20.8 |
| ② 2천 년 제주 역사를 아우르는 통사 | 39 | 13.0 | 7 | 9.1 |

| | | | | |
|-------------------------|-----|------|----|------|
| ③ 일반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역사서 | 159 | 53.0 | 43 | 55.8 |
| ④ 제주 주요 인물사 연구서 | 8 | 2.7 | 0 | 0.0 |
| ⑤ 제주 역사 옛 문서의 번역 및 해설서 | 34 | 11.3 | 11 | 14.3 |
| ⑥ 기타 | 0 | 0.0 | 0 | 0.0 |

□ 『제주도민_제주 역사를 알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사서적』에 대한 응답 결과, ‘일반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역사서’ 응답이 159명(53.0%)으로 가장 높고, ‘주제별로 집성한 제주 역사 사전’ 응답 60명(20.0%), ‘2천 년 제주 역사를 아우르는 통사’ 응답 39명(13.0%), ‘제주 역사 옛 문서의 번역 및 해설서’ 응답 34명(11.3%)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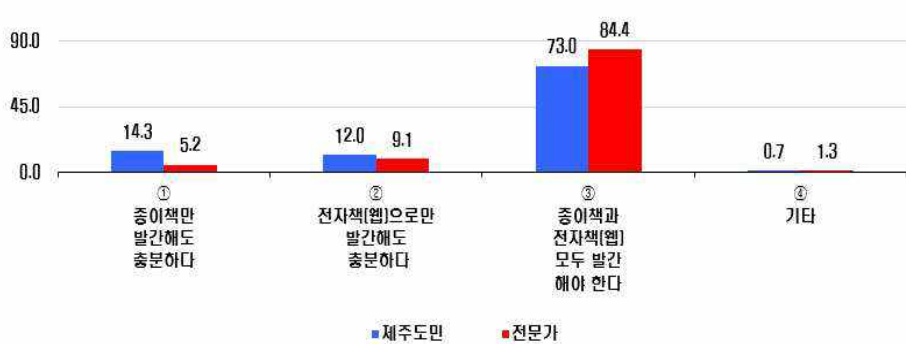
□ 『전문가_제주 역사를 알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사서적』에 대한 응답 결과, ‘일반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역사서’ 응답이 43명(55.8%)으로 가장 높고, ‘주제별로 집성한 제주 역사 사전’ 응답 16명(20.8%), ‘제주 역사 옛 문서의 번역 및 해설서’ 응답 11명(1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 가장 바람직한 제주 역사 관련 서적 발간 방식

(단위 : 명(%))

| 내용 | 제주도민 (N=300) | | 전문가 (N=77) | |
|--------------------------|--------------|------|------------|------|
| ① 종이책만 발간해도 충분하다 | 43 | 14.3 | 4 | 5.2 |
| ② 전자책(웹)으로만 발간해도 충분하다 | 36 | 12.0 | 7 | 9.1 |
| ③ 종이책과 전자책(웹) 모두 발간해야 한다 | 219 | 73.0 | 65 | 84.4 |
| ④ 기타 | 2 | 0.7 | 1 | 1.3 |

□ 『제주도민_가장 바람직한 제주 역사 관련 서적 발간 방식』에 대한 응답 결과, ‘종이책과 전자책(웹) 모두 발간해야 한다’ 응답이 219명(73.0%)으로 가장 높고, ‘종이책만 발간해도 충분하다’ 응답 43명(14.35%), ‘전자책(웹)으로만 발간해도 충분하다’ 응답 36명(12.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_가장 바람직한 제주 역사 관련 서적 발간 방식』에 대한 응답 결과, ‘종이책과 전자책(웹) 모두 발간해야 한다’ 응답이 65명(84.4%)으로 가장 높고, ‘전자책(웹)으로만 발간해도 충분하다’ 응답 7명(9.1%), ‘종이책만 발간해도 충분하다’ 응답 4명(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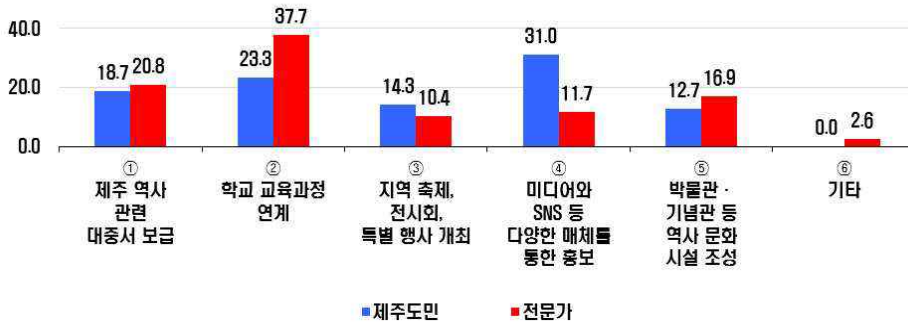
Ⅶ. 제주 역사 교육·홍보 및 교류

21. 제주 역사 교육하고 홍보시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명(%))

| 내용 | 제주도민 (N=300) | | 전문가 (N=77) | |
|----------------------------|--------------|------|------------|------|
| ① 제주 역사 관련 대중서 보급 | 56 | 18.7 | 16 | 20.8 |
| ② 학교 교육과정 연계 | 70 | 23.3 | 29 | 37.7 |
| ③ 지역 축제, 전시회, 특별 행사 개최 | 43 | 14.3 | 8 | 10.4 |
| ④ 미디어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93 | 31.0 | 9 | 11.7 |
| ⑤ 박물관·기념관 등 역사 문화 시설 조성 | 38 | 12.7 | 13 | 16.9 |
| ⑥ 기타 | 0 | 0.0 | 2 | 2.6 |

□ 『제주도민_제주 역사 교육하고 홍보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응답 결과, ‘미디어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응답이 93명(31.0%)으로 가장 높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응답 70명(23.3%), ‘제주 역사 관련 대중서 보급’ 응답 56명(18.7%), ‘지역 축제, 전시회, 특별 행사 개최’ 응답 43명(14.3%), ‘박물관·기념관 등 역사 문화 시설 조성’ 응답 38명(12.7%)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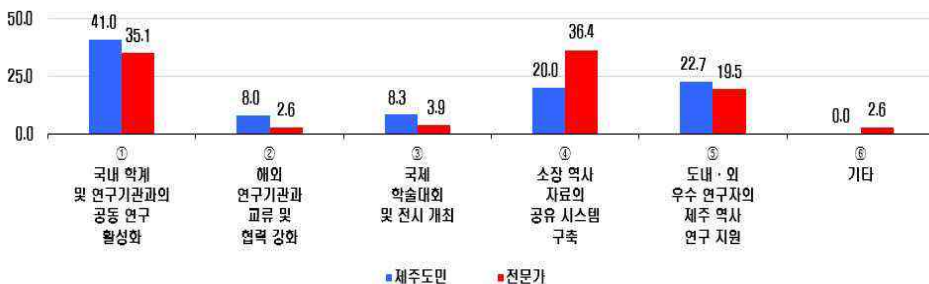


□ 『전문가_제주 역사 교육하고 홍보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응답 결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응답이 29명(37.7%), ‘제주 역사 관련 대중서 보급’ 응답 16명(20.8%), ‘박물관·기념관 등 역사 문화 시설 조성’ 응답 13명(16.9%), ‘미디어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응답 9명(11.7%), ‘지역 축제, 전시회, 특별 행사 개최’ 응답 8명(1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22. 제주 역사 연구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명(%))

| 내용 | 제주도민 (N=300) | | 전문가 (N=77) | |
|----------------------------|--------------|------|------------|------|
| ① 국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활성화 | 123 | 41.0 | 27 | 35.1 |
| ② 해외 연구기관과 교류 및 협력 강화 | 24 | 8.0 | 2 | 2.6 |
| ③ 국제 학술대회 및 전시 개최 | 25 | 8.3 | 3 | 3.9 |
| ④ 소장 역사 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 60 | 20.0 | 28 | 36.4 |
| ⑤ 도내·외 우수 연구자의 제주 역사 연구 지원 | 68 | 22.7 | 15 | 19.5 |
| ⑥ 기타 | 0 | 0.0 | 2 | 2.6 |



□ 『제주도민_제주 역사 연구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응답 결과, ‘국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활성화’ 응답이 123명(41.0%)으로 가장 높고, ‘도내·외 우수 연구자의 제주 역사 연구 지원’ 응답 68명(22.7%), ‘소장

역사 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응답 60명(2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_제주 역사 연구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응답 결과, '소장 역사 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응답이 28명(36.4%)으로 가장 높고, '국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활성화' 응답 27명(35.1%), '도내·외 우수 연구자의 제주 역사 연구 지원' 응답 15명(1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23. 제주 역사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자유 의견

제주도민 제안 내용

- 각 기관마다 제주 자료를 아카이브를 하고 있는 바, 기관을 통괄하고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담당할 제주자료관 설립가 필요함
- 역사를 간소하게 읽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교육 현장과의 연계나 관련 연구기관 간의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구축된 아카이브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이 필요함
- 국내외 제주역사 왜곡하지 말아 주시고, 특히 정치인들 이념적으로 제주를 왜곡하지 말기를 바람
-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제주 역사가 되었으면 함
-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해하기 쉬운 교육 과정과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체험 활동이 필요함
- 4·3 외의 역사도 알고 싶음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서를 통해 제주 향토 역사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 늦었지만, 제주 역사 사업이 잘 계획되고 실천되었으면 좋겠음
- 다양한 경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고 도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도시 곳곳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함
- 4·3 정신을 폄훼하는 사람들의 강력 법적 처벌이 필요함
- 다양한 분야의 제주 역사 연구과제 발굴과 지원체계가 필요함
-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내용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음

- 도민과 학생들에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많은 사람들이 제주 역사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갔으면 함
- 도민 교육 활성화가 필요함
- 쉽게 알 수 있게 역사 체험이 필요함
- 아카이빙을 잘하고 이를 이용한 일반인 교육에 힘쓰면 좋을 것 같음
- 애니메이션 제작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음
- 역사 관련 행사(컨벤션, 대중+전문 아우르는)가 있어 도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인문 로컬 페스티벌이 있으면 좋겠음
- 역사 관련된 교육이 필요함
- 역사 해설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함
- 역사관 등 기관 홍보 영상이 부실함
- 역사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제주 역사에 흥미와 관심이 생기게 되면 좋을 것 같음
- 역사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함
- 역사문화 유형 유산 관련 다양한 연구 조사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함
- 쉬운 역사책 발간을 원함
- 연구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함
- 연구도 연구지만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게끔 이를 알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홍보했으면 함
- 오랜 기간 독특한 신화, 유배역사, 저항 역사를 가진 곳곳한 기상을 기억하고 살려 나가기를 바램
- 도민들과 같이 연구해야 됨
- 유물, 유적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고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함
- 의문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전문인과의 통화, SNS 구축이 필요함
-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부족함
- 제주 신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이성을 갖고 있음. 웹툰과 영화로 나왔지만, 더 홍보돼서 제주의 신화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으면 함
- 제주 역사박물관에 역사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제주 역사가 아픈 역사가 아닌 밝고 무궁무진한 역사로 알려졌으면 함
- 제주 역사를 알기 쉽게 대중에게 설명하는 해설사를 육성, 활용하는 경우 제대로 교육시켜 왜곡된 제주역사(해설사의 주관적인 의견 등)를 설명하는 경우가 없기 바람
- 제주 역사를 제대로 다룬 미디어나 매체가 현저히 적어서, 제주에 놀러만 오는 관광객들은 사전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SNS나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제주 역사 중 중요한 몇 가지라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제주 역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가까이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좋을 것 같음.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함
- 제주 자체적인 역사 교육,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교과서에도 실어야 함
- 제주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주 역사를 널리 홍보 필요
- 제주 도내에서도 제주 역사 관심도가 부족하니 널리 알려졌으면 함
- 제주 역사의 언어유산(제주어)에 대한 책 편찬이 필요함
- 제주 역사에 대한 내용을 학교 교육에 반영해야 함
- 제주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발굴되고 전 세계에 퍼져야 한다고 생각함
- 제주 역사 자료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영상물로 제작했으면 좋겠음
- 제주 역사-한국 역사 연결고리 발견과 현대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을 통한 콘텐츠화가 가장 중요함
- 제주의 방언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필연적이라 생각함
- 제주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됨
- 제주의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주제를 정하여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주제별로 깊이 있는 학술연구 및 고증을 거쳐 대중에게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제주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제주 4,3의 세계화가 필요함
- 차세대 인력 양성이 시급함
- 난개발로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함
- 탐라국의 개국 역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음
- 탐라의 독립적 정체성을 더 깊이 조명해야 함
- 학교 교육에 제주 역사 관련 내용을 넣으면 학생들이 한 번쯤 생각할 만한 지점이 될 것이고, 또한 교사 재량에 따라 더 풍부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제주역사에 관한 지속적 의무교육과 학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장려되어야 함
-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제주 지역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하고 어릴 때부터 자기 출생지 혹은 고향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 홍보와 교육을 통한 도민의 동참을 유도해야 할 것임
- 제주 역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홍보 부족으로 고산리 등 제주 유적지에 대한 방문이 드문 것 같음
- 확실한 증거물 수집과 고증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추정이나 확실치 않은 개인의 생각은 배제해야 함
- 흩어져 있는 제주도 관련 역사 자료 발굴이 시급함

전문가 제안 내용

- 제주의 공적기관(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학연구센터,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박물관 등)이 먼저 제주 관련 연구논문이나 전문서 저술을 지원하고 발간해야 함
- 개인 독지가나 사설기관들이 제주 역사 관련 연구를 후원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음
- 제주 역사 전문인력과 재정 확충이 필요함
-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유명 역사 관련 유튜버와 협업해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

- 제주 역사를 주제로 한 흥미로운 웹툰을 제작함
- 제주 역사 관련 영화·연극 극본 공모 및 제작 지원, 영화제·연극제 등을 개최함
-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남아있음. 약간의 보상을 해서라도 구입하고 잘 관리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함
- 기존 정책에 따라 종속되지 않는 지속적 장기적 역사 연구 교육이 필요함
- 기존 박물관을 이용하여 흩어져 있는 제주 역사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집중화했으면 함
- 기초자료 구축에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함
- 다음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제주사 관련 내용을 대폭 확대해야 함
- 대중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제주 역사책(주제별 세트)이 발간되었으면 함
- 대중에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자료와 연구 활동에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
- 도내외 우수 연구자에 대한 학술 지원을 강화했으면 함
- 마을소장 마을문서, 개인과 가문소장 고문서 수집분석을 통한 제주 마을사, 기층민 역사 정립이 급선무라고 판단함
- 몇몇 자칭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돈잔치가 아닌 제주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꼼꼼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 내용을 정하고 진행되었으면 함
- 목호의 난이나 제주신화 등 국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발굴하고 연구와 홍보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음
- 미시적인 제주 생활, 경제사 연구 바탕 위에 제주 역사 거시성 확립이 필요함
- 사업의 지속성 및 인력 확보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새로운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연구자 지원과 연구자와 문화예술, 대중성을 가진 매체와의 협력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대중성만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연구자가 연구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함
- 선사~근대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일반 대중의 개설서 발간, 전문 연구자 양성이 필요함
- 소장 역사 자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공된다

면 도내외 연구자와 학생들의 제주학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기관에서 소장 자료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개방해 주면 좋겠음
- 시민 강좌를 확대해야 함
- 아카이브 구축이 더욱 체계화되고 공개되었으면 함
- 역사 플랫폼(온라인), 교육자료 등을 구축하여 대중들이 역사를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함
- 역사동우회 활동비 지원이 필요함
- 역사 서적 발간시 홍보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일반 관련 기관 종사자 외에 일반 도민이 볼 기회가 매우 적다고 느낌. 일부 관련 기관과 일부 도민의 차지가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전문 연구자가 너무 부족함
- 예산 및 행정 지원의 뒷받침이 필요함
- 생각보다 도내 초중고 의무교육을 받더라도 제주 역사와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음. 요즘 들어 제주어 교육 시간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면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을 알 수 있음. 그래서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창체) 시간을 활용해 교사나 초빙 강사가 가벼운 역사 교육을 시행해도 좋을 것 같음
- 젊은 세대의 제주사랑 및 참여가 필요함
- 대학에 제주 역사를 학과목으로 개설해야 함
- 국내외 학자들의 객관적 조연을 경청하여야 함
- 관의 역할은 행정적 지원과 예산 수급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임
- 원도심과 탐라순력도, 탐라국 시대 제주민 이야기 등의 강의를 필요함
- 유배인 문집 국역, 제주도내 학교의 학사보고 및 연혁지 자료 전산화, 제주 역사 인물평전, 제주 관련 인물(제주목사, 유배인, 출도인)의 도외 자료조사가 필요함
-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유배인들이 쓴 한자 서적들 중 일부만이 한글 디지털로 번역되어 있음. 먼저 학식 있는 이들이 유배왔을 때 쓴 기록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글로 디지털화되어 검색할 수 있었으면 함
- 전체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필요함

- 제주 정체성 교육 내용으로도 좋은 자료들이 아카이브 되어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구축하고 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져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함
- 일단 연구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할 때 분과 학문의 구분 없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존재했던 것이 제주 지역 연구의 특성이라고 생각됨. 좀 더 개방적인 태도로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전문가의 시점에서의 연구에서 대중적인 눈높이로 내려와야 함
- 전문성 있는 발굴조사 요원 발굴이 필요함
- 젊은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정쟁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역사를 발굴 보존하시기를 바람
- 정치인들의 입김과 제주가 최고라는 역사적 인식을 배제하고 제도권과의 교류가 필요함
- 제대로 된 자료 수집과 아카이브가 구축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연구자나 대중이 접근하기 편리한 시스템(홈페이지 접근성 고려)이 필요함
- 일성록, 각사등록 등 제주 관련 기초사료 번역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외국인이 볼 수 있는 제주 역사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 제주 역사 기록물에 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제주 역사 연구 활성화 및 제주사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제주 역사 연구를 위한 1차 사료의 추가 발굴이 절실함. 신진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료의 양이 극히 적음. 추가적인 제주 역사 연구를 위한 사료와 자료들의 검색시스템 구축이 절실함. 제주학 아카이브가 존재하긴 하지만 카테고리 시스템, 상세 검색 기능 등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제주학 연구자들의 공공역사 분야 진출이 절실함. 연구과제를 통해서만 연구물을 내는 경향이 있음. 연구자들이 직접 대중문화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함
- 제주 역사가 무엇이나 물었을 때 솔직히 생각나는 건 서사가 아니라 해녀, 말, 설문대 등과 같은 개별적인 콘텐츠임. 지금까지 행정이나 역사 연구기관이 제주 역사를 상품화하는 콘텐츠 개발이나 홍보에만 치중해 왔다는 방증이라 생각함. 특정 시기 제주 역사를 얘기한다면 그 당시 자연, 문화, 생계 수단, 가족 구조 등 서로가 연관된 많은 요소들이 얹혀 있는 입체적인 그림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제주 역사를 지나간 기록의 발견과 보존에 머물게 두지 말고, 그 역사의 연장선에서 오늘날의 제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역사로서 교육할 수 있다면 훨씬 생동하는 제주가 될 수 있을 듯함
- 제주 역사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길 바람
- 제주가 변방의 역사가 아닌, 해양 중심의 자주적인 역사로 기록되길 바람. 아직 미발굴된 숨겨진 제주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시급함
-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육지부와 동일하게 가게 되면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교화라는 부분을 앞장세워 제주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화를 유교적 시선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짓밟은 경우가 있음.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은 탐라에서부터 파생되어 고려시대 내내 크고 작은 민란이 일어나며 조선시대에 들어오며 평정되었던 모습에서 단순히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다가 아닌 "탐라는 어떻게 흡수통일되었는가, 더불어 탐라 문화는 언제 소멸되었는가"에 대한 시선으로 새로이 접근해서 기존에 제시되던 내용들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제주시 중심이 아니라 전 지역을 포함해야 함
- 제주 역사 발굴을 하고 정립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제주 역사는 1만 2천 년 유물이 나온 시점에서부터 탐라국 이전까지 내용이 없어 아쉽고 왕국이라고는 하지만 왕족 유물이 없어 아쉬움
- 제주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를 더 많이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음
- 제주 역사 연구기관의 예산 및 조직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제주의 역사는 탐라사 조명에 집중되어 있음. 제주 역사 진흥에 필요한 것은 전반적인 통사 정립 후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도민에게 알려져야 할 것이라 생각함
- 제주인 공동체 중심의 역사문화 정립 및 아카이빙 사업 필요
- 체계적 연구 지원. 유관기관 협력. 자료아카이빙 구축
- 체계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역사 연구가 필요함. 지금의 아이들이 "나 이 얘기 여러 번 들었는데..." 라고 말하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전달을 넘어서 인문학적 가치를 담은 역사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면 좋겠음

- 체험과 교육 연계, 다양한 매체 활용
- 축제를 줄이는 방향
- 탐구 주제와 관련된 제주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만드는게 우선인 것 같음. 그 내용에 대한 답사나 체험은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함. 때문에 우선 지적 호기심을 충족 시켜줄 수 있는 자료와 글을 수집하여 책으로 엮은 뒤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탐라의 역사 확립 필요함
- 테마별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답사가 많아져야 함
-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는 국내 지자체의 후원을 바탕으로 동학농민운동 관련 역사 기록(사발통문 등)과 같은 역사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음. 민간 미디어를 활용하면 제주역사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음
- 편협한 시각과 정치적 영향 배제, 지속적 추진과 홍보. 주민 참여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필요한 보상지원 등
- 피해 조사와 자료 수집으로서 4·3 평화재단의 역할을 고려하되 타 연구기관에서도 4·3 관련 자료 조사, 연구 개입, 참여, 교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학계 간의 융복합과 도민과 연구자들의 의지의 부분임
- 해녀 자연과 역사 제주 출신 고위 관리 연구가 필요함

5. 최종 종합 결과

5-1 제주 역사 관심도 및 조례·정책

- 제주시민은 대체로 제주 역사에 관심(80.7%)이 있고, 관심을 갖는 이유로는 대체로 '제주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36.4%)와 '제주의 정체성과 부리를 알고 싶어서'(31.4%)라고 응답하였고,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로는 대체로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느껴져서'(34.5%)와 '제주 역사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 기회가 적어서'(27.6%)라고 응답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5년에 제정한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문가의 인지도(46.8%)는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본인의 제주 역사 지식수준은 대체로 ‘높다’(35.3%)는 응답이 대체로 ‘낮다’(22.7%)는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사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일부 사업에서 성과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29.9%)와 ‘예산 및 인력 지원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16.9%) 그리고 도민과 전문가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15.6%)와 같이 사업의 보완과 어려움을 나타내는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남
- 제주 역사 진흥을 위해 관련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전문가들은 ‘역사 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빙 및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44.2%)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어서 ‘제주 역사 연구 프로젝트 활성화 및 지원 강화’(20.8%)와 ‘지역사 교육·체험 프로그램 정책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14.3%)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5-2 제주 역사 인식·참여

- 제주 역사의 국내(도내·도외 포함) 인지도는 대체로 아직 잘 안 알려졌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전문가가 생각하는 인지도(18.2%)보다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인지도(31.0%)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전문가는 절반 이상(50.6%)이 제주 역사의 국내(도내·도외 포함) 인지도가 낮다고 응답하였음
- 도민들이 제주 역사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요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주 역사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 기회가 적어서’(35.1%)와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느껴져서’(32.5%) 그리고 ‘흥미롭고 매력적인 콘텐츠(책, 영상, 전시 등)가 부족해서’(20.8%)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음
- 제주 역사의 체계적 정리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제주도민이 긍정적(34.3%)인 평가가 전문가의 긍정적(28.6%)인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제주도민(16.0%)이 전문가(7.8%)보다 높게 나타났음
- 제주도민들이 제주 역사 관련 정보 접근 경로로는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40.0%)서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고, 다음으로 ‘인터넷 검색, SNS를 통해’(24.0%) 그리고 ‘강연, 답사 등 행사에서’(12.7%) 등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제주 역사 학습이 도민 정체성 형성 도우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도민

의 긍정적(78.0%)인 응답보다 전문가의 긍정적(87.0%)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제주 역사의 정체성으로 제주도민은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 문화’(27.7%)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탐라국과 개국 신화의 자주정신’(25.7%)과 ‘공존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23.7%)도 비슷한 비율로 높게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공존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46.8%)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외세 저항과 자립정신’(18.2%)과,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 문화’(13.0%)로 응답함으로써 제주도민과 전문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주 역사 진흥을 위한 도민 참여 방법으로 ‘역사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제주도민(46.3%)과 전문가(35.1%) 모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제주도민은 ‘구술 증언 제공 및 인터뷰 참여(마을 어르신 및 지역 주민 등)’(20.3%)와 ‘개인 자료 기증 및 제공(가계 기록, 사진, 소장 유물 등)’(15.0%)을, 전문가는 ‘개인 자료 기증 및 제공(가계 기록, 사진, 소장 유물 등)’(28.6%)과 ‘구술 증언 제공 및 인터뷰 참여(마을 어르신 및 지역 주민 등)’(22.1%)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5-3 제주 역사 과제 우선순위 및 고려 사항과 필요지원

- 우선 추진 제주 역사 과제 1순위로 ‘제주 역사 기록과 자료의 조사·수집’을 제주도민(64.3%)과 전문가(79.2%)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도민 ‘제주 역사 교육 확대와 대중 홍보 강화’(14.3%)와 ‘제주 유·무형 유산 발굴 및 활용 기반 마련’(11.7%)을, 전문가 또한 ‘제주 역사 교육 확대와 대중 홍보 강화’(11.7%), ‘제주 유·무형 유산 발굴 및 활용 기반 마련’(9.1%)으로 제주도민과 전문가들은 비슷하게 판단하고 있음
- 제주 역사 과제 우선순위 선택 이유로 제주도민은 ‘제주 역사 보존과 전승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32.7%)를, 전문가는 ‘앞으로 연구와 교육의 기초가 되는 기반 사업이어서’(36.4%)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제주도민은 ‘앞으로 연구와 교육의 기초가 되는 기반 사업이어서’(22.0%)와 ‘제주 정체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20.3%)를, 전문가는 ‘제주 역사 보존과 전승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20.8%)와 ‘제주 정체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20.8%)가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판단하고 있음
- 제주 역사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1순위로 제주도민은 ‘지역사회 및 도민 의견 반영’(32.3%)을, 전문가는 ‘전문 인력 양성’(31.2%)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차이를 보이거나, 다음으로 제주도민 '자료 보존과 관리 강화'(28.0%), '정책 및 행정 지원'(19.3%)을, 전문가 '자료 보존과 관리 강화'(27.3%), '정책 및 행정 지원'(20.8%)으로 같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 제주 역사 진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 전문가는 '제주 역사의 가치와 의미가 국내외 확산·재조명'(44.2%)을 기대효과로 보고 있음. 다음으로, '제주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19.5%), '제주의 역사 자원이 관광 자원으로 확장되어 지역경제에 기여'(14.3%)와 '미발굴 또는 미정리된 역사의 재정립'(14.3%)을 긍정적 효과로 보고 있음

5-4 제주 역사 기록 수집 및 유산 발굴

- 제주 역사 기록(문헌·사진·증언 등)을 수집할 때, 우선 수집이 필요한 자료로 '마을·지역단체(마을위원회 등) 소장 자료'를 제주도민(37.7%)과 전문가(36.4%)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도민은 '개인·가문 소장 자료(족보, 고문서 등)'(23.3%)와 '공공기관·교육기관 소장 자료'(17.7%) 그리고 '국내 다른 지역에 소장된 제주 자료'(17.7%)를, 전문가는 '개인·가문 소장 자료(족보, 고문서 등)'(22.1%)와 '국내 다른 지역에 소장된 제주 자료'(16.9%)를 우선 수집이 필요한 자료로 생각하고 있음
- 제주 역사 유·무형 유산의 발굴과 활용을 위해 최우선 조사가 필요한 분야로 제주도민은 '탐라·제주의 신화와 전설'(31.3%)을, 전문가는 '제주 마을공동체 문화유산'(61.0%)으로 보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도민은 '제주 마을공동체 문화유산'(26.7%)와 '탐라·제주의 신화와 전설'(23.7%)을, 전문가는 '탐라 유적 및 유물'(16.9%), '제주 자연 및 지질 유산'(10.4%)을 조사가 필요한 분야로 보고 있음

5-5 제주 역사 서적 편찬

- 제주 역사를 알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사서적으로는 '일반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역사서'를 제주도민(53.0%)과 전문가(55.8%) 모두 높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도민은 '주제별로 집성한 제주 역사 사전'(20.0%)과 '2천 년 제주 역사를 아우르는 통사'(13.0%)를, 전문가는 '주제별로 집성한 제주 역사 사전'(20.8%)과 '제주 역사 옛 문서의 번역 및 해설서'(14.3%)를 필요한 역사 서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가장 바람직한 제주 역사 관련 서적 발간 방식으로는 '종이책과 전자책(웹) 모두 발간해야 한다'고 제주도민(73.0%)과 전문가(84.4%) 모두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도민은 '종이책만 발간해도 충분하다'(14.35%)와 '전자책(웹)으로만 발간해도 충분하다'(12.0%) 순으로, 전문가는 '전자책(웹)으로만 발간해도 충분하다'(9.1%)와 '종이책만 발간해도 충분하다'(5.2%) 순으로 생각하고 있음

5-6 제주 역사 교육·홍보 및 교류

- 제주 역사 교육하고 홍보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주도민은 '미디어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31.0%)를, 전문가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37.7%)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도민은 '학교 교육과정 연계'(23.3%)와 '제주 역사 관련 대중서 보급'(18.7%)을, 전문가는 '제주 역사 관련 대중서 보급'(20.8%)과 '박물관·기념관 등 역사 문화 시설 조성'(16.9%)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제주도민과 전문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제주 역사 연구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주도민은 '국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활성화'(41.0%)를, 전문가는 '소장 역사 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36.4%)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도민은 '도내·외 우수 연구자의 제주 역사 연구 지원'(22.7%)과 '소장 역사 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20.0%)을, 전문가는 '국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활성화'(35.1%)와 '도내·외 우수 연구자의 제주 역사 연구 지원'(19.5%)을 높게 생각함으로써 제주도민과 전문가 사이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V. 제주학연구센터 역사 분야 중장기 계획

1. 제주학연구센터 역사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2027-2031)

- 이 장은 제주역사정립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면서도, 제주학연구센터의 자율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중장기 운영 계획(역사 분야)을 수립함
- 제주학연구센터 제4차 중장기 운영 기본계획(2027-2031)을 새롭게 수립함에 있어, 제3차 운영 기본계획(2022-2026)의 역사 분야 사업 실행 여부와 제4차 운영 과제 간 연계 현황을 확인함

〈표 18〉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계획(역사 분야) 현황 및 제4차 계획 과제

| 제3차 운영계획 (2022-2026) 추진 과제 | 2022-2026년 추진 완료 및 추진 중 과제 | | | 제4차 운영계획 (2027-2031) 추진 과제 |
|-------------------------------|-----------------------------------|-------------|-------------|-------------------------------|
|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 2023년 신규 | 2025년 종료 | - |
|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사업 |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사업 | 2016년 신규 | 2026년 종료 | (신규)일성록 제주기사 번역 편찬 사업 |
| 제주 고전 강독회 | 제주 고전 강독회 | 2018년 신규 | 연속 | 제주 고전 강독회 |
| 고문서 해제 발간 | 고문서 해제 발간 | 2018년 신규 | 연속 | 고문서 해제 발간 |
| - |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교육특구) | 2025년 신규 | 2026년 종료 | - |
| - | 제주역사 정립기치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기초조사) | 2025년 신규 | 2025년 종료 | - |

| | | | | |
|----------------------------|--------------------------------|-------------|-------------|--------------------------------|
| 제주역사 인물 평전 발간 | 제주역사 인물 평전 발간 | 2026년 신규 | 연속 | 제주역사 인물 평전 발간 |
| 제주 호적 자료의 기초적 연구 | 제주 호적 자료의 기초적 연구 | 2022년 신규 | 2022년 종료 | - |
|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2026년 신규 | 연속 |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 (현대사)제주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 제주 역사문화자원 구축과 미래 활용 | 2026년 신규 | 연속 | 제주 역사문화자원 구축과 미래 활용 |
| 제주 근현대 지역사 자료 수집 조사 | - | - | - | 제주 근현대 지역사 자료 수집 조사 |
| 제주학 교양문고 발간 사업 | - | - | - | 제주학 교양문고 발간 사업 |

-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역사 분야 운영 계획 과제 대부분이 계획대로 수행됨(5년간 계획 이행률 80% 완료)
- 미수행 과제는 제4차 운영 계획으로 재편성하고, 계획 수립→실행→차기 계획의 체계적 연계를 입증함

1-1 일성록 제주기사 번역 편찬 사업

- 지속적인 제주 역사 원전 자료의 번역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역사 기초 자료 집대성
- 제주역사의 체계적 정립 및 제주학 연구 관련 기초 자료 제공

1-1-1 현황과 과제

- 2027년부터 조선시대 정무일지 『일성록』 제주기사를 정리하여 역주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함
- 한국고전번역원이 추진하는 『일성록』 번역은 방대한 분량(총 2,329책)으로 일부만 진행되어, 번역이 완료되기까지 일반인이나 연구자의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제주지역의 고문헌 번역 전문가 중심으로 번역팀을 구성하여, 『일성록』에 나타난 제주 지역의 지명, 인물, 지리 등에 대한 오역을 줄이고, 역사적 상황 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통일되고 표준화된 전문적인 번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일성록』은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국왕의 동정과 국정
의 주요 내용을 담은 일기형식의 기록임
- 정조의 세손 시절 개인일기인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에서 시작됨
- 1783년(정조 7) 국정 업무가 늘어나자 규장각 관원들이 시정(施政)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왕이 재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 총 2,329책이며,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았음
- 『일성록』은 151년간의 국정일기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사료가 많이 서술되어 있음

1-1-2 추진 상황

-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조선시대 1급 관찬사료 『승정원일기』 제주 기사를 정리하여 역주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했음
- 2016~2025년: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Ⅰ)~(Ⅷ) 효종대~정조대(정조 6년~18년)』 자료집 발간 완료
- 2026년 예정: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Ⅸ) 순조대(순조 즉위년~순조 13년)』 발간,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역주 사업 성과 공유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사업의 완료에 따라, 국가 관찬 사료에 대한 체계적 번역·편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추진함

1-1-3 추진 방향

- 역사 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일성록』에 수록된 제주 기사를 발췌·정리 및 역주하고 지역 내 번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제주학 연구자 인프라 구축에 기여

1-1-4 추진 내용

- 『일성록』의 제주기사 발췌, 번역 및 주석 작업, 『일성록』 제주기사 자료집 발간 후 도민사회에 보급함
- 『일성록』 왕대별 제주기사 및 역주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로 제작·구축함
- 『일성록』 번역 성과를 알리기 위한 <(가)일성록 탐독>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

1-1-5 소요 예산과 추진 연도

(단위: 천원)

| 추진 내용 | 연차별 소요 예산 | | | | |
|-----------------|-----------|--------|--------|--------|--------|
|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일성록 제주 기사 번역 편찬 | 50,000 | 50,000 | 60,000 | 60,000 | 80,000 |

1-2 제주 고전 강독회

- 제주 역사와 관련된 원전 강좌를 통해 도민 사회에 제주학 연구 기초 자료 및 고전 향유 기회를 제공
-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 계획(2022-2026)’ 추진 과제

1-2-1 현황과 과제

- 2018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운영함
- 한문 원전은 상당수 번역되었지만 일부 연구자에게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음. 지속적인 강독회 운영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한문 고전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2018~2025년: <제주 고전 강독회> 연간 2~3개 강좌 운영/ 강독서: 『남사록』(김상헌), 『탐라기년』(김석익), 『남환박물』(이형상) 등
- 2026년 예정: <(가칭)제주 입도조-탐라와 제주의 뿌리-> 강좌 운영

1-2-2 추진 방향

- 도민들에게 제주와 관련있는 다양한 한문 원전을 소개하고 해설함으로써, 지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일반 시민들에게 한문 고전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한문 원전을 해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1-2-3 추진 내용

-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의 역사 문화와 관련 깊은 한문 원전을 강독하고 해설하는 형식의 강좌를 운영함

1-2-4 소요 예산과 추진 연도

(단위: 천원)

| 추진 내용 | 연차별 소요 예산 | | | | |
|-----------|-----------|--------|--------|--------|--------|
|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제주 고전 강독회 | 10,000 | 10,000 | 15,000 | 15,000 | 15,000 |

1-3 고문서 해제 발간 사업

- 소실되어 가는 제주 도내에 산재한 중요 고문서를 조사·수집·발간하여 제주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구축
-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 계획(2022-2026)’ 추진 과제

1-3-1 현황과 과제

- 2018년부터 제주지역 고문서 조사를 추진함
- 제주지역의 고문서는 보존 가치에 비해 빠르게 훼손되고 있어, 원형적인 복원과 보전이 시급함
-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고 영인본 제작 등 실효성 있는 자료 보존 방안이 강구됨에 따라 연차 사업으로 도내 고문서 조사를 추진함

- 2018~2025년: 『제주 고문서(Ⅰ)~(Ⅷ)』 조천 김해김씨·밀양박씨·원주변씨 등 문중 고문서 및 마을 문서 발간
- 2026년 예정: 제주향교 소장(고문서 98건, 전적류 35책, 근현대문서 56건, 기타 낱장 문서 43건, 현판 30건 등 총 260여 건) 고문서 조사, 『제주 고문서(Ⅸ)-제주향교-』 발간

1-3-2 추진 방향

- 개별적으로 수행된 제주지역 고문서의 발굴·수집을 공공연구기관이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고문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함
- 제주지역의 역사 사료 및 고문헌 등 자료 발굴 및 정리를 통해 제주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문서 수집 조사 및 보존·활용 방안을 강구함

1-3-3 추진 내용

- 제주도내 마을 및 문중 소장 고문서에 대한 기초 조사
 - 마을 및 문중 등 고문서 소장처 파악
 - 자료 발굴 및 분류, 고문서 사진 촬영, 목록화 작업 등 수행
- 고문서 자료 탈초 및 번역, 자료집 발간 작업

1-3-4 소요 예산과 추진 연도

(단위: 천원)

| 추진 내용 | 연차별 소요 예산 | | | | |
|--------------|-----------|--------|--------|--------|--------|
|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고문서 해제 발간 사업 | 50,000 | 50,000 | 60,000 | 60,000 | 70,000 |

1-4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각 마을별 조사된 호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자료의 멸실에 대비하고 제

주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 계획(2022-2026)’ 추진 과제로 2026년 신규 편성

1-4-1 현황과 과제

- 2019~2020년,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함(총 15개 마을, 호적중초 546책, 통적 218책, 민적부 등 53책 총 817책 조사 완료), 2022년 제주 애월읍 수산리 마을 소장 호적 자료 추가 조사 완료함(약 48책 내외)

〈표 19 제주도내 마을별 호적 자료 현황〉

| 구분 | 소장지역 | 마을 소장 자료 | | | | 비고 |
|-------------|------|----------|------|-----------|------|-------------------------------|
| | | 호적중초 | 통적 | 민적부 및 호적부 | 소계 | |
| 서귀포시 대정읍 | 영락리 | 20책 | 5책 | 6책 | 31책 | |
| | 하모3리 | 45책 | 40책 | 4책 | 89책 | |
| | 안성리 | 36책 | 24책 | 3책 | 63책 | ◦ 구축 완료(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
| | 일과2리 | - | - | 3책 | 3책 | |
| | 동일리 | 54책 | 43책 | 2책 | 99책 | |
| 서귀포시 안덕면 | 덕수리 | 44책 | 24책 | 5책 | 73책 | |
| | 사계리 | 44책 | - | 5책 | 49책 | |
| 서귀포시 | 도순동 | 48책 | 25책 | 1책 | 74책 | ◦ 마을회, 탈초본 발간 |
| | 회수동 | 26책 | 12책 | 2책 | 40책 | |
| | 하원동 | 36책 | 23책 | - | 59책 | |
| | 중문동 | 46책 | 19책 | 7책 | 72책 | |
| | 대포동 | 39책 | - | 10책 | 49책 | ◦ 구축 완료(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
| | 월평동 | 10책 | 3책 | 5책 | 18책 | |
| 제주시 | 장전리 | 약 58책 | - | - | 58책 | ◦ 두루마리 형태 ◦ 마을회, 탈초본 발간 |
| | 상가리 | 약 40책 | - | - | 40책 | ◦ 두루마리 형태 |
| | 수산리 | 약 46책 | - | 2책 | 48책 | ◦ 두루마리 형태 ◦ 2022년 추가 조사 완료 |
| 합계 | | 592책 | 218책 | 55책 | 865책 | |

■ 2026년 예정: 전문가 포럼 개최 및 1차년도 제주 호적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illegible]

제주 동성리(안성리) 호적중초 DB 구축의 예(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1-4-2 추진 방향

- 제주 호적중초는 18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걸쳐 매 3년마다 마을 단위로 호구 상태를 파악한 장부임
- 향후, 제주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제주 역사 자료로 제공·활용하고자 함

1-4-3 추진 내용

- 관련 부서·소장 마을 협의를 통한 위탁 및 기탁 추진
- 제주 호적 자료 탈초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Excel 기반 DB 입력) 수행

1-4-4 소요 예산과 추진 연도

(단위: 천원)

| 추진 내용 | 연차별 소요 예산 | | | | |
|----------------------------|-----------|---------|---------|---------|---------|
|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제주 호적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90,000 | 100,000 | 120,000 | 120,000 | 150,000 |

1-5 제주 역사 인물 평전 발간

- 제주 인물 이야기를 발굴하여 일대기를 집성하고 제주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 계획(2022-2026)’ 추진 과제로 2026년 신규 편성

1-5-1 현황과 과제

- 과거 제주 사회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역사 인물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향후 다양한 학술사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2017년: 『현용준 선생의 학문세계』 발간
- 2018년: 『제주학 선구자 석주명에 대한 기초 연구』, 『미래를 걸었던 거인 윤주당 할망-又忍 고수선 傳』 발간
- 2024년: 『강평국, 근대 제주를 짊어지다』 발간
- 향토사학자 박용후 후손가 소장 자료 제주학연구센터에 기탁 완료(기탁일:2025.10.2.)
 - 역사 자료 21건, 방언 자료 10건, 민속 자료 2건, 창작 21건, 소장품 378건 총 432건

〈표 20〉 박용후 선생 기탁 자료 목록

| 번호 | 분류 | 자료명 | 번호 | 분류 | 자료명 |
|----|----|----------------------------|----|-----|--------------|
| 1 | 역사 | 제주도지 | 51 | 창작 | 시집 |
| 2 | 역사 | 영주지에 대한 고찰 | 52 | 창작 | 시집 |
| 3 | 역사 | 조선조 후기의 제주도 방위 및 이선 대차의 실제 | 53 | 창작 | 남한기행 |
| 4 | 역사 | 대정읍약사 | 54 | 창작 | 인생론 |
| 5 | 역사 | 탁라국서 | 55 | 소장품 | 스크랩북 |
| 6 | 역사 | 부족국가의 성립과정 | 56 | 소장품 | 고시기주해 |
| 7 | 역사 | 남제주군지 | 57 | 소장품 | 신라문화와 경주고적 |
| 8 | 역사 | 원 대정군지 | 58 | 소장품 | 김립시집 |
| 9 | 역사 | 최남의 향도 모슬포 | 59 | 소장품 | 조선여학논고 |
| 10 | 역사 | 남사록 | 60 | 소장품 | 장자영의 가려뽑은 옛글 |
| 11 | 역사 | 남명소승 번역 | 61 | 소장품 | 증광시문집성 |
| 12 | 역사 | 위촉장 | 62 | 소장품 | 한글역대선 |

| | | | | | |
|----|----|-------------------|------------|-----|--------------------|
| 13 | 역사 | 고려사초 | 63 | 소장품 | 자리보주 |
| 14 | 역사 | 역사참고 | 64 | 소장품 | 조선어독본 권3 |
| 15 | 역사 | 남사록 상·하 | 65 | 소장품 | 고등조선어맞힌문독본 권1 |
| 16 | 역사 | 두울 | 66 | 소장품 | 시문독본 |
| 17 | 역사 | 잡방 | 67 | 소장품 | 신론 |
| 18 | 역사 | 영주지에 나타난 탐라의 옛날 | 68 | 소장품 | 고등조선어맞힌문독본 권2 |
| 19 | 역사 | 탐라 부족국가의 성립 | 69 | 소장품 | 고등조선어맞힌문독본 권3 |
| 20 | 역사 | 삼국시대의 유학 | 70 | 소장품 | 동시정선 |
| 21 | 역사 | 탐라사까지 시정서류 | 71 | 소장품 | 보통학교조선어독본권5 |
| 22 | 민속 | 모슬포 석상 | 72 | 소장품 | 국민교육 |
| 23 | 민속 | 제주민요 메모 | 73 | 소장품 | 국민교육1(초2) |
| 24 | 방언 | 제주방언연구(고찰편) | 74 | 소장품 | 초등과신수 |
| 25 | 방언 |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 75 | 소장품 | 농촌진흥조선어독본권하 |
| 26 | 방언 | 제주방언연구 | 76 | 소장품 | 탐라기년 |
| 27 | 방언 | 제주방언연구(고찰) | 77 | 소장품 | 나라사랑 제1집 |
| 28 | 방언 | 영주지에 나타난 탐라의 옛날 | 78 | 소장품 | 종교와 개성 |
| 29 | 방언 |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교정본) | 79 | 소장품 | 모스코나 로마나 |
| 30 | 방언 | 제주도 방언집 | 80 | 소장품 | 용비어천가(상) |
| 31 | 방언 | 제주도의 생명조사서 | 81 | 소장품 | 용비어천가(하) |
| 32 | 방언 | 최현배 편지 | 82 | 소장품 | 조선민족강생의 도 |
| 33 | 방언 | 연구발표요지 | 83 | 소장품 | 제주민옹의 특색 |
| 34 | 창작 | 문집 | 84 | 소장품 | 용가고어전 |
| 35 | 창작 | 겨울밤과 독서 | 85 | 소장품 | 조선방언학시고 |
| 36 | 창작 | 공부의 바다 | 86 | 소장품 | 심리학개론 |
| 37 | 창작 | 국어강습자료 | 87 | 소장품 | 역사관 |
| 38 | 창작 | 추억1 | 88 | 소장품 | 유물론비판 |
| 39 | 창작 | 추억2 | 89 | 소장품 | 교사집책 |
| 40 | 창작 | 한시집 | 90 | 소장품 | 국어말본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부침 |
| 41 | 창작 | 인생산 | 91 | 소장품 | 우리말 도로 찾기 |
| 42 | 창작 | 한국교본 | 92 | 소장품 | 국민가요곡집 새나라의 노래 |
| 43 | 창작 | 1920년대 노래 광선학교보습과 | 93 | 소장품 | 문화사개론 |
| 44 | 창작 | 악전 첫 걸음 | 94 | 소장품 | 심리학개론 |
| 45 | 창작 | 오홍태 외 원고 | 95 | 소장품 | 훈민정음 |
| 46 | 창작 | 건강유지 메모 | 96 | 소장품 | 입도조정자공유하비문 |
| 47 | 창작 | 송계집 | 97 | 소장품 | 송계가승 |
| 48 | 창작 | 한시집 | 98 | 소장품 | 제안서 |
| 49 | 창작 | 탐라삼강록 | 99 | 소장품 | |
| 50 | 창작 | 향토사기·타집록 | 외 소장품 333건 | | |

■ 2026년 예정: 『(가칭)제주역사 인물 평전-향토사학자, 박용후-』 자료집 발간

1-5-2 추진 방향

- 제주 향토사학의 기초를 다지고 제주 인물들의 재조명을 통해 지역의 가치와 위상을 높임
- 과거 제주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역사 인물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관련 일대기를 집성하고 제주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

1-5-3 추진 내용

- 제주지역 출신으로 제주 역사를 대표할 만한 인물을 발굴하여 조명하는 평전을 연차적으로 시리즈(총 10권)로 발간하여 보급함
- 제주의 역사적인 인물 평전을 발간하기 위한 문헌조사 및 후손의 구술 채록 등 종합적인 자료 수집을 중심으로 함
- 첫 번째 인물, 향토 사학자 박용후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여 생태·교육·방언·역사·민속·아카이브를 주제로 하여 인물 재조명
 - 제주도민의 제주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육·홍보를 위한 기본 방향성 제시

1-5-4 소요 예산과 추진 연도

(단위: 천원)

| 추진 내용 | 연차별 소요 예산 | | | | |
|------------------|-----------|--------|--------|--------|--------|
|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제주역사 인물 평전 발간 사업 | 50,000 | 50,000 | 60,000 | 60,000 | 70,000 |

1-6 제주 역사문화자원 구축과 미래 활용

- 제주역사 편찬사업 성과 및 역사문화자원 조사·수집 자료를 콘텐츠로 구축하여 학술·교육·콘텐츠 분야 활용 기반 마련
-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 계획(2022-2026)’ 추진 과제로 2026년 신규 편성

1-6-1 현황과 과제

- 제주학연구센터는 2023년부터 3년간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해당 성과를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에서 구축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023~2025년: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보고서(Ⅰ)~(Ⅱ)』 발간, 『(증보·개정판) 제주 입도조』 발간

1-6-2 추진 방향

- 역사문화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사업으로, 디지털 콘텐츠화와 대중 매개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함

1-6-3 추진 내용

-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성과를 웹사이트로 자료 구축
 - 제주 입도조 조사 자료 디지털화 설계, 웹사이트 구축 방향 및 범위 결정
- 역사 분야 성과물의 검색 기능을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서비스 제공

1-6-4 소요 예산과 추진 연도

(단위: 천원)

| 추진 내용 | 연차별 소요 예산 | | | | |
|---------------------|-----------|--------|--------|--------|--------|
|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제주 역사문화자원 구축과 미래 활용 | 50,000 | 50,000 | 60,000 | 60,000 | 70,000 |

1-7 제주 근현대 지역사 자료 수집 조사

1-7-1 현황과 과제

- 2016~2019년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편찬 사업>, 2019~2021년 <일본 소재 신문

제주기사 번역 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및 해방 후 국내외에서 발행한 미디어 자료에서 제주 관련 기사를 수집해 번역·정리한 바 있음

-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Ⅰ)~(Ⅷ)』외에 『프란게 문고 제주기사 자료집-재일조선인 미디어(Ⅰ)~(Ⅱ)』, 『제주도현황일반』 등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음
-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제주 근현대사 연구를 위한 다양한 1차 사료 수집이 절실한 실정이나, 국내외 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자료 보안의 문제로 조사가 미흡한 실정임
- 더욱이 제주지역은 43 등 질곡의 역사를 겪으며 1950~1970년대 기록물이 많이 소실됨
- 남아있는 마을 기록물 또한 훼손이 진행되고 폐쇄적으로 보관되는 실정이라 마을별 소장 실태조사가 매우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 자료 수집 및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을 기록 중 민감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마을 개발위원회 등 마을 관계자와의 신뢰와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1-7-2 추진 방향

- 제주 지역(동리)별 마을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근현대 마을 회의록, 접계 문서 등의 자료를 조사 정리하여, 근현대 제주지역 마을 공동체의 특성과 마을 주민들의 삶의 궤적을 고찰해 나가고자 함
- 도내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 현지(오사카·고베·교토 등)에서 발행된 신문·잡지에 게재된 재일제주인 관련 기사를 전수 조사하고, 국외 자료의 체계적 수집까지 추진함

1-7-3 추진 내용

- 제주도내 마을과의 협의 후 각 마을별 근현대 회의록(향회, 농·어촌 계몽, 정부시책 하달, 문맹퇴치, 새마을 운동 관련 문서 등) 수집 및 목록화 작업을 추진함
- 특히 근현대 마을 소장 사진자료 등의 중요 마을 기록인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안정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연차적으로 일제강점기 및 해방 후 국내외에서 발간한 미디어 자료 속 제주 관련 기사를 수집 조사하여 번역, 정리하고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함

1-7-4 소요 예산과 추진 연도

(단위: 천원)

| 추진 내용 | 연차별 소요 예산 | | | | |
|---------------------------|-----------|--------|--------|--------|--------|
|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제주 근현대 지역사 자료 수집 조사 | 50,000 | 50,000 | 60,000 | 60,000 | 70,000 |

1-8 제주학 교양문고 발간 사업

1-8-1 현황과 과제

- 제주도내 개별 연구자들의 성과물로 분산되어 있던 제주학(제주사) 연구 성과를 총체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제주학 교양문고를 출간할 필요가 있음
- 제주 지역 주민의 교육과 제주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제주학 총서>와 같은 전문서적 뿐만 아니라 대중서의 발간이 이루어져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학술적 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하여 제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22-2026)’ 추진 과제이나 2026~2026년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4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27-2031)의 추진 과제로 편성함

1-8-2 추진 방향

- 기존 제주도와 관련된 여러 문헌의 경우 연구 내용이 어려워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제주학 교양문고는 학술적 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하여 청소년과 일반인들 모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지역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1-8-3 추진 내용

- 제주학 교양문고 편찬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휴대성이 좋고 주제별로 필요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요약한 문고판형 개설서를 집필·발간하고자 함
- 10여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제주 역사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함
- 연구주제별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여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얻어낸 연구 성과를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원고 집필함

1-8-4 소요 예산과 추진 연도

(단위: 천원)

| 추진 내용 | 연차별 소요 예산 | | | | |
|-------------------|-----------|--------|--------|--------|--------|
|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제주학 교양문고 발간 사업 | 50,000 | 50,000 | 60,000 | 60,000 | 80,000 |

Ⅵ.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중장기 기초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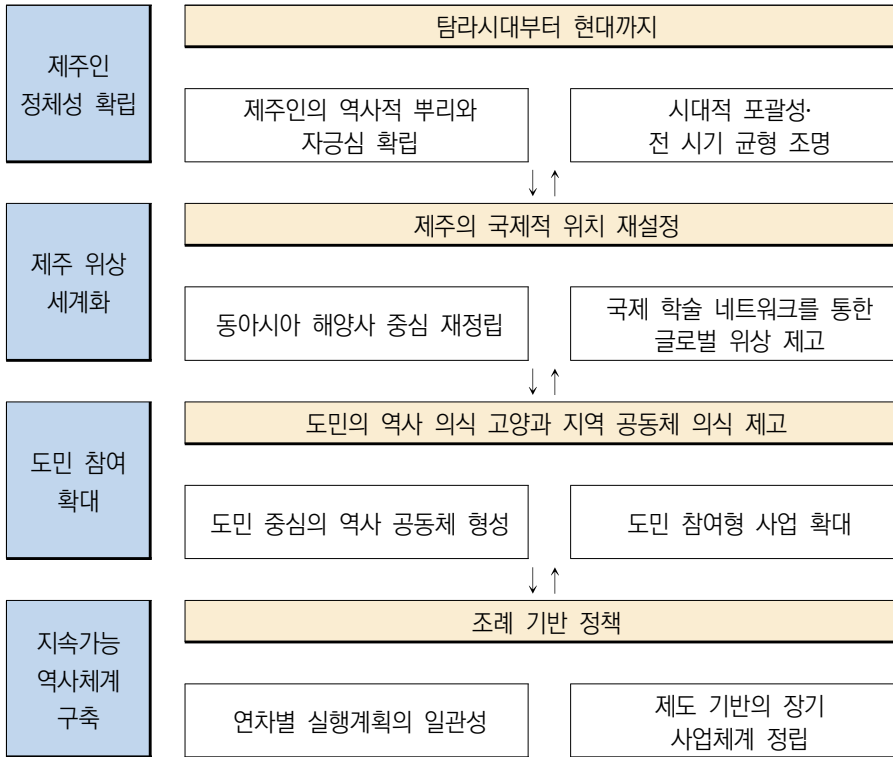
-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2025년 9월 제정)의 법제화에 따라, 제주 역사 정립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됨
- 이 장은 중장기 5개년(2026-2030년)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단계로서,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 초안 성격임

1.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및 성격

1-1 계획의 필요성 및 성격

-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의무
 -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로 매년 제주 역사 정립 사업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은 이러한 연년 실행계획의 기본 틀을 제공하며, 사업의 일관 성과 지속성을 보장함
- 제주 역사 연구의 체계적 정립
 - 1997년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출범 이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적 역사 정립이 필요함
- 도민 참여의 제도적 확대
 - 도민 참여 채널을 확대하고, 마을 단위 조사, 구술사 채록, 지역 자료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적 사업으로 발전시킴
- 기관 간 협력체계의 정비
 - 도내 주요 역사 연구·조사 기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이 필수적임

〈중장기 계획의 핵심 목표〉



2. 중장기 계획의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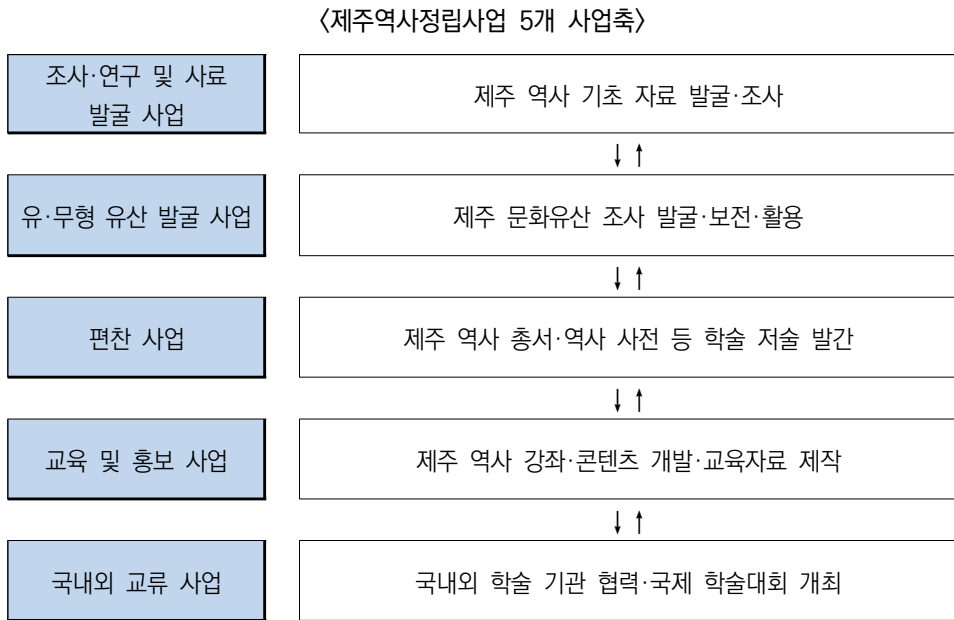
2-1 5개년 연도별 예산액 및 주요 사업축

- 2026년 예산은 기반 조성 단계의 초기 예산으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학술 대회에 집중함
- 2027년 이후 사업 본격화에 따른 점진적 증액(연평균 12%)으로 5개 사업축을 균형 있게 추진함
-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전문기관 지원 규정에 따라 도내 연구기관 지원 비중을 증가시킴

〈표 21〉 5개년 연도별 예산액

| 연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예산액(천원) | 350,000 | 400,000 | 450,000 | 500,000 | 550,000 | 2,250,000 |
| 전년비 증감 | - | ▲14.3% | ▲12.5% | ▲11.1% | ▲10.0% | |

- 「제주 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다음의 5개 사업축을 중심으로 2026~2030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함



2-2 5개년 사업 추진 계획(초안)

- 2026년 중장기 기초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 마련 예정
 -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보완
- 시간적·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탐라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제주의 전 시기를 대상으로 함
 - 공간적 범위: 제주 본도뿐만 아니라 도외 출향조 집중 거주 지역(전라도권)과 국외 제주와의 역사적 교류 지역(중국 산둥성, 일본 규슈·오키나와 등)까지 확대하여 조사함

〈표 22〉 5개년 추진 계획(초안)

| 연도 | 구분 | 사업명 | 예산액(천원) |
|------|---------------------|-----------------------------------|---------|
| 2026 | 중장기 계획 수립 | •제주역사정립사업 중장기 기본계획(2026-2030) 수립 | 50,000 |
| |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사업 | •도내 제주 사료 조사(마을 자료 등) | 50,000 |
| | 유·무형 유산 발굴 사업 | •제주 문화유산 기초조사 | 50,000 |
| | 편찬 사업 | •〈탐라·제주역사 총서 및 제주역사사전〉 편찬계획 수립 | 50,000 |
| | 교육·홍보사업 | •도민 강좌 운영, 탐라·제주역사 교재1 제작 | 50,000 |
| | 국내외 교류 사업 | •국제학술대회 개최(도제 80주년 기념) | 100,000 |
| 소계 | | | 350,000 |
| 2027 |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사업 | •도내 제주 사료 조사 | 70,000 |
| | 유·무형 유산 발굴 사업 | •제주 문화유산 기초조사 | 80,000 |
| | 편찬 사업 | •〈탐라·제주역사〉Ⅰ 발간, 〈제주역사사전〉 항목 구성 | 100,000 |
| | 교육·홍보사업 | •도민 강좌 운영, 탐라·제주역사 교재2 제작 | 50,000 |
| | 국내외 교류 사업 | •국내학술대회 개최(탐라-마한문화권(해남·강진) 연계성) | 100,000 |
| 소계 | | | 400,000 |
| 2028 |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사업 | •도외 제주 사료 조사(출향조 등) | 80,000 |
| | 유·무형 유산 발굴 사업 | •제주 문화유산 심층조사(기획 발굴) | 100,000 |
| | 편찬 사업 | •〈탐라·제주역사〉Ⅱ 발간, 〈제주역사사전〉 항목 구성·집필 | 110,000 |

| | | | |
|------|------------------|--|-----------|
| | 교육·홍보 사업 | •도민 강좌 운영, 교육 콘텐츠 개발 | 50,000 |
| | 국내외 교류 사업 | •해외 학술협력(탐라-중국 산둥성 등) •국제학술대회 개최(탐라-중국 교류사 재조명) | 110,000 |
| 소계 | | | 450,000 |
| 2029 |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사업 | •도외 소장 제주 사료 조사 | 100,000 |
| | 유·무형 유산 발굴 사업 | •제주 문화유산 심층조사(기획 발굴) | 100,000 |
| | 편찬 사업 | •〈탐라·제주역사〉Ⅲ 발간, 〈제주역사사전〉 항목 구성·집필 | 120,000 |
| | 교육·홍보 사업 | •도민 강좌 운영, 교육 콘텐츠 개발 | 60,000 |
| | 국내외 교류 사업 | •해외 학술협력(탐라-일본 오사카나라 등) •국제학술대회 개최(탐라-일본 교류사 재조명) | 120,000 |
| 소계 | | | 500,000 |
| 2030 | 2차 기본계획 수립 | •제주역사정립사업 2차 기본계획(2031-2035) 수립 | 50,000 |
| |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사업 | •국외 기관 소장 제주 사료 조사 | 100,000 |
| | 유·무형 유산 발굴 사업 | •제주 문화유산 보전·활용 연구(콘텐츠 개발·보급) | 100,000 |
| | 편찬 사업 | •〈탐라·제주역사〉Ⅳ 발간, 〈제주역사사전〉 발간·웹 구축 | 120,000 |
| | 교육·홍보 사업 | •도민 대상 강좌 운영, 연계 전시, 미디어 캠페인 | 80,000 |
| | 국내외 교류 사업 | •국제학술대회 개최(제주역사정립 성과 포럼) | 100,000 |
| 소계 | | | 550,000 |
| 합계 | | | 2,250,000 |

3. 2026년도 원년 사업 추진 체계

- 2026년 원년: 제주역사정립사업 중장기 기본계획(2026-2030)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체계적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점임
 - 총 사업비: 350,000천원

〈표 23〉 2026년 예산 배분

| 구분 | 사업 내용 | 예산(천원) |
|---------------------|--|---------|
| 중장기 계획 수립 | 제주역사정립사업 중장기 기본계획(2026-2030) 수립 | 50,000 |
|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사업 | 도내 제주 사료 조사(마을 자료 등) | 50,000 |
| 유·무형 유산 발굴 사업 | 제주 문화유산 기초조사 | 50,000 |
| 편찬 사업 | 〈탐라·제주역사 총서〉 및 〈제주역사사전〉 편찬계획 수립 | 50,000 |
| 교육·홍보 사업 | 도민 강좌 개설·운영, 탐라·제주역사 교재 제작 | 50,000 |
| 국내외 교류 사업 | 국제학술대회 개최(도제 80주년 기념), 부대행사(답사), 학술자료집 제작 | 100,000 |
| 총계 | | 350,000 |

3-1 연구 및 추진 체계

3-1-1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 연구기관, 전문가가 결합한 체제를 구축함
- 집필진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도내 연구기관 협력 자문,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계획을 수립함

〈표 24〉 기본계획 수립 추진 조직

| 구분 | 기관 | 주요 역할 |
|----|----------------------------|---------------|
| 1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제주역사정립팀) | 기본계획 수립 총괄 |
| 2 | 전문 연구기관 | 기본계획 실무 협력 |
| 3 | 전문가 집단 | 기본계획 핵심 과제 집필 |
| 4 | 제주역사정립위원회 | 기본계획 자문·심의 |

3-1-2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26년은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 80주년이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임
 - 1946년 미군정 하에서 도제가 실시된 이래 80년간, 제주는 다층적 발전 과정을 겪어 왔음
 - 더욱이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은, 제주 역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있어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음
- 국제학술대회의 전략적 의미
 - 제주 발전사의 국제적 공유
 - 제주 발전 과정을 동아시아 지역사의 맥락에서 조명
 - 제주도제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제주 역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첫 발걸음
 - 세계자연유산·세계기록유산 등재, 관광 강국 도약 등을 소재로 제주의 역동성 표현
 - 해외 학자 초청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제주도제(濟州道制): 1946년 8월 1일, 제주가 전라남도 관할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도(道)로 승격된 제도
 - 군정청 법률 제94호에 따라 제주도는 전라남도에서 분리되고, **도(道)로서의 권한과 직무를 갖는 행정단위로 규정**되었으며, 북제주군·남제주군 두 군 체제로 출범함

- 도제 실시의 핵심 목적은 전라남도 소속 '변방 섬'이었던 제주를 분리하여, 중앙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상업·공업·재정·교육·보건 등 각 분야를 보다 신속하고 밀착하게 관리하고, 섬의 지리적 여건에 맞는 자주적 지방 행정을 가능하게 하려는데 있음
- 해방 직후 미군정 아래에서 제주 사회는 치안 불안, 생활고, 행정 자율권 부재에 시달렸고, 이에 **'도제실시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도 승격을 강력히 청원한 끝에 약 10개월 만에 도제 실시가 성사되었음
- **1946년 도제 시행**으로 제주는 남한에서 아홉 번째 도가 되었고, 2군 1읍 12면, 3국 12과 체제의 도청 조직이 갖추어지면서 근대적 지방 행정의 틀이 마련되었음
- 이후 면적·인구 규모를 이유로 **도제폐지론(1956·1958년)**이 두 차례 제기되었으나, 도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좌절되면서 '전남의 하위 행정구역'이라는 굴레를 벗고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지켜냄
- 더 멀리 보면, 도제는 탐라국-고려-조선기의 제주목·삼읍 체제-일제강점기 제주군을 거쳐 온 제주 행정구역사의 결정적 전환점임
- **도제 실시 60년 뒤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어지면서, 도제는 오늘날 제주가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는 장기적 기반이 되었음

• 동아시아 학술 네트워크의 기초 구축

- 중국 산둥성, 일본 규슈·오кина와, 미국 하와이 등지의 연구자 참여
- 탐라-중국 해양 교류사, 탐라-일본 외교사, 태평양 섬 문명 비교 등의 주제 논의
- 2027년 이후 국가별 순회 국제심포지엄으로 확대되는 플랫폼 구축
- 제주인의 정체성 고양 및 자긍심 제고
- 도민이 참여하는 개막식, 학술 세션, 부대 답사 프로그램 운영
- 제주 역사의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국제 무대에서 인증받는 기회 제공

■ 제주도 행정 구역 변천 과정

- 285년 '주호'로 중국사서에 등장
- 476년 탐라, 백제 조공
- 925년(태조 8) 탐라, 고려에 조공
- 1105년(숙종 10) 폐국치군(弊國置郡), 탐라국 해체, 탐라군 설치

- 1024년(현종 15) 탐라지배층에게 무산계 수여
- 1153년(의종 7) 탐라군은 탐라현으로 강등, 현령관 파견
- 1220년(고종 7)~1229(고종 16) 탐라군으로 일시 복귀, 탐라 지명이 제주로 개칭
- 1273년(원종 14) 여몽 연합군 삼별초 평정 후 몽골이 제주를 직할령으로 삼음
- 1294년(충렬왕 20) 탐라의 지배권이 고려로 환속
- 1295년(충렬왕 21) 제주목으로 승격
- 1298년(충렬왕 24) 탐라국이 원에 조공하면서 다시 탐라국의 독립권 회복
- 1300년(충렬왕 26) 동·서도현 설치
- 1305년(충렬왕 31) 탐라 고려 환속
- 1333년(충숙왕 후2)경 원 관할 소속으로 변경
-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의 반원정책으로 고려 환속
- 1362년(공민왕 11) 원 관할로 다시 넘어감
- 1367년(공민왕 16) 탐라가 고려로 환속
- 1374년(공민왕 23) 목호의 난을 진압하면서 탐라지배권은 고려로 일단락
- 1404년(태종 4) 성주·왕자 등 제주토관의 명칭이 좌·우도지관으로 개칭
- 1416년(태종 16) 제주 삼읍 체제(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성립
- 1864년(고종 1) 정의현, 대정현을 정의군, 대정군으로 승격
- 1895년(고종 32) 23부제 개편으로 제주목을 제주부로 개편
- 1896년(고종 33) 13도제 실시로 전라남도 제주군, 정의군, 대정군 성립
- 1910년 정의·대정군 제주군에 합군
- 1915년 군제 폐지, 도제(島制) 실시
-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제주도로 승격**,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 신설
- 1955년 제주읍을 시로 승격
- 1981년 서귀읍과 중문면을 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 추진상 주요 고려사항

- 예산 확보의 현실성과 전략적 선택
 - 현실적 예산 편성 및 민간·국비 연계 방안을 모색함
- 전문 인력 확보
 - 수행 연구 기관의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 영입과 역량 강화를 병행함
- 기관 간 협력 체계의 공고화
 - 정기 협의체 운영과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협력 강화함
- 도민 참여 채널의 확대
 - 설문조사·공청회·자문단 운영으로 도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함

참고문헌

- 김찬흠,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 이해준,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2001
- 김광철, 「지역사 연구의 경향과 과제」, 『石堂論叢』 35,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지』, 2006
- 이훈상, 「지역사, 지역사의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체성 만들기」, 『영남학』 1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 김동진, 「제주역사 연구의 검토와 전망」, 제주학회 제36차 전국학술대회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2011
- 허영란,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 역사문화학회, 2017
- 홍기표, 「해방 이후 제주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연구』 50, 제주학회, 2018
- 제주학연구센터, 『제3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 계획』, 2022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s://www.grandculture.net/korea>) 및 각 연구기관 누리집

연구진

| | | |
|------|-------|---------------|
| 연구책임 | 김 우 리 |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 공동연구 | 임 승 희 |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제주학연구 104

제주 역사 분야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보고서

발행인 || 김완병

발행일 || 2025년 12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TEL. (064)726-5623 FAX. (064)900-1840

www.jst.re.kr

인쇄처 || 디자인그린

ISBN 979-11-997065-1-4 9309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